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자료집

2016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터닝포인트 Turning Point'

터닝포인트
Turning Point

터닝포인트



목차

1지점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개 및 운영 개요
사업운영 결과
모니터링단 운영
기획 프로그램 운영 개요

21
23
26
29

2지점 일반공모. 운영 기관 · 단체 소개 그리고 전환

<꿈다락 놀이터 I · II> 소개 및 운영 정보
터닝포인트. <꿈다락 놀이터 I · II> 기획 프로그램 운영

35
215

3지점 기획공모. 운영 기관 · 단체 소개 그리고 전환

<다시, 꿈다락> 소개 및 운영 정보
터닝포인트. <다시, 꿈다락> 기획 프로그램 운영

223
255

4지점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특별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운영

261

5지점 참여자 설문

운영 단체 · 기관 프로그램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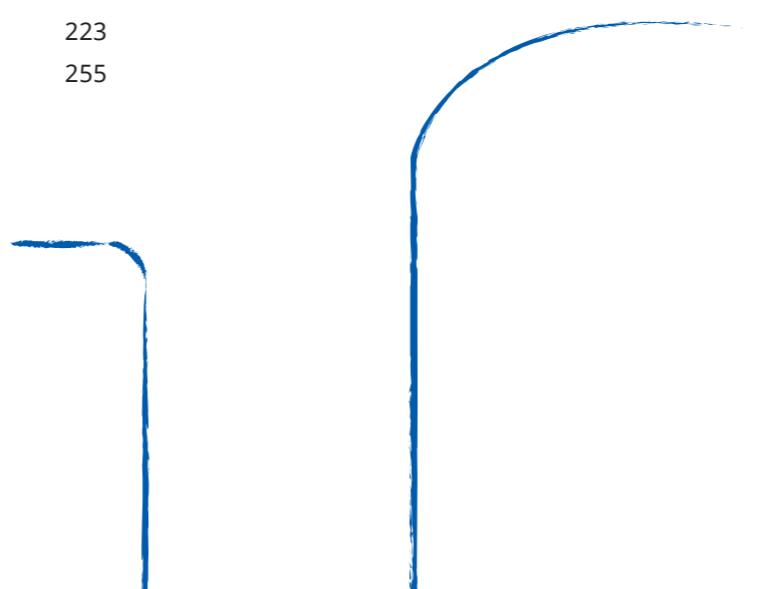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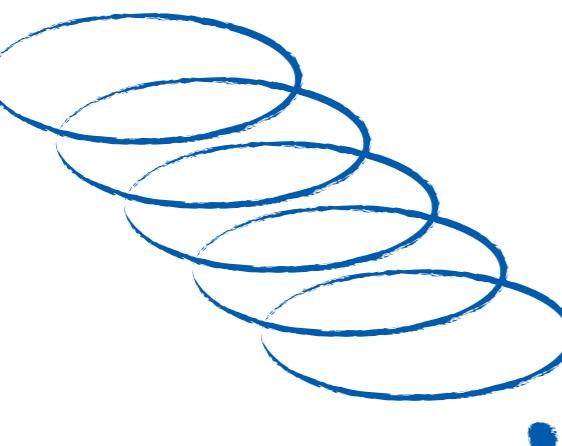
277

6지점 2016 꿈다락의 터닝포인트 순간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현장 사진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홍보 영상

285

308



담당자 인사말

혼자 꿈을 꾸면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2015년 9월, 이듬해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즈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산이 두 배 증액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센터에서는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5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 내용을 정리하며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100% 예산 증액……. 지역의 더 많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토요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담당자로서 같은 이름으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주제와 형식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그 획일화되는 과정에 선두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사업을 어떠한 방향성을 토대로 지원할 것인지, 이를 지원 단체와 어떤 방식으로 공감하며 나눌 수 있을지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2016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즐거운 토요일을 만드는 것, 센터와 지원 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들, 즉 '참여자가 즐거운 토요일'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예술이 주는 다양한

상상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를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나와 주변을 조금 더 예민하게(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 이를 통해 나와 주변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하며 아이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고 말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1년 단위 짧은 지원 사업에서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에 내몰리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아이들의 비극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소개 글에 늘 등장하는 '공진화(coevolution)'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공진화(coevolution)'란 다른 종(그룹)의 유전적 변화에 맞대응하여 일어나는 한 종(그룹)의 유전적 변화를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여러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관계를 통한 진화적 변화를 일컫습니다. 예산을 주고 사업을 수행하고 숫자를 확인하는 단순한 과정만의 반복을 지양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센터도 사업에 나름의 고민을 담아내고 현장의 단체 분들도 함께 고민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사업 구조 안에서 단체와 센터가 서로 소모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들을 담아, 2016년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기 위해 그간 운영하던 공모 유형, 워크숍, 모니터링 등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두 배수 늘어난 지원 단체 수와 예산은 위기이도 했지만 반대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더 많은 단체 및 기관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일반공모 <놀이터 I>과 기획 공모 <다시, 꿈다락> 트랙을 운영했습니다. <놀이터 I>은 새롭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진입한 단체들의 성장을 위한 트랙으로, 사업 시작 전 한 달 동안 12개 단체 및 기관이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소규모 이야기 모임을 진행하며 수업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경쟁적 구조 안에서 아깝게 선정되지 못했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시, 꿈다락>사업에서는 센터가 제공하는

워크숍 <마중물 시간>과 단체 자체 학습 모임,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심사-운영-정산'의 과정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지원 사업 구조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나온 기획들입니다.

일반공모 사업 틀 안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센터와 단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접점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면 불편하고 소모적인 관계로 이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모니터링 지표 개선'과 '담당자 사전 모니터링', <모니터링 엿봄>을 실행했습니다. '담당자 사전 모니터링'은 얼굴도 모르는 채 전화로만 소통하는 한계를 줄이기 위한 담당자들의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기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심사-모니터링 지표를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를 사업 참여 단체 및 기관과 함께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어진 <모니터링 엿봄(사전모임)>에서는 모니터링 위원과 단체가 사전에 만나 현장의 주요 이슈와 모니터링이 주는 불편함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첫 만남이 주는 긴장감을 조금 해소하고, 밀도 있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모니터링단 기획의 콜로키움 <지금, 여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모니터링단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한편 무더위가 이어졌던 8월에는 매주 반복되는 수업에 지친 매개자들에게 쉴 '틈'과 생각을 '틔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워크숍 <틈틈>과 <4방팔방>도 진행하였습니다. <틈틈>에서는 놀이, 성장, 감각을 소주제로 이와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및 강연을 운영하며 매개자분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센터의 실무자 연구 모임에서 이어진 문화예술교육 운영 단체 네트워킹 워크숍 <4방팔방> 역시 올해 일어난 재미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4개 지역의 실무자들이 꼬박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기획하며 만든 <4방팔방>에서 지역은 다르지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1박 2일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그동안 경기도 곳곳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보여주는 숲 속 놀이동산 <지·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폐목재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공간 연출을 통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매개자분들과 경기도민에게 새롭고 신나는 경험을 주는 하루를 선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6년 한 해는 이처럼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실험과 전환을 모색했던, 소위 고군분투(孤軍奮鬪) 한 해로 기억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혼자 꿈을 꾸면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라는 훈데르트바서의 문장을 몸소 느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이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2016년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늘 애정으로 경기 지역의 현장을 바라봐 주신 모니터링단 분들, 사업을 확장하며 만났던 많은 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없이 사업을 벌이고 진행하기 바빴던 담당자들이 중심을 잃거나 지쳐갈 때 묵묵히 뒤에서 조언과 응원으로 힘이 되어주신 센터장님과 문예진흥팀장님, 문화예술본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도 벅찼지만, 매 과정마다 의미를 담고 토론하던 긴 시간들을 함께 해준 꿈다락, 센터 팀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마다 묵묵히 아이들을 만나온 54개 단체 및 기관 분들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1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발걸음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2017년 2월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담당자
최지원

모두의 Turning point를 위하여

2016년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이하 '꿈다락')는 갑작스레 부자가 되었습니다. 돌연 쏟아진 두 배의 예산 17억 8천 4백만원……. 꿈다락 담당자 세명은 생전 처음 보는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몰라 골머리를 많이 써었었죠. 한편, 운영 역사상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게 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은 결과자료집의 주제명처럼 새로운 변화의 지점, 터닝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산운영의 한계로 인해 그동안 회의나 토론, 의견 수렴으로만 그쳤던 실체적 문제들을 꺼내놓고, 그동안 염두조차 내지 못했던 변화의 시도를 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화기(혼돈기?) 속 꿈다락에는 다양한 갈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차곡이 정리하고자 본 결과자료집을 제작하면서 뒷장에 소개될 '새롭게 개척된 길'들의 안내를 돋기 위한 약간의 글을 보탭니다.

2016년 꿈다락의 큰 기조는 한 가지였습니다. "5년 차를 맞이한 꿈다락의 지난 과정과 더불어 <지금, 여기>를 짚어보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고 실행하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회고-고민-실행 중 실행이 다소 우세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뻗어나갔던 다채로운 실험과 시도의 발자국들 중 꽤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써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모니터링에 대한 가치 매김과 시행 개선 노력을 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단체에 대한 진정 어린 애정과 관심, 그들의 성장을 돋는다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처음 만나는 전문가들(모니터링위원)과 생전 처음인 전문가를 만나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는 '갑·을' 관계에 대한 단체 분들의 편견을 완화하고자 사전 모임 <모니터링 옛봄>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비전문가는 해석하기 어려웠던 문화예술 교육 관련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콜로키움 <지금, 여기>를 기획,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활동가들이 보다 쉽고 가깝게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의미들을 체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니터링단 운영 선생님들께서 직접 기획해내신 소통과 이해의 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늘어난 예산 공간에 신규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해 신진 단체를 위한 공모 유형 <놀이터 I>과 <다시, 꿈다락>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중 괄목할만한 성과는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보다, 단체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왜 실행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웜업warm-up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저희 담당자들 역시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 간에서 이루어지고 한 사람마다의 진정성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비록 답보 없는 정책과 행정의 언어에 가로막혀 실행하지 못해왔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반짝이는 기획력보다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단체들의 일년의 여정을 전시, 공연, 영상, 체험 등의 다채로운 풍경으로 펼쳐내는 하루살이 놀이 동산 <지·꿈랜드>를 개장하여, 지원사업의 지난 과정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다음의 문화예술교육을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언급한 실행 결과들은 단순 예산 지원 구조를 넘어서는 단체-센터 간 상호 성장 가능한 건강한 지원체계 만들었으면 하는 경기 센터의 의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런 변화와 다양한 시도에는 빛나는 성과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모두가 처음인 시도에는 역시나 시행착오가 따랐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기획 사업의 실행으로 사업 전반의 질적 제고를 했다는 성취감은 있지만 한편, 바쁘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의 행정 문의를 제때 처리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도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앞서는 의욕으로 획기적인 확대를 시도한 기획사업들의 경우, 철학과 맥락의 깊이를 다듬는 재정비가 더욱 촘촘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과와 한계가 항상 존재하는 우리의 활동 현장, 한정적인 중앙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구조에서는 과연 어느 지점까지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지점에 대해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행정지침의 획일화, 정책적 정체성의 모호함, 인력 구조의 한계 등 이상적인 문화예술교육에 가닿기엔 아직 꿈다락이라는 지원사업 안에 구조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경력 단체들이 지원 사업의 소모적인 구조 안에 지쳐 포기하게 되는 일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과연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차에 접어든 이 담당자는 이 일을 왜 계속하고 있을까요? 이 책을 펼쳐보고 계신 선생님은 어떤 이유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속하고 계신가요? 아이들은 왜 꿈다락에 오게 되는 걸까요?

참 어렵지만 결국 모두는 '난 누구, 여긴 어디?'를 찾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서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외치는 대중적 목소리에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문화예술의 힘은 무엇일까요? 나다움을 지키고 건강하게 타인과 관계 맺도록 하며, 언제나 뒤통수를 치며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힌트를 문화예술의 다양성에서 얻을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문화예술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구와 호기심, 관계의 아름다움을 어려움 없이 꺼내 보이도록 하며, 그것이 틀리지 않다고 격려합니다. 그 자극들은 경쟁적인 사회구조,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적인 일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사유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체적이고도 풍성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예술의 자극'으로 위로받고 격려 받은 과정을 선하게 공감하고 나누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방법으로 '나'와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고, 너와 나의 차이를 실감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남이 아닌 '나'로서 성장하게 하는 아이들의 아지트를 만들어 주겠다는 공통의 결연으로 다시 한 번 꿈다락의 다음을 고민합니다.

2017년 2월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담당자
공민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터닝포인트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책의 제목처럼 정말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있어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를 맞이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터닝포인트... 본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기점(그 원인이 된 플레이)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새로운 전환점을 뜻하는 인생에 있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계기 또는 그 전환점을 일컫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5월부터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담당자로 최지원, 공민혜 선생님과 같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타 사업을 운영하다가 후발대로 합류한 까닭에 준비운동의 과정은 생략한 채 이미 앞서 달리고 계신 선생님들을 따라잡기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뛰어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에 참여하기 전, 이미 연초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5년의 역사 속에 있어 엄청난 터닝포인트, 즉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계기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 계기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산 100%의 증액이 그것입니다. 10%로도 아닌 100% 증가. 0이 무려 두 개. 이 0이 주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015년 경기지역 예산을 기준으로 10%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할 때 그 비용은 일반공모를 통해 최소 4개~ 최대 6개의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무려 10이 아닌 100이라면 예산의 증가율이 대략 짐작되실 겁니다. 물론 사업에 있어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일수록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의 사업에 있어 갑작스러운 예산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무게를 떠안기도 합니다. 사업이 가진 공익성을 기반으로 수치적 확장은 물론, 그만큼 사업의 내실·방향성에 대해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걸음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쉽사리 반길 수 없었던 갑작스럽고 강제성을 띤 예산 증가는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성을 띤 터닝포인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또 다른 원동력이 되어 1년간 참 많은 시도와 변화를 맞이하게 해주었는데요, 그 변화의 틀은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는 늘어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트랙으로 공모를 시도했고, 전년 대비 참여 운영 단체가 두 배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수치는 어떤 공모를 진행했어도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치적 증가를 고려하기 전에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있어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저희 사업의 목적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의 목적 '경기도 내 학령기 어린이·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에게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토요문화학교 개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고루 지원될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저희와 한뜻이 되어 사업에 참여해주셔야 하지요. 또한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사업에 참여해주셨던 단체들의 진입 유도를 유지하고, 경기도 내 곳곳에 있는 신규 단체들의 진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일반공모 꿈다락 놀이터를 I·II로 구분하여 신규 단체와 경력 단체를 구분하여 공모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원사업 경쟁 구조 속에서 기회를 찾지 못한 단체의 참여 기회와 성장을 지원하는 <다시, 꿈다락>이라는 기획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획공모의 경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프로그램 통해 제 자신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산 지원-사업 운영'

만이 지원사업의 전반적 목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 또한 매개자 선생님들과 같이 성장을 해야만 저희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비전과 미션을 실행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전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매개자 워크숍 <꿈다락 틈(쉬고), 틈(틔우다)>(이하 틈틈)과 강원경기서울인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매개자 네트워킹 워크숍 <4방팔방>(이하 4방팔방), 문화예술교육 콜로키움 <지금, 여기>(이하 콜로키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세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계기와 기획의도를 가지고 기획 운영되었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가진 지향점, 방향성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4방팔방>의 경우 2015년부터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획사업인 <경기도넛>의 일환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을 가져온 것이 계기인데요, 그중에서 강원, 경기, 서울, 인천 실무자들은 이 모임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는 좁은 시각을 광역으로 확장시키고 사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만남을 실무자 선으로 끌내는 것이 아닌 매개자분들에게도 확장하여 우리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운영단체와의 네트워킹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야의 확장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고민 지점을 넓게 공유해 볼 수 있는 자리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로키움>의 경우 꿈다락 5년 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과정과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짚어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에 있어 꼭 필요한 자리였지요.

마지막으로 <틈틈>이 있습니다. <틈틈>의 경우 제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맡은 기획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기획을 해야 할지, 매개자 선생님들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실행해야 할지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

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매개자 선생님들께서 사업 초반 워크숍 때 제출해주신 '듣기, 읽기' 용지 때문이었는데요. 이 용지에는 "올해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워크숍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매개자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에 대한 부분, 수업 방법 등 교육학적인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학과 관련된 워크숍을 기획하려고 하였으나, 문득 지금 내가 기획하고 있는 이것이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지향점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을 함에 있어 교육에 대한 워크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그것보다 더 앞서 전달해야 하고 공감을 얻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키워드, 지향점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매번 사업에 참여하시는 매개자 선생님들에게 강조했고 또 강조했습니다.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다고요. 이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감각, 소통, 관계, 놀이, 상상, 창조,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센터가, 혹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말하는 '감각, 소통, 관계, 놀이, 상상, 창조, 성장'을 키워드로 한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한 번이라도 친절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가를, 혹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고분분투하고 계시는 매개자분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선사해드린 적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항상 말로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그 과정을 매개자 선생님들도 경험을 해보셔야만 우리가 말하는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개자분들에게 '그래, 너희 경기센터가 지향하는 그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이니?'에 대해 답을 드리고 싶었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될 수 있는 틈과 생각의 틔울 수 있는 틈을 드리는 시간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8월에 시행되어 많은 매개자분들께서 참석은 못하셨지만, 참여해주신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전달받을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스팸 수준으로 8월 내내 매일 같이 연락드린 점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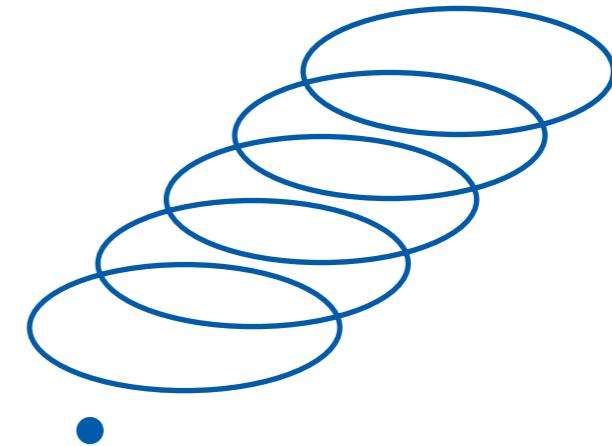
이 두 갈래의 변화 외에도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엿봄, 사전 이야기 모임 등 변화를 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바쁜 사업 일정에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끔 정확히 실행하였나?' , '매개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나?'를 수차례 고민하고 고민하였지만 그때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54개 단체 매개자 선생님들, 경기 센터 팀원들 덕분에 자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습니다.

이처럼 2016년 한 해 어느덧 느닷없이 찾아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터닝 포인트... 너무나도 예상 밖에 그리고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터닝포인트 덕분에 평소 머리로만 상상했던 사업을 실현해보기도 하는 한 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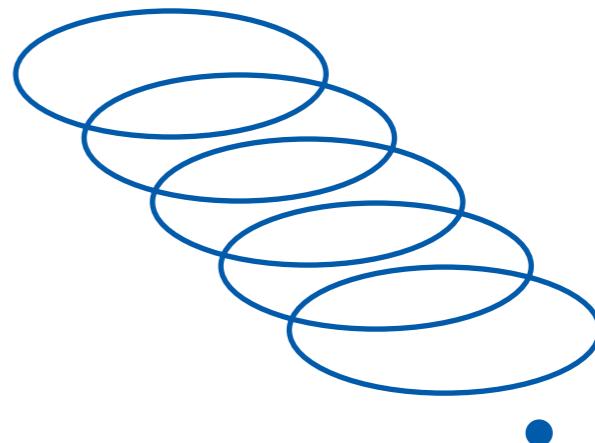
최근 이 결과자료집을 제작하는 동안,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쉽사리 대답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에서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을 위해서, 수업을 하시는 매개자 선생님들의 행복, 수업을 받는 경기도 내 수많은 친구들의 행복 그리고 일을 지원하는 저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지요.

2016년 터닝포인트를 기점으로, 2017년에는 경기도 내 주말마다 행복의 웃음이 더욱더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2017년 2월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담당자
남선현



1지점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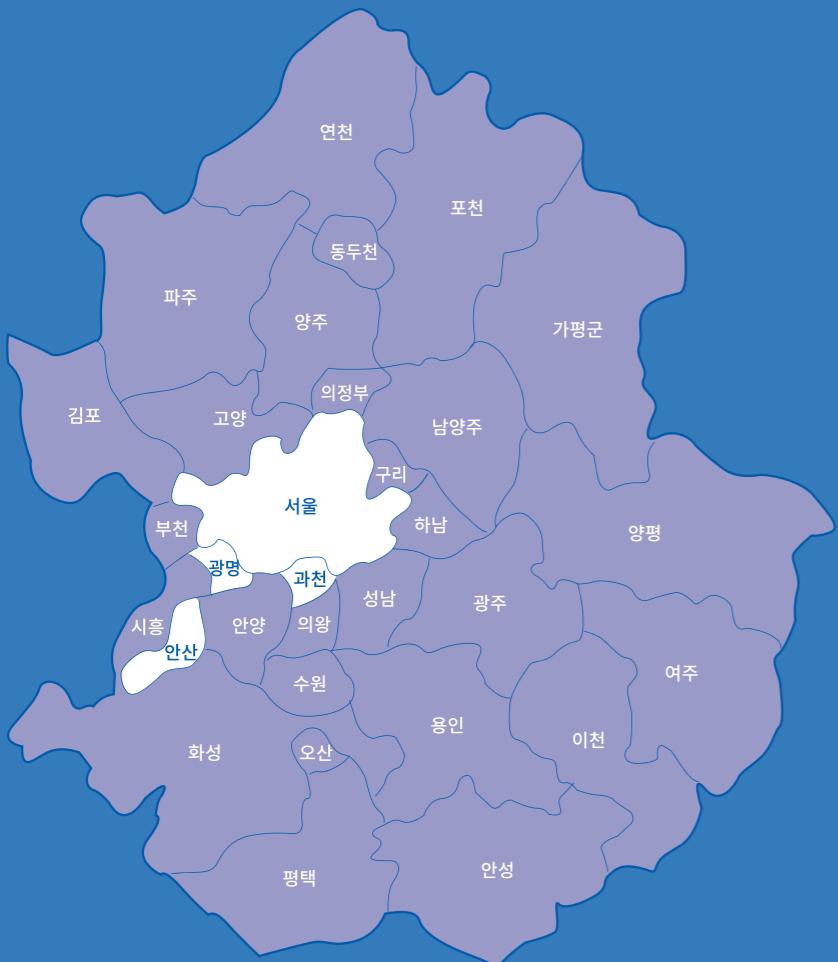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개

내 꿈의 아지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 5일제 수업을 맞이하여 매주 토요일 학령기
어린이 · 청소년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학령기 어린이 · 청소년,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술이 주는 상상, 놀이를 통한 즐거움이 가득한 토요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곳곳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없었던 지역을 확대, 총 28개 지역에서 5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운영개요	
사업 기간	연간(수업기간 4월 - 11월)
사업 대상	경기도 학령기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사업 장소	경기도 내 문화 기반 시설
사업 주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예산	1,784,000 천원

사업유형 일반공모) 꿈다락 놀이터
일회성 · 일방성의 기준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감각, 소통, 관계, 놀이, 상상, 창조, 성장을 키워드로 하는 과정 중심의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활동 운영을 지원합니다.

꿈다락 놀이터 I
꿈다락 놀이터 II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경험이 적은 단체 및 기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 및 기관

기획공모) 다시, 꿈다락
경쟁적인 지원 사업 구조 안에서 소모되었던 단체 · 기관들의 사업 참여 기회 확장을 위한 단체 성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운영을 지원합니다.

관련사이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식 홈페이지	www.toyo.or.kr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ggarte.ggcf.kr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ggacef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gcf.kr

사업운영결과	참여 지역 수 28 프로그램 수 54 참여인원(누적) 27,059 총 예산(천원) 1,784,000 비고 국비·도비
구분	지역 단체·기관명 프로그램명 지원금(천원)
일반공모	고양 더불어꿈 우리 동네 왜 왔니? 16,000
꿈다락	꽃찾으러 왔단다~
놀이터	수원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우리들의 이야기 1기, 2기 10,000
	수원 (재)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별의별춤 무용단' 13,000
	수원 찬미아트창작소 철학동화로 세상을 그리다 16,000
	양주 조명박물관 숨빛꼭질_빛으로 노는 아이들 18,000
	여주 여주사람들 여강을 따라가며 놀자~ 17,000
	오산 송연옥연극치료연구소 연극예술치유교육 14,000 휴치유상담센터 "나 콩! 너 콩! 두리 콩!"
	의왕 쏘챔도예놀이터 업사이클 챔! 챔! 챔! 18,000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 17,000
	파주 금촌청소년문화의집 Oh! 늘 행복한 뮤지컬 18,000
	포천 예술교육기업[모색] 함께하는 연극 '놀이터' 16,000 [놀아보고, 이해하고, 터트리고]
	하남 별흐름 얘들아 여기서 놀다 가자! 17,000
일반공모	가평 설미재미술관 Eco Echo 놀고 그리고 만들다! 28,000
꿈다락	고양 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영상으로 보는 우리세상_3색 이야기 15,000
놀이터	고양 유진민속박물관 소(小)소(小)한이야기 25,000 <쿵덕쿵덕, 짹고 빵고>
II	광주 (재)대유문화재단 영은미술관 신나는 문화예술 놀이+터 28,000
	광주 풀짚공예박물관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6,000 풀짚공예 창작세상
	구리 꿈질공방협동조합 웃&꿈을 디자인하다-청소년 패션공방 20,000

구분	지역	단체·기관명	프로그램명	지원금(천원)
일반공모 꿈다락 놀이터 II	군포	군포문화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가족이 행복한 리듬라떼 Tap으로 !!	22,000
	김포	보름산미술관	보름산 올래 생태탐험단	30,000
	남양주	서호미술관	꿈의 조각들을 모으다	24,000
	동두천	사단법인 한국전래놀이보존회	얘들아 노~울자 꿈 따라 가자	28,000
	부천	다크호스 댄스	지화자! 댄스 파티!	20,000
	성남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몸짓으로 표현하는 DREAM '꿈꾸는 청소년 劇(극)' 시즌2	29,000
	성남	문화예술 놀다	비밀공작소	25,000
	성남	판교생태학습원	「엄마랑 아빠랑 생태놀이터」	28,000
	성남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내가만드는예술장난감,오!마이토이 (무빙토이오토마타교실,플라잉토이드론교실)	21,000
	시흥	환경보전교육센터	Eco in Art. 문화예술로 태어난 자연생태	28,000
안성	문화예술놀이터 우리	하늘땅별땅 생태미술교실	40,000	
안성	(사)안성공예가회	호모크래프트웨일리 (HomoCraftFamily-동굴벽화프로젝트)	28,000	
안양	하트 무브먼트	2016 청소년 창의 성장 프로젝트 (Anyang, Be Creative! with Dance)	23,000	
안양	사단법인 소셜워크	땡스맘 thanks mom	39,700	
양주	양주시교육진흥원 (전 양주시립도서관 남면도서관)	도서관 예술교실 “나는 그림책 작가”	14,000	
양평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토요다큐멘터리영화학교 '토닥토닥'	40,000	
양평	딴꿈양식장	산중마을 심쿵호랭이와 불매산적	27,000	
연천	고사리협동조합	미션!선사의 비밀을 밝혀라~	30,000	
오산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	개울따라실따라	28,000	
용인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찰칵! 우리는 자연예술가	28,000	

용인	경기도박물관	옛 문화 속 아름다움	28,000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2016 NJ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8,000
의정부	(재)의정부예술의전당	"내가 되고 싶은 나" 프로젝트	40,000
파주	블루메미술관	모여라! 미술관 놀이터	28,000
파주	행복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단	책이랑 놀아난 애니메이션	35,000
파주	파주시 중앙도서관	왁자지껄 도서관 '문학 놀이를 품다'	20,000
파주	한길책박물관	19세기 그림책 속으로 떠나는 우리 가족 박물관 여행	26,000
평택	평택시립장당도서관	우리동네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20,000
하남	호크마댄스씨어터	Body Talk	40,000
하남	(재)하남문화재단	하남문화예술회관 <각양각색 예술 점령기!>	28,000
화성	현대지동슈퍼마켓	장롱 속 영화제 II, III	40,000

구분	지역	단체·기관명	프로그램명	지원금(천원)
기획공모 다시, 꿈다락	성남	사월의 들판	내 책을 만들고 싶어요 LTP 프로젝트	13,000
	안양	컬쳐 커넥션	일상에서 예술찾기, 예술에서 일상찾기	12,000
	양평	脈 K-PULSE (맥케이펄스)	룰루랄라 나난	12,000
	포천	ArTeacher(아티처)	문화, 예술 비빔밥	12,000
	이천	인온아트센터	자유樂 오감체험	5,900

모니터링단 운영

경기 지역 곳곳의 꿈다락 교육 현장을 돌아봅니다.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운영 단체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센터와 단체·기관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다양한 이슈를 도출하여 경기 지역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현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단 주관의 콜로키움 및 방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단 구성

모니터링단 [디디]

성명	소속/지위	성명	소속/지위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주성진	문화용역
백미현	중앙대 외래교수	백용성	미학자
송수연	언메이크랩 unmake lab 활동가	박계리	홍익대학교 융합예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최혜자	문화디자인대표 성공회대 초빙교수	오명숙	새롭게 보는 박물관학교 대표
김정이	문화기획자	김소연	연극평론가
김은기	모니터링단 [디디] 코디네이터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모니터링 운영 결과

일반공모 : 꿈다락 놀이터

모니터링위원	단체명	지역	모니터링위원	단체명	지역
김소연	예술기업모색	포천	김월식	쏘챔도예놀이터	의왕
	조명박물관	양주		여주사람들	여주
	별흐름	하남		송연옥연극치료연구소	오산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성남		판교생태학습원	성남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찬미아트창작소	수원
김정이	보름산미술관	김포		현대지동슈퍼마켓	화성
	환경보전교육센터	시흥		평택시립장당도서관	평택
	하트무브먼트	안양		다크호스 댄스	부천
	소셜워크	안양			

박계리	고양문화재단 고양미디어센터	고양	오명숙	유진민속박물관	고양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		서호미술관	남양주
	문화예술놀이터 우리	안성		양주시교육진흥원	양주
	(사)안성공예가회	안성		(전 양주시립도서관 남면도서관)	
	현대지동슈퍼마켓	화성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용인
백용성	고사리협동조합	연천		경기도박물관	용인
	블루메미술관	파주	주성진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수원
	행복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단	파주		(재)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
	한길책박물관	파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백미현	설미재미술관	가평		찬미아트창작소	수원
	사단법인 한국전래놀이보존회	동두천		호크마댄스씨어터	하남
	꼼질공방협동조합	구리		(재)하남문화재단	하남
	딴꿈양식장	양평	최혜자	(재)대유문화재단 영은미술관	광주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		풀짚공예박물관	광주
송수연	더불어꿈	고양		군포문화재단	군포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금촌청소년문화의집	파주		문화예술 놀다	성남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	오산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성남

기획공모 : 다시, 꿈다락

모니터링위원	단체명	지역
김보성	사월의 들판	성남
	컬쳐 커넥션	안양
	인온아트센터	이천
	脈 K-PULSE(맥케이펄스)	양평
김정이	ArTeacher(아티처)	포천

문화예술교육 콜로키움
<지금, 여기> 기획·실행

일시	주제	인원	장소
8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적 배경과 철학	55명	경기아트플랫폼
9월	지난 10년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과제	30명	경기청년문화창작소
9월	지역-삶에서의 문화예술교육	30명	경기청년문화창작소
9월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25명	경기아트플랫폼

모니터링단 방담회 운영

일시	차시	내용	인원	장소
10월	1차	콜로키움 진행 결과 공유 및 평가, 상반기 모니터링 현장 이슈 공유	11명	경기문화재단 2층 꿈다락방
12월	2차	2016 모니터링 진행 방식 평가 및 결과자료집 제작 방향 협의	13명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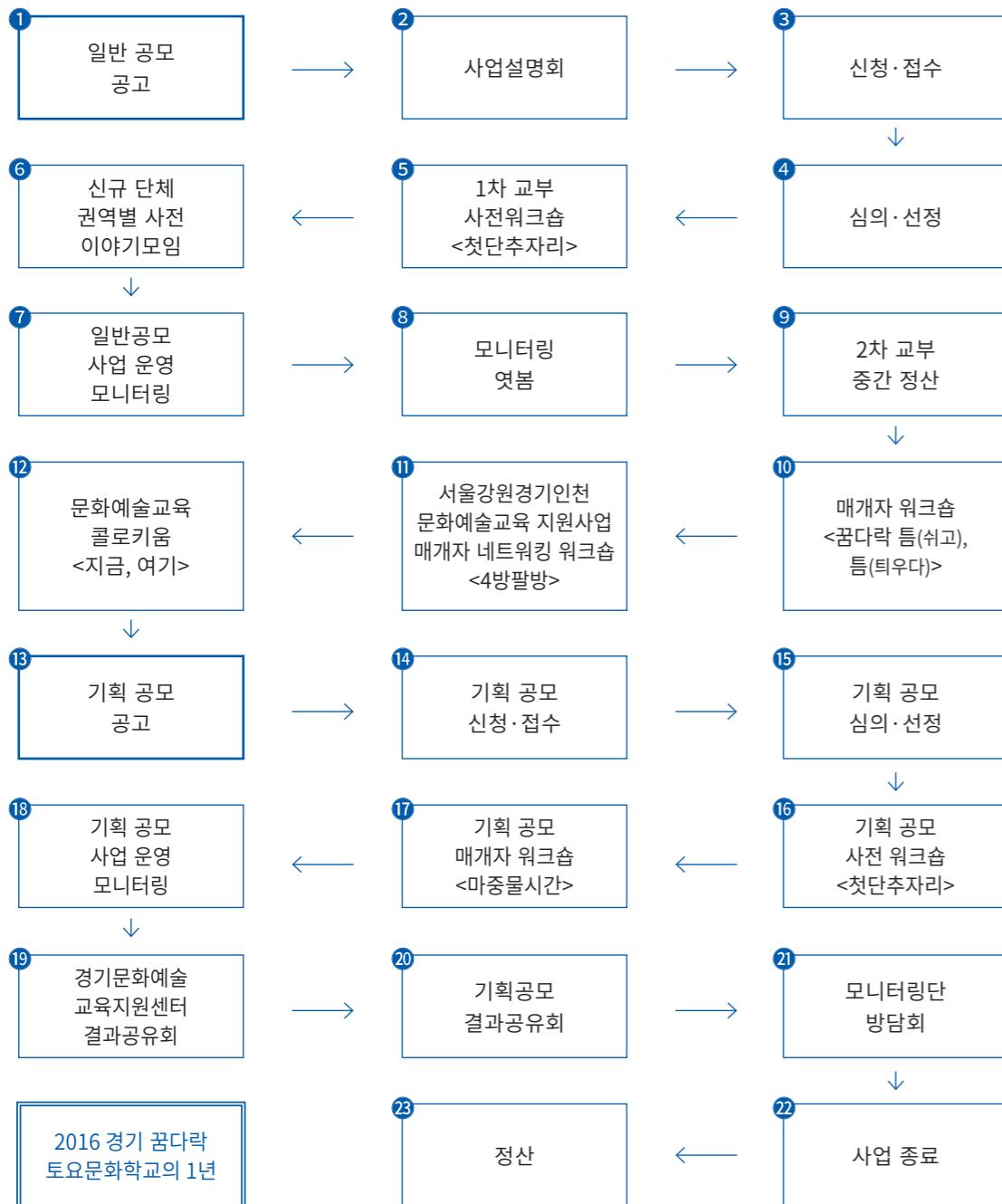
기획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선정 단체·기관들을 대상으로 매개자들이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네트워킹·컨설팅 프로그램 및 매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 해의 사업 운영 과정 및 성과 공유를 위한 결과 공유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대상
워크숍· 네트워킹· 컨설팅	사전워크숍 <첫단추자리>	정산워크숍(운영 지침 안내), 사전 이야기 모임	일반공모 기획공모
	신규 단체 권역별 이야기 모임	사업 시행 전 권역별 단체 이야기 소규모 모임 및 컨설팅 진행	일반공모 놀이터 I
	모니터링 사전모임 <모니터링 엿봄>	전문가 모니터링 시행 전, 모니터링 위원과 단체 간 사전 현장 이슈 공유	일반공모 놀이터 II
	강원경기서울인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매개자 네트워킹 워크숍 <4방팔방>	지원사업 매개자 대상 지역 간 네트워킹 및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일반공모
매개자 역량강화	<꿈다락 틈(쉬고), 틈(틔우다)>	사업 참여 단체, 기관 활동가(강사)들에게 쉬어갈 틈과 새로운 생각을 틔울 수 있는 매개자 워크숍 운영	일반공모
	<마중물시간>	기획공모 선정 대상 워크숍 및 특강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기획공모
결과공유회	지원사업 결과공유회 <지·꿈랜드>	사업 운영 과정 및 성과 공유	일반공모
	결과공유회 <땅 끝, 곧 땅의 시작>		기획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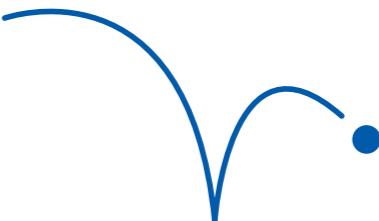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1년





2지점

일반공모
운영 기관 • 단체 소개
그리고 전환



<꿈다락 놀이터 I · II> 소개 및 운영 정보

본 포토에세이는 참여 단체 및 기관에서 직접 작성해주셨습니다.

꿈다락 놀이터 I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

건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퍼포먼스,
디자인, 놀이, 답사 등 다양한 체험으로 자신을
둘러싼 건축 환경을 이해해보는 창작 워크숍

단체·기관 명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교육분야 건축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교육장소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교육기간 1기 2016.05.07 - 10.30

매개자 홍지웅, 이진옥, 신시호, 이종광
홍경숙, 신지혜, 황정화, 최은아
문의 이메일 jinlee0204@mimesisart.co.kr
단체·기관 홈페이지 mimesisart.co.kr



건축가로서의 역할 : 관계를 만드는 사람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로서 첫 번째 이야기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건축가의 역할>로 시작합니다. 건축가는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구축>이기 이전에 주변과의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어린이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건축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좋은 건축 이야기

좋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직접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탐사해보았습니다. 미술관은 예술과
그 예술을 감상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작품을 전시
하는 공간, 휴식을 위한 공간,
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 그리고
야외 공간까지 미술관 속 프로그램과
동선을 자연스럽게 이해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만의
미술관까지 상상해 보는 어린이
건축가, 어린이 예술가들입니다.



재료와 구조. 우리가 만든 맛있는 공간

우리는 건축의 재료라는 주제에 대해 자연과 사람에 가장 가까운 나무와 돌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나무와 돌의 시점에서 바라본 건축공간은 안에서 밖을 보기도, 밖에서
안을 보기도 하는 <창>의 역할과, 바람과 빛을 내어주는 유연한 <벽>이 되기도 하지요.
어린이 건축가들은 나무와 돌을 대신한 재료로 파스타와 시리얼, 마시멜로우로 바다 위의 집,
그네가 있는 집, 뱀골목이 있는 피라미드 등등 나만의 마을을 채워나갔습니다. 이 마을은
어린이 건축가들의 <맛있는 공간>이랍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어린이 건축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어린이 건축가들은 주변의 자연 환경, 일상 속 경험들을 떠올려
보고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린이 건축가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닌 의미를 담은
건축으로, 건물의 집합이 아닌 이야기가 담긴 도시 공간을 발견하는 어린이 건축가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수원

꿈다락 놀이터 I

우리들의 이야기 1기, 2기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혹은 일상을 주제로 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매개자	김성희, 오수민, 이승준
교육분야	미디어		강혜란, 김은경
교육대상	중등 1 취약계층	문의 이메일	mediaedu7@swmedia.or.kr
교육장소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교육실 · 영상스튜디오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swmedia.or.kr
교육기간	1기 2016.05.07 - 08.13 2기 2016.08.27 - 11.26		



친구들과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1:1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속마음을 더 잘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였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나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것, 지금 드는 생각 등 나의 이야기를,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들의 미디어 이야기>라는 프로그램명에 맞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건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지요.



1기 때에는 극영화를, 2기 때에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촬영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무더운 여름날에 촬영했던 게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만큼
기억에 오래 남아요. 결과물을 보면 더 뿐듯하기도 하고요.



극영화를 촬영할 때는 배우가 되어
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장난기
많은 친구도 카메라 앞에서는
진지하게 촬영에 임했어요. 실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시험 스트레스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지 감정이입도 더 잘 됐어요.



우리들이 직접 촬영한 것을 편집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공들이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흥미도 갖고 열심히 임했어요. 배울수록
흥미롭고 새로운 것이 많은 편집의 세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결과물을 함께 보는 결과공유회를 가졌어요.
화면에 나온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친구들은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나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죠? ^^ "나에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꿈의 길을 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입니다."

의왕

꿈다락 놀이터 I

업사이클 캠!캠!캠!

업사이클을 소재로 공예와 미술, 공간연출을 보다 쉽고 흥미 넘치게 경험하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쏘잼도예놀이터
교육분야 업사이클링공예
교육대상 초등 4, 5, 6 / 중등 1, 2, 3
교육장소 청계나눔도서관
교육기간 1기 2016.05.07 - 07.29
2기 2016.08.06 - 10.29

매개자 김미희, 이낙영, 홍준표, 봉지은
문의 이메일 ssojamcera@naver.com
단체·기관 홈페이지 blog.naver.com/ssojamcera



가자! 보물 찾으러~ 우리 마을에 있는 청계천변을 탐험하며 보물을 찾으러 모험길에 나섭니다. 보물로 새롭게 탄생될 보물(쓰레기)을 찾는 길은 조금 덥지만 그래도 즐거워요. 즐거운 웃음꽃 가득했던 이날을 기억해 봅니다.



현 웃 줄게 새 웃 다오! 만난 지 두 번째 시간, 어색함도 잠시 아이들은 이내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작업복을 만들어봅니다. 현 웃을 활용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은 나만의 작업복~! 서로 모여 각자의 컨셉을 잡고 즐겁게 만들어 입어봅니다. 내 웃이 더 이쁘다며 뽐내는 아이들~ 행복하고 뿌듯한 표정이 가득합니다.



나는야 캠캠 공예가 I 모험을 통해 찾은 우리의 보물을 재탄생시킬 작업을 시작해 봅니다. 내 손으로 만든 예쁜 작업복을 입고 신기한 마법가루를 통해 공예 작업을 시작해 보아요. 물과 만나 점점 딱딱해지는 마법가루~ 정말 정말 신기합니다. 굳은 틀을 이용해 예쁜 창작물을 만드는 나는야 캠캠 공예가입니다.



나는야 캠페인 공예가 II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나만의 작품을 예쁘게 색칠하는 날입니다. 흙으로 만든 물감이 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웃을 입은 내 작품들!! 이제 블록에서 구워지면 단단한 초벌 도자기가 된다고 합니다!



나는야 캠페인 공예가 IV

흙이었던 작품이 단단한 도자기로 변신했어요! 이제 모험에서 찾은 보물과 내가 만든 도자기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계획했던 디자인과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예쁘게 작품을 만들어 보아요. 계란판은 찍찍 쥐가 되고, 세제통은 별이 가득한 화분이 되고.. 예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나는야 캠페인 공예가 III

초벌 된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는 날이에요~ 유약을 입고 가마에 한번 더 들어갔다 나오면 푸석했던 초벌 도자기에 유리막이 형성되어 반짝거리고 단단한 도자기로 변신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차가운 유약을 이리저리 잘 섞어 내 속으로 유약을 빨라릅니다. 바닥은 잊지 말고 깨끗이 닦아줘야 해요. 안 그러면 가마에 붙어서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도자기 세계인 것 같아요.



짜짠~ 소개합니다!

오늘은 정말 공예가 선생님과 함께 특강 시간을 가졌어요.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바느질하니 어느새 귀여운 인형이 완성되었지요. 인형이 완성되고 도서관으로 이동! 부모님과 많은 친구들이 우리 초대에 응해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만든 모빌, 저건 친구가 만든 보물상자~!! 즐거움과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남

꿈다락 놀이터 I

애들아 여기서 놀다 가자!

단체·기관 명 별호름
교육분야 연극
교육대상 청소년 누구나
교육장소 덕풍청소년문화의집
교육기간 1기 2016.04.23 - 10.01
2기 2016.11.05 - 11.27

학교 밖 다양한 연극 놀이를 통해 청소년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

매개자 장인수, 정혜경, 김민지
황인자, 이슬기
문의 이메일 junydia@naver.com
단체·기관 홈페이지 cafe.naver.com/qufgmfma



연극놀이의 시작 시작이란 도전이기도 하다. 새로 만나 나를 알리고 너를 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친해지자. 투명 줄넘기, 리듬 타기 등 놀이로 하하 호호 시작~

뽐내기

살짝 어색함을 뒤로하고
동네 한 바퀴
여기저기 탐방하며 이야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한다.
친구에게 나를 알리고 나도 친구를
알아간다.
친구들과 찰칵~

스토리텔링

다양한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창의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온다.
서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나에
큰 삶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야기 발표

그간의 노력으로 놀이를 하고 친구와 소통하며 이야기를 만들었다. 두근두근

문화적 나래

마지막으로 텐덤 공연 관람을 하게 되었다. 와~ 우와~ 이런 느낌이에요?
놀람과 환희로 아이들의 얼굴이 빛나고 있다... 공연관람 전 한 컷 ~



꿈다락 놀이터 I

함께하는 연극 '놀이터' [놀아보고, 이해하고, 터트리고]

단체·기관 명 예술교육기업[모색]
교육분야 연극, 통합예술교육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교육장소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교육기간 1기 2016.05.21 - 07.23
 2기 2016.09.03 - 11.12

매개자
문의 이메일
단체·기관 홈페이지

노기주, 남명구, 강민지, 김다정
임혜인, 김희준, 고동규, 김주연
seeknplay@naver.com
www.seeknplay.co.kr



찰칵찰칵 사진 놀이(시장 속 풍경)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마네킹 챌린저처럼 상황을 설정하고 사진 속 한 장면에 우리가 한 명씩 들어가서 우리가 평소에 봄 시장 속 풍경을 연출하고 정지 상태로 사진촬영을 한 것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며 가리키는 아이, 마치 시장 속 좌판에 놓인 물품들은 연상시키는 아이들. 항상 아이들은 관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다양성이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설치 미술가

해바라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빼빼로와 새우깡 쿠키 양파링을
이용해 해바라기를 만들었어요.
특정된 도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려 볼 수도 있어요. 다 만들고
나서 내가 만든 작품을 먹어 보는 것
또한 매력적이지 않나요?



감성 나들이1

오랜만에 날씨도
좋아서 우리는 나들이를
떠나요!! 나들이를 와서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해
봐요. 그럼으로
다양하게 표현해보고
말로도 표현해보고
오늘은 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역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이란
상상을 뛰어넘는다.



내가 바로 추리왕! 설록 흄즈, 코난이 되어본다.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장소에서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사탕이 사라졌다는 설정으로 수업 장소에 도착하자 바로 상황이 전개되고 아이들은 팀은 나뉘
사건 속 제시된 증거들을 수집하며 범인을 찾아간다. 아이들의 사고력과 관찰력 협동심이 고취될 수
있는 내가 바로 추리왕! 끝내 범인은 선생님 중 한 명이 범인이었다는....



감성 나들이2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왔으니,
놀아야 하겠죠? 우리는 지금
수건돌리기 중이랍니다. 엄청
달리기가 빠른 친구 느린 친구 다들
엄청 즐겁게 뛰어다녀서 엄청 배가
고파했습니다.



연극 무대 나들이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소극장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조명도 받아보고 무대 위에서 마음껏 끼를 발산해봤습니다. 무대는 특별한 사람만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것이며, 그 어느 누군가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곳입니다. 따듯한 조명 빛을 받으면서 따스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다락 놀이터 I

연극예술치유교육 "나 콩! 너 콩! 두리 콩!"

연극치료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자아성장을 돋고, 가족 안의 긍정적 지원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송연옥연극치료연구소 휴치유상담센터	매개자	박현주, 노푸름, 박진경, 김기언 문의 이메일 okdt@hanmail.net
교육분야	연극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okdt.co.kr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 가족		
교육장소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기간	1기 2016.05.14 - 07.02 / 2기 2016.07.09 - 07.30 / 3기 2016.09.03 - 10.30		



"나 콩! 너 콩! 두리 콩!" 시작~ '콩'이라는 단어는 알콩달콩의 '콩'입니다. '알콩달콩'은 콩깍지 안에 콩알들이 옹기종기, 오손도손 모여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평일에는 바빠서 서로 만나기도 어렵지만 토요일에 꿈다락에서는 콩이 콩깍지 안에 모이듯이 나, 너, 둘이, 셋이.... 옹기종기 모여서 놀며 함께 성장해 보자는 뜻입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우리 콩콩이들... '나 죄고! 너 죄고!' 죄고인 우리들이 모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몇몇 콩콩이들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인내하고 조율하면서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고 완전한 원을 만드는데 성공했답니다.



내면의 힘 기르기 : 나의 수호신 만들어 나에게 힘주기

콩콩이들을 전 지위에 각자 편한 자세로 눕게 했더니 모두들 재미난 자세를 취하면서 궁금한 표정으로 자기 몸을 그리는 것을 재미있어합니다. 내 몸을 본떠 전지에 그리고 나의 수호신을 꾸몄습니다. 색종이와 크레파스로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로 만들기도 하면서 수호신에게 시험 볼 때 답을 알려주는 능력, 하기 싫은 것을 대신해주는 능력, 무서울 때 나타나는 능력, 숙제를 해주는 능력을 가져서 자신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수호신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자기 몸으로부터 나온 수호신을 마치 자신처럼 소중하게 다루고 집에 가져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호신과 함께 하는 모습이 자신 있고 든든해 보이네요.



온몸에 의식 보내기.
안전한 공간 만들기

팀별로 자신을 지켜줄 안전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콩콩이들은 서로 천재료를 사이좋게 나누기도 하고 공간을 꾸미는 것을 함께 도와주기도 하면서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간식 시간에는 다른 콩콩이의 요새에 놀러가 용기종기 둘러앉아 간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서로의 요새에 방문할 때는 "똑! 똑! 똑! 들어가도 될까?" 매니 있는 이웃사촌의 모습이네요. ㅎㅎ 자신의 요새 속에서 눈을 감고 기만히 누워도 보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입니다.



나는 우주가 창조한 최대의 걸작품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해보고 마음껏 가면에 표현해보았습니다. 매직으로 꼼꼼히 칠하는 우리 콩콩이들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평소 각자의 성격과 개성이 그대로 묻어나 웃음이 납니다. 이제 가면을 쓰고 천으로 멋지게 꾸미고 미래의 나로 변신~~ 전에는 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나 봅니다. 부끄럼 많던 우리 콩콩이가 멋있게 런웨이도 걷고 당당하게 포즈도 취하는 모습에 응원의 박수를 짹! 짹! 짹! 보냅니다.



자유로운 몸과 마음. 엠보싱 비닐로 맘껏 놀기

커다란 엠보싱 비닐을 바닥에 깔기가 무섭게 초원의 야생마처럼 우리 콩콩이들이 이리저리 신나게 뛰어다니더니, 어느새 서로서로 출다리기하듯 힘을 겨루고 뺏고 지키고 땀이 나도록 신나게 놉니다. 누가누가 더 많이 가지나 경쟁하듯이 엠보싱 비닐을 모아서 테이프로 공처럼 뭉치기도 하고 자기만의 아지트에 보물처럼 숨기고 방해자들로부터 용감하게 지켜냅니다. 엠보싱 비닐을 몸에 두르기도 하고 깔고 눕기도 하는 모습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네요.



3기 콩콩이들 마지막 날

풍선을 하나씩 불어 콩콩이들의 이름,
그동안의 활동, 소망, 추억을 풍선 위에
적어봅니다. 몇몇 콩콩이들은 풍선을
불기가 힘든지 해달라며 가져오네요.
풍선들을 큰 천 위에 모두 올리고 띄워
보려는데 장난꾸러기 콩콩이들이 천
아래로 들어가 풍선을 쳐내면서 뛰어
다니고 재미있다고 깔깔대네요. 드디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늘로 띄운 각양
각색의 풍선이 참 가볍고 예뻐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1박 2일 가족캠프 : 우리들의 숲

서로 낯모르는 가족들이 하룻밤을 함께 하며 연극을 통해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아들로, 딸로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삶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아침 산책에서 가져온 나뭇가지
하나를 세워봅니다. 상윤이가 "내가 할 수 있어." 하며 나서보지만 하나로는 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상윤이 아빠가
둘로 해봅니다. "어... 둘로는 될 것 같은데.. 안되네." "아빠~ 내가 해볼게." 이번에는 셋 이상으로 해봅니다.
"와~ 성공이다!" 가족끼리 세운 나뭇가지를 조심조심 들고 다른 가족 나뭇가지들과 함께 숲을 만듭니다. 옮기다가 쓰러
지기도 하고 다른 가족 것을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하나의 숲이 완성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지만 여럿이 모이면 설 수 있고, 그 여럿이 모여 숲을 이루는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과 여러 가족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활활으로 조물조물 원하는 것들을 만들고 우리들의 숲을 멋지게 꾸몄습니다.

꿈다락 놀이터 I

'별의별춤 무용단'

현대무용을 매개로 한 참여형 수업을 통해 청소년의
내·외면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재)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교육분야 현대무용
교육대상 초등 4, 5, 6 / 중등 1, 2, 3
교육장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교육기간 1기 2016.05.07 - 11.19

매개자 문의 이메일
이종훈, 윤효중, 유정연, 한지은
gywnd2006@naver.com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sycc.or.kr/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관계 형성 활동 진행을 통하여 참여 아이들끼리의 라포 형성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부모님들 또한 아이들이 친해지는 모습을 보며 만족
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현대무용의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7월 16일 예술의 전당으로 "나티보스"라는 샤머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공연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는 약간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집중하여 관람을 하였으며, 공연 마무리 이후에 공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동작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활동 도구를 이용해서 무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여 아이들의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몸으로 하는 동작이 아니라 도구로 무용을 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도구가 아이들의 눈을 더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관계 형성 이후로 아이들끼리 많이 친해졌고 아이들끼리 몸을 부딪히며 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니 점점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현대무용 실력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10월 22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에서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년의 릴레이 끝에 부모님들과 친지들 앞에서 멋지게 공연을 해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무섭고 어렵다고 힘들어하였지만 막상 발표회 무대에 올라가서 현대무용을 뽐내는 것을 보니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무리까지 함께 달려온 아이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발표회였습니다.



파주

꿈다락 놀이터 I

Oh! 늘 행복한 뮤지컬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친구와의 소통 및
'나'의 자존감을 확인해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금촌청소년문화의집	매개자	이엄지, 김신혜, 안지수
교육분야	뮤지컬		박채민, 오지수, 이강호
교육대상	중등 1, 2, 3 / 고등 1, 2, 3	문의 이메일	satang67@naver.com
교육장소	금촌청소년문화의집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kcyc1318.or.kr
교육기간	1기 2016.05.07 - 11.12		



대본 쓰고 작곡하고 연기하고, 나도 예술가! 정말 정말 창작 뮤지컬다운 활동을 몰아서 한 날! 초고가 나와서 대본 수정 회의도 하고 그에 맞는 곡도 작곡해 보았어요. 대략적으로 동선도 짜아보았습니다. 연기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재미난 것! 점점 늘어가는 연기 욕심에, 더 열심히! 서로 조언도 해주며! 열정적인 연기 연습으로 후끈 후끈한 연습실입니다.



첫 만남. 첫 번째 주제- 놀이 오늘은 우리의 행복한 만남이 시작된 날! 서로 관찰하기, 이름 외우기 피규, 새날아 둉지 날아 등의 연극놀이를 하며 서로 친해지고, 몸과 마음의 준비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h! 늘 행복한 뮤지컬>의 상반기 주제인 '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이를 하며 놀이 이야기를 하니 금방 친해진 것 같았습니다!



500명 관객 앞에 서다! 평생학습박람회 공연 2016 파주 평생학습박람회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500석 규모의 커다란 극장은 배우들을 긴장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7월에 해봤던 중간발표 덕분인지 큰 실수 없이 공연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500석을 꽉 채우고도 넘는 관객들의 박수소리에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심화하기. 두 번째 주제- 왕따
 <Oh! 늘 행복한 뮤지컬>의 하반기 주제인 '왕따'를 제시하고 함께 '불리'라는 다큐를 보았습니다. 감상 후에는 각자 소감을 나누고 다양한 토론 주제를 이끌어내서 자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사뭇 진중하여 활동적인 수업을 할 때와는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토론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작품의 방향성에 대해 그려보았습니다.



예술가적 모먼트 - 창작곡 녹음과 프로필 촬영
 프로그램 일정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프로필 촬영과 창작곡 녹음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필 촬영은 다들 흰 셔츠를 맞춰 입고 우산을 소품으로 해서 진행됐어요.^^ 마치 모델이 된 듯한 기분 한껏! 녹음은 영상을 찍어서 음원을 추출하기로 하였어요.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녹음을 하다니, 마치 어느 뮤직비디오 촬영장 같았던가요? 가수이자 모델, 배우가 되었던 하루!



파주는 우리가 접수한다! 길거리 공연

파주 운정 호수공원에 위치한 유비파크에서 뮤지컬 멤버 메들리로 길거리 공연을 하였습니다! 운정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주최하는 어울림마당에 축하공연으로 초청된 것인데요. 무척이나 추운 날씨에 덜덜 떨기는 했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우리도 프로!라는 생각으로 매우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확 트인 공간이라 그런지 관객들의 반응도 너무 좋아서 관객들 사이를 방방 뛰며 공연할 수 있었어요. 또 하고 싶네요, 거리공연!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요? 최종 공연

드디어 최종 공연입니다! 우리의 상반기와 하반기를 책임진 창작 뮤지컬인 '계단보다 위'와 '양갱이'는 물론 거리공연 때 했던 뮤지컬 멤버 메들리도 함께하여 커다란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내중학교의 대강당에서 전교생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다니! 심지어 우리 팀에는 산내중학교 학생이 4명이나 있다고요.ㅠㅠ 부끄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를 마음껏 뽐낸 꿈다락 친구들! 그런데 이상합니다. 최종 공연을 다 마쳤는데도 우린 왜 아직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거죠?

꿈다락 놀이터 I

우리 동네 왜 왔니? 꽃찾으러 왔단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활동을 통해 친구, 이웃, 마을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게릴라 가드닝을 펼쳐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더불어꿈
교육분야	그림책, 미술, 음악, 미디어
교육대상	1기 초등 2, 3 / 2기 초등 4, 5 3기 초등 6 / 4기 초등 1, 2
교육장소	고양시도서관센터(삼송도서관)
교육기간	1기 2016.05.12 - 06.25 2기 2016.07.02 - 07.30 3기 2016.09.03 - 10.15 4기 2016.10.22 - 11.26



꿈다락 놀이터 I

숨빛꼭질. 빛으로 노는 아이들

박물관의 문화자원을 활용, 다양한 빛을 주제로한 체험형 소통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조명박물관
교육분야	역사, 예술, 문학, 과학 등
교육대상	다원 장르
교육장소	초등 3, 4, 5, 6 / 가족
교육장소	조명박물관
교육기간	1기 2016.05.07 - 06.18 2기 2016.06.25 - 07.30
	3기 2016.08.20 - 10.01 4기 2016.10.08 - 11.12



인공의 빛은 만들어진 빛이에요. 햇빛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인공의 빛을 만들었어요. 빛주노초파남보 무지개가 램프 불빛마다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색깔 그림자놀이를 했어요. 손으로 빨간 공룡, 다리로 파란 대문을 만들었어요. 비가 오고 어두워졌지만 숨빛꼭질 친구들은 여전히 빛과 놀 수 있었어요. 인공의 빛은 자연의 빛과 다르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빛이었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실내나 날씨가 나빠도 밝고 예쁜 빛으로 우리 생활을 즐겁고 편리하게 하니까요.



빛과 만나 빛의 친구가 되었어요.

조명박물관 마당에서 자연의 빛을 찾아
보았어요. 제각각의 칼라 빙서를 만들어서
햇빛에 옆 친구 얼굴도 비추어보고 높이
들어보고 서로 섞어보았어요. 색종이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바람 부는 대로
뛰어다녔어요.
"우와! 우와!! 선생님 풀에도, 돌에도,
바닥에도 빛이 있어요." 자연 속에는 이렇게
따사롭고 아름다운 빛이 있었군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항상 빛이 있었어요.
비로소 우리는 빛과 만났어요.
빛과 친구가 되었어요.



빛공해! 빛도 과하면 공해가 되어요.

빛공해로 낮보다 밝은 밤이 되었어요. 어두운 밤 깜깜한
숲 속이 밝은 밤 빛나는 숲 속으로 변해버렸어요.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빛공해가 생겨나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친구들과 밝은 밤 빛나는 숲 속 동식물 이야기로 연극놀이를
했어요. 밝은 빛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도망간 반딧불이,
밤도 낮인줄 알고 울어대는 매미, 선글라스를 써야 하는
부엉이, 별빛을 찾지 못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철새가
되어보았어요. 너무 슬펐어요. 숲 속 동식물도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빛만 사용하고 건강한
빛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옛 선조들의 삶을 밝힌 전통 조명 이야기 옛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친다는 주마등에는 실제로 휘휘
돌아가는 말 그림자가 있었어요. 반사판이 있는 유기 촛대는 분해조립이 가능했는데 엄청 무거웠어요.
불이 나지 말라고 등잔 반침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별집을 끓여서 만든 밀랍 초는 달콤한 향기가
났어요. 옛 조명이 이렇게 기능적이고 문양과 형태에 각기 의미가 담긴 줄은 몰랐어요. 전통 조명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삶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발 밑을 비추는 등, 조족등을 아시나요? 세상의 대부분의 조명은 모두 더 밝게 하는 조명인데,

조족등만이 홀로 어둡게 하는 등이에요. 내 발 밑만 비춰서 남에게 나를 들키지 않게 하고, 360도로
회전해도 조명이 쏟기지 않아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순라꾼이 밤 순찰을
하거나 도둑을 잡을 때 사용했어요. 전쟁터에서 야간 전투를 할 때 군인들이 사용했고요.
왜 그런지 조족등을 직접 만들어보았어요. 조족등으로 순라꾼이 되고 포졸이 되고 도둑이 되어보았어요.
조족등으로 조선시대 직업 체험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마세요.
빛은 사물을 똑바로 보고 있어도
사실과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빛으로 마법 같은 현상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빛의 과학적인 속성 때문이에요.
숨빛꼭질 친구들은 마법 저금통을
만들며 빛의 반사와 굴절을
실험했어요. 착시와 산란과 혼합을
체험했어요. 빛의 다양한 원리와
속성을 탐구하면서 빛의 마법을
알아내었네요.
모두 빛의 마법사가 되었어요.



찾았니? 찾았다. 빛! 빛!! 빛!!!

우리는 지난 6주간 빛을 찾는 술래였어요. 친구들과 빛을 찾는 숨빛꼭질 놀이를 했어요.
꼭꼭 숨어있는 빛을 찾아낼 때마다 그 빛으로 신나게 놀았어요. 빛이 이렇게 가까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줄 몰랐어요. 신기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우리가 찾은 빛을 모둠별로 공연했어요. 우리가 어떤 빛을 찾았고, 어떤 빛을 꿈꾸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는 빛으로 노는 아이들이에요.

여주

꿈다락 놀이터 I

여강을 따라가며 놀자~

여강 100리길 탐방을 통해 마을사람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가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여주사람들	매개자	권광선, 장지원, 박혜진, 조성문 박희진, 김계용, 최진영
교육분야	지역문화, 역사		yeojupeople@gmail.com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중등(멘토) / 고등(멘토) / 가족	문의 이메일	www.facebook.com/toy- oschoolinyeouj/
교육장소	여주지역 자활센터 강당 여주시 일원	단체·기관 홈페이지	
교육기간	1기 2016.05.21 - 07.09 2기 2016.07.16 - 09.10	3기 2016.10.01 - 11.26	



여강을 따라가며 놀자

여주에는 여강을 따라 조성된 둘레길 여강 길이 있습니다. "여강을 따라가며 놀자"라는 주제에 맞게 그 길을 걷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함을 달래고 지역에 살면서도 서로 몰랐던 사람들. 알지 못하는 마을 길을 걸으며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삶

시장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시골마을, 촌이지만 골목골목에 편의점과 작은 규모의 대형마트 까지 지역상권을 장악한 현실 탓에 아이들이 이곳을 찾을 일이 없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말끔한 상품이 아닌 살아 있는 시장과 그 안에서 만나는 어른들과 대화하며 아이들은 세상에 또 한걸음 발길을 내딛습니다.



영릉과 넝릉, 세종대왕과 효종대왕
여주 자체가 문화재,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그 속 역사와 인물의 고장.
하지만 학교에선 배우지 않은 설화와 전설. 이야기를 어른들께 듣고 그곳을 탐방하고 또 거기서 놉니다.
외우고 기억하는 공부가 아닌, 생활을 통한 자연스러운, 어른을 통한 지식의 습득.
아이들은 이게 공부인지도 모르고 젓어듭니다.

엄마 아빠는 이렇게 어른이 됐단다.

여강 곳곳. 시원한 바람과 지천에 널린 놀 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들. 낯설지만 엄마. 아빠들의 얘기를 들으며 풀과 나무로 악기를 만들고 장난감을 만들며 놉니다.
오디와 산딸기. 다래와 머루. 몰랐던 우리 먹거리들까지.



강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여강은 처음이라는 아이들.
백 리가 얼마만큼인지 가늠하지 못하는 턱에 새롭게 만나는 강에 아이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중학생 멘토가 돌봐주고 고등학생 멘토에게 인생을 배웁니다.
어른이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이들은 커갑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뀐 만큼 아이들은
또 이만큼 자랐습니다.

엄마의 "안돼", "위험해" 하는
소리가 없으니 세상은 온통
아이들 차지입니다.

이름 모를 풀과 나무들. 길가에
돌멩이 하나까지 친구가 된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였습니다.

고구마, 땅콩, 쌀... 여주의 특산물입니다. 늘 마트에서 사주는 걸 먹기만 하다.
이렇게 다양한 생태와 환경, 곡식들을 만납니다. 고구마를 심고, 자라는 걸 보고
또 이렇게 한 상자씩 직접 캐서 갑니다. 어마어마한 고구마 농장 규모에 놀라면서.



꿈다락 놀이터 I

철학동화로 세상을 그리다

단체·기관 명 찬미아트창작소

교육분야 동화, 철학

교육대상 1기. 초등 1, 2, 3

2기. 초등 4, 5, 6

교육장소 대안공간 눈 / 봄

교육기간 1기 2016.05.07 - 07.23

2기 2016.08.27 - 11.12

결과보고회 2016.11.23 - 11.30

철학이 거창한 학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는 학문이라는 점을 쉽고 친근한
예술체험을 통해 알아가는 프로그램

매개자

한광섭, 한유진, 조은하

문민정, 초이(최경자)

jylhy11@hanmail.net

blog.naver.com/jylhy11



첫날 와준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이번 수업을 안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위 대신 물로 색색의 한지를 오려서 자신의
이름을 꾸미는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함께 할 친구들의 이름도 익히고 자신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은 1기수의 수업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1~11회차의 수업에 관한 사진을 보며 기억에 남는 대로 글을 적은 아이도 있었고 그림을 그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책의 걸표지 꾸미는 것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아이들 각자의 성격에 따라 독특한 캐릭터를 표제에 그려내어 아이들의 창의력에 다시 한번 놀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카트리나의 기다림이 주제였습니다. 주황색 종이를 매개체로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국의 한 아이가 부모님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창문에 비친 헤드 라잇 불빛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요. 그 아이에게 기다림은 주황색 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묵이란 재료의 기다림과 각자의 기다림을 결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낙관(도장)을 찍어 한 폭의 동양화로 완성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특히 낙관 작업에 아이들이 매우 재미있어 했습니다.



공자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음악을 연주하면 사람들이 너무 흥겨워져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판단일까요? 란 주제로 수업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grandpapa's eleven momth-kuricorder Quartet 2.호두까기 인형행진곡 3.호두까기 인형 갈잎펴리의 춤 4.하차투리안 가야네 모음곡 2번, 5.멘델스존 봄의 노래(벳소리) 6.my favorite things – Tatsuzo Akasaka 음악을 들으며 작업했습니다. 공자의 생각이 옳은지 직접 체험해보고 생각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흥겹게 음악을 즐기며 매우 자유로운 작업했고 행위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과감하게 표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자왈학이시습지(子曰 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야? 배우고 늘 익히면 또 하면 기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대화에서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 "나는 영어, 수학은 과목은 싫고 미술 음악은 과목은 좋다"라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나누고 이를 글로 작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글씨를 위해 A4 연습 용지에 수많은 스케치를 하는 열정을 아이들이 보여 놀라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은 1,2 기수 통합 전시(결과공유회)였습니다. 1, 2 기수 학생, 학부모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작품 및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역시 학부모님과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작품에 관해 학부모님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단한 다과와 함께 즐겁게 2016 꿈다락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Eco Echo 놀고 그리고 만든다!

자연물을 활용한 작품 제작을 통해 자연과 나, 미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설미재미술관	매개자	김영희, 이봉임, 박정옥
교육분야	생태, 환경, 미술	전성빈, 이소래	choo5018@naver.com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 가족	문의 이메일	-
교육장소	설미재미술관	단체·기관 홈페이지	-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7.23 2기 2016.08.13 - 11.26		



오늘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산책을 하다가 눈에 띠는 식물들을 채집합니다. 오늘은 식물들이 나의 그림 솜씨를 거치지 않고, 물감을 식물 전체에 발라 꼭꼭 눌러 찍어 도화지에 모습을 드러내는 판화 체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식물들의 잎맥들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식물들을 도화지, 옷, 가방 등에도 찍어보았습니다. 마치, 옷과 가방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체험학습장 주변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산책에 나섭니다. 천천히 자세히 주변을 보니 자그마한 꽃들, 풀잎들, 곤충들, 돌멩이들, 바람들이 보입니다.



그동안의 결과물을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놀면서 만든 작품들을 전시장에 걸어놓고 보니,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미술관이 나를 불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가면 섭섭해서 으앙하고 올겠지. 하늘하늘 치맛자락 낙엽도 붙이고 후~불면 날아가는 꽃도 붙이고 어느새 나만의 웃이 되었지." (미원초 4학년 김주희)



대나무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내가 만든 대나무와 동생이 만든 대나무가 부딪쳐서 소리를 냅니다. 개나리조 다섯 명이 만든 대나무가 부딪쳐 또 다른 소리를 냅니다. 밤나무조, 민들레조, 도토리조가 만든 대나무 악기가 모두 부딪치며 또 다른 소리를 냅니다.



오늘은 그동안 놀면서 그리고 만든 작품들이 한 권의 포트폴리오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많은데, 그 흔적들을 모아 한 권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으니 웬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신나는 문화예술 놀이+터

놀이, 창작, 토론, 견학, 발표를 통한 참여자
주도형 미술감상으로 현대미술에 대한 폭넓은
사고를 돋는 미술감상교육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재)대유문화재단 영은미술관	매개자	이현주, 송의준, 박근이
교육분야	미술, 감상		박은규, 김민정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 가족 중등 1, 2, 3 / 고등 1, 2, 3	문의 이메일	ymuseum@hanmail.net
교육장소	영은미술관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youngneunmuseum.org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6.18 2기 2016.06.25 - 08.27	3기 2016.09.03 - 11.26 캠프 2016.07.30 - 07.31	



문화예술 놀이+터란 무엇일까? 가족과 함께 체험자 어린이들이 영은미술관을 살피보며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하였습니다. 미술이란 무엇인지, 미술의 표현력은 어디까지인지? 등등 미술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과 경청하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엔 오리엔테이션인 만큼 분위기가 분산될 줄 알았지만 상당히 집중해주시는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네요!!



경험을 통해 미술작품의 작업과정과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우리 영은미술관 뿐만 아니라 여러 미술관을 투어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창의적이고 미적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미술에 흥미가 없던 친구들도 새로운 경험을 접하면서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참여자 아이들이 빨리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강한 열정과 의지가 생긴 점이 가장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재료가 없어도 자연에서 재료를 찾을 수 있다!!!

아이들의 결과물은 상상 그 이상 이었어요. 자연의 재료를 활용한 나무토막으로 동물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뿔을 만드는 등 상상 속 동물을 자연과 어울리게 만들었어요!! 이날은 마침 시원하기도 했지만 상당히 덥기도 했었지요~ 아이들이 서로 물을 나눠 마시는 모습이 마치 협동 학습의 한 장면 같았어요~ 교수자로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협동학습 결과를 자유롭게 표현하자!

우리 친구들이 협동하여 만든 작품을 직접 전시 배치를 해보고 장소에 대한 탐색을 해보고 작품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하여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직접 작가나 미술관 직원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작은 미술관에서 어떻게 센스 있고 개성 있게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배치할 것인지 구상하였어요~ 비록 거대한 미술관은 아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짧게 작가에 대한 경험, 사회인으로서의 경험, 미술관 큐레이터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았습니다.

미술관과 환경에 어울리는 상상의 조형물을 그리고 제작하여 보자!!

어렸을 때부터 도심 속에 자라온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이라는 큰 주제를 제공하여 수업을 진행해 보았어요!! 기존의 미술관 박물관 투어를 하면서 느낀 것을 자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출해 보았지요~ 건물 내부라는 공간에서 수업하기보단 날씨 좋고 공기가 맑은 자연에 뛰놀면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수업환경이라고 생각해보았어요!! 역시나 아이들이 가장 뛰어놀기도 좋았고 놀면서 수업 재료와 주제를 자연에서 탐색하였어요



똘똘 뭉쳐 자유롭게 상상하여 보자!

쌀쌀한 늦가을이 다가왔어요~ 날씨가 쌀쌀한 만큼 따뜻한 기온이 필요했지요~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며 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번 수업만큼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서 협동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제작할지 각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의기투합하거나 양보하는 모습, 미리 그려보는 모습 등 우리 미래의 올바른 사회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보름산 올레
생태탐험대

보름산의 숲과 지역 환경을 탐색하고,
'미술을 통한 생태탐험' 연구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보름산미술관
교육분야	생태, 미술, 글쓰기
교육대상	초등 1, 2, 3, 4 / 가족
교육장소	보름산미술관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6.11 2기 2016.06.18 - 08.20 3기 2016.08.27 - 11.12

매개자
장다운, 전은정, 백진, 민영미
문의 이메일
art@boroomsan.com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boroomsan.com



어떤 씨앗이 가장 멀리 날아갈까? "자꾸 떠들고 장난치는 사람이 오늘 하루 선생님 하기!" 이렇게 잔뜩 겁을 주어도 악발이 5초도 안 가는 극강의 개구쟁이 윤형이가 오늘은 사뭇 진지한 태도로 새로운 씨앗을 창조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씨앗을 구상하라고 하였는데, 윤형이는 아예 용 날개에 씨앗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대륙은 물론이고 천상계도 손쉽게 넘나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형이 말에 의하면 씨앗이 없으면 용이 날 수 없다고 하네요. 아마도 윤형이 씨앗은 용이 죽어야 사는 모양입니다. 용을 거름으로 먹고 자라는 식물은 타이탄 아름 같은 거대한 현화식물일까요? 아, 정말 궁금합니다.



첫 시간은 흙 이름표 만들기

일부러 김포 지역 대표 장난꾸러기들만 뽑은 것처럼 보이는 남자아이들과 장난꾸러기들을 향한 엄포에 뒤례 긴장하여 양전해지는 여자아이들이 꿈다락 첫 시간에 함께하였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첫 시간에는 흙 이름표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조차 인조 잔디로 깔려있으니 요즘 도시 아이들에게 흙은 낯설거나 더러운 물질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흙 만지기를 주저하였습니다. 흙으로 두꺼비집 만들기를 하면서 조금씩 흙에 익숙해지자 아이들이 하나둘 흙의 감촉을 즐깁니다. 흙만큼이나 서먹서먹했던 아이들 사이에 긴장감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제는 여자아이들이 숙녀 아가씨라도 되는 듯 남자아이들이 사뭇 신사도를 발휘하며 여자아이들을 돋기까지 합니다. 종이 위에 물풀로 자기 이름을 쓰고 그 위에 채로 거른 고운 흙을 뿌려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흙 이름표로 나를 소개합니다. "안녕, 나는 토끼를 좋아하는 서울이야."



새싹에는 열씬도 하지 마!

마치 모내기 모판처럼 썩 틔우기 용도의 종이컵에 새싹이 넘치도록 자랐습니다. 이제 종이컵 공간은 새싹들에게 너무 비좁습니다. 이제 올레길 작은 텃밭에 새싹을 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무는 새싹으로 맛있는 걸까요? 보름산 청설모들이 여기저기 널린 도토리를 마다하고 텃밭에 몰래 접근하여 새싹을 훌라당 먹어 버렸습니다. 새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나무판자를 울타리로 사용하여 청설모를 몰아내기로 했습니다. 씨앗이 잘 자라라고 따뜻한 햇볕과 촉촉한 빗물로 울타리를 장식한 친구도 있고, 여우(?) 같은 청설모가 울타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울타리에 무서운 도깨비 얼굴을 넣은 친구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

"에이, 그런 모양이 어디 있어요?" 투덜거리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말해 주었더니 하나둘 기어이 뭔가를 찾아서 들고 왔습니다. 이런 모양은 정말 없다면서 대신 찾아달라고 조르던 효린이는 급기야 구멍 난 도토리에 나뭇가지를 꽂아서 막대사탕 모양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어렵게 만들어 내더니 이제는 민들레도 막대사탕 모양이라며 금방 또 하나를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관찰의 힘을 또 한 번 실감하였습니다.



식물인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보름산에서 살펴본 식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모습을 달리했습니다. 오늘은 생태탐험대가 보름산에 안겨서 식물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가을 색깔로 물든 금의 부산물로 색상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교실 유리창 밖에 친구를 세워두고 친구의 모습을 그린 후에 색상환으로 모아 놓은 낙엽을 물감처럼 유리창 그림에 붙여서 식물인간을 완성했습니다.

비밀 먹이 창고

우리는 겨울에도 먹을 게 많지만 보름산 동물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비밀 먹이 창고를 만들어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먹이 창고의 위치입니다. 여자 팀은 덤불 언덕에, 남자 팀은 아카시나무 밑동에 자리를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도토리 등 열매를 주어서 넣고, 먹이가 굴러가지 않도록 나뭇잎 이불도 깐 다음 돌로 받쳐 놓았습니다. 눈썰미 좋은 아이들은 나무 구멍 안에 도토리를 쏙 끼워 넣기도 하네요.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고 찾으면서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꿈의 조각들을 모으다

미술관 주변 생태를 표현 재료로 하여, 자연 속에서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프로그램



아이들과 뭐하고 놀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장난감과 놀이터, 배움터인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만 해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와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노나, 걱정이 앞서는 어른들에게 손쉽게 아이와 생태놀이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연과 벗 삼아 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체·기관 명	서호미술관	매개자	김의령, 안성환, 이나경, 신용구
교육분야	미술, 생태, 환경	교수자	정재윤, 최승천, 강선구, 이아령
교육대상	초등 2, 3, 4, 5, 6 (지역아동센터)	교수장소	홍성주, 노태호, 박효례
교육장소	서호미술관	문의 이메일	seohoarts@daum.net
교육기간	1기 2016.03.26 - 06.04 2기 2016.06.18 - 08.27 3기 2016.09.03 - 11.19 특강 2016.06.11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seohoart.com



꿈을 노래하다 정크 클래스(정재윤)강사와 함께 힙합의 유래를 알고, 다양한 영상으로 힙합의 변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예술 방식인 그래피티를 함께 공부하며 자신의 소리를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가수가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의 가사와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부끄러워했지만, 적극적인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피티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름을 표현한 모자로 쾌적처럼 꾸미기도 하면서요.



미술관 탐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탐방을 통해 서호미술관에서 배웠던 전시 관람 예절, 작품 감상 방법 등을 다른 미술관에서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미술관이니만큼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보고 느낄 수 있었고, 예술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러기 날다

자연 속에 둘러싸여 있는 서호미술관의 특성에 맞게 자연 속 재료로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깎고 조각하는 과정을 힘들어 했지만 익숙해진 다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풀은 그림자 (특강)

천연염색재를 이용하여 머플러를 염색합니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머플러가 마르는 동안 친구와 서로 얼굴에 크림을 발라주고 한 장 한 장 석고 봉대를 발라 가면을 만듭니다. 염색 머플러와 새하얀 가면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예술작품이 되어 사진촬영을 합니다. 눈 밖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익숙한 친구들은 본인이 예술작품이 된다는 것에 부끄러워했지만 곧 누구보다 멋진 작품이 되어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창작 의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쪽빛 하늘 쪽빛 구름

천연염색 재료를 이용한 머플러, 순수건 염색을 했습니다. 천연재료에 대한 이론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재료를 만져보고 형형색색 색을 내보았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염색 과정에 아이들은 너무 즐거워했고 다음 천연염색 교육을 다시 신청할 정도로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물고기생태체험관 탐방 (양평)

양평군립현대미술관을 관람 후 남은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더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인근에 있는 민물고기생태체험관을 탐방하였습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을 보며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답사가 끝난 후에는 마지막 차시 수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강사 선생님이 직접 그린 그림들과 꿈다락 수료증을 수여하며 간식을 먹는 정겨운 시간도 가졌답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풀짚공예 창작세상

단체·기관 명 풀짚공예박물관

교육분야 풀짚공예

교육대상 초등 4, 5, 6 / 중등 1, 2, 3 / 가족

교육장소 풀짚공예박물관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6.18

2기 2016.07.02 - 09.03

3기 2016.09.24 - 11.26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조상들의 생활문화인 풀짚공예를 매개로 배움, 소통, 관계, 상상, 성취감을 터득하는 프로그램

매개자

문의 이메일

단체·기관 홈페이지

김영진, 김소영, 박세희

pulzip337@nate.com

www.pulzip.com



풀짚 재료들을 만나보자 전시장을 둘러보며 스케치한 부분에 여러 가지 풀짚 재료를 사용해서 콜라주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어 표현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자기소개와 작품 발표를 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비비면 꼬이는 새끼줄!
즐거운 전래놀이,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새끼 꼬아 만든 긴 줄로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높이
잘 뛰는 친구들도 있고, 자꾸
걸려서 한 두 번만에 끝나기도
했었어요. 오늘 줄넘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오빠 언니 동생들과
아주 친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오늘은 가족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의 날이에요.
엄마, 아빠, 동생까지 모두 함께
수업에 참가해서 제기를
만들었어요. 아빠가 제일 열심히
만드셨고, 엄마는 꼼꼼하게
만드셨답니다. 동생은 서툴러서
잘 안된다며 자꾸 물어보며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만든 제기로 학년별, 엄마별,
아빠별 제기차기 시합~!
매우 즐거운 경기였답니다.

씨오쟁이 만들기

옛 운반도구인 씨오쟁이를 만들어봤어요. 씨오쟁이는 씨를 담아 보관하고,
운반할 때 사용했던 도구인데 농부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생활도구라고
합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재밌고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다니~ 야호! 자랑스러워요.



행주대첩 의병이 되어보자

우리나라 역사 중 행주대첩에 대해 알아봤어요. 선생님이 내주시는 질문에 정답을
맞추기도 하고 행주대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행주대첩을 재연하는 역사 게임을
해봤어요. 젖신을 신고 옛날 생활도구인 빠리 위에 둉구미를 이용해 짐을 나르는
게임을 모둠별로 했는데 정만 긴박한 분위기였어요. 빨리빨리 옮겨서 운반해야
이기거든요. 열심히 손발이 척척 맞은 우리 팀이 이겼어요~!!





식물원이 궁금해요

오늘은 신구대학교 식물원으로 현장학습 가는 날! 버스를 타고 식물원에 도착했어요. 식물 전문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다양한 식물들을 보고 만져보기도 했어요. 식물들의 이름도 알게 되고 신기한 사실들도 알게 되었어요. 식물 심어보는 체험도 즐거웠답니다.

10주의 과정을 마치며

10주 동안 우리들이 만든 작품들을 가지고 모둠별로 전시를 기획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예요. 설명을 직접 듣고 작품을 보신 부모님들은 자랑스러워하셨고 우리도 뿌듯했습니다. 10주 동안 재밌고 다양한 체험을 잊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풀질 창작 세상은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 같아요~!



꿈다락 놀이터Ⅱ

옷&꿈을 디자인하다 청소년 패션공방

단체·기관 명 꿈질공방협동조합
교육분야 공예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 가족
중등 1, 2, 3 / 고등 1, 2, 3
교육장소 언니네 공방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7.09
2기 2016.07.16 - 08.13
3기 2016.08.20 - 11.26

자신의 취향을 담은 소품과 옷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수작업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프로그램

매개자 선수연, 조은영, 김숙경
이향선, 조혜정, 김보섭
문의 이메일 sunsoo96@naver.com
단체·기관 홈페이지 -



시크한 청소년들의 어색한 첫 만남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웃음도 많고 호기심도 많던 친구들. 그런데 중, 고생이 되니 낯선 환경, 처음 만난 친구들이 어색하고 힘든가 봐요. 그러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시작하니 돌변하는 친구들! 풍풍 숨겨놓은 끼와 재능, 웃음이 함박꽃처럼 터졌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불러보는
나, 친구들이 불러보는 나
지금의 '나'는 정말 '나' 일까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고,
어린 시절엔 부모님께서 나의
많은 부분을 선택해주셨고,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찍어주신 '청소년 패션 공방'
에서 내 모습으로 '나'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이름도
다시 붙여봅니다. 더 재미난
것은 친구들도 '나'를 다시
불러봅니다.

재봉틀과 함께 꿈을 짓다

재봉틀을 접해보지 않은 어른들은 재봉틀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역시 넘치는 호기심으로 두려움 없이 빨리 배웁니다. 재봉틀을 처음 배운 날, 마음은 별씨 옷을 여러 벌 짓고 있습니다. 천천히 기본을 배워야 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에겐 좀 힘들겠지요. 그 시간을 인내해야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원단을 고르던 친구들

'청소년 패션 공방'에서는 절대로 패키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몇 배는 더 힘들었지만, 원단에서 부자재, 실까지 스스로 고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패키지'처럼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원단을 고르더군요. 또래 문화의 특성도 있었겠지만 '다름'이 유난히 터부시되는 우리 문화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요.

청소년 패션 공방, 나만의 색깔을 찾다!

드디어 자유작품. 조금씩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갑니다. 마음에 들어도 차마 '핑크'를 선택하지 못하던 청소년들이 친구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취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핑크 원피스, 여자친구가 검은색 넥타이를 만들기도 하고, 알록달록 고슴도치 집, 고양이 매트, 엘리스 원단으로 선물할 파우치를 만들고, 어떤 친구는 화려한 원단으로 할머니 선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인사동에서

추억은 사진 한 장으로 남았습니다. 인사동에 자주 놀러 가던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 인사동 거리에 처음 가보았다고 합니다. 인사동 핸드메이드 박람회에서 신기한 작품들을 실컷 구경하고 멋진 사진 한장을 찍었습니다. 다만 친구들은 문화의 거리 인사동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커피숍, 편의점이 즐비한 것이 이상하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꿈에 다가가다! 동대문시장 탐방

동대문종합시장 원단과 부자재 매장을 둘러보면서 친구들은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한 번에 찍기도 힘들었지요.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줍은 복도에 다팍다닥 붙어 있는 매장들. 원단도 종류별로 판매하고, 부자재마다 매장이 따로 있다는 것이 신기했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라 디자이너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한 손에는 작업지시서를 들고, 한쪽 어깨에는 샘플용 원단 보따리를 끌고 다니는 디자이너들을 보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꿈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비밀공작소

'나'만의 공간에서 사소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푸는 과정을 통해 공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참여자만의 비밀기지를 완성하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문화예술 놀다
교육분야	목공, 미술, 미디어
교육대상	초등 3, 4, 5, 6
교육장소	문화예술 놀다 [더놀다]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7.09 2기 2016.07.23 - 10.29 결과전시회 2016.11.12

매개자	홍진호, 박종현, 김성진 최윤아, 이인선, 김보경
문의 이메일	filmfellaz@nolda.net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비밀공작소'. 우리만의 비밀기지를 만들기 전에 연습 삼아 앞산에 올라가 자연의 재료들로 웜집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친구들은 웜집을 짓다 말고, 수백, 수천 마리의 개미가 우글우글 거리는 개미굴에 빠져있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꼭 집짓기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비밀공작소' 프로그램은 친구들이 가끔은 영뚱한 곳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을 존중합니다.



우리만의 비밀기지를 멋지고
튼튼하게 완성하려면, 도구에
대한 충분한 연습과 서로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의자를 직접
만들어보며 망치, 톱 등 다양한
도구들과 여럿 종류의 목재들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며 본격적인
비밀기지 짓기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합니다.



다양한 도구를 다루며 연습하고,
드디어 우리만의 비밀기지 짓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드릴을 들고 있는 건이와 유현이의
집중하는 표정이 비밀기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도구를
잘 다루는 것보다 나만의 기지를
위해 집중하는 표정들이 친구들을
더욱 멋져 보이게 합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지난여름. 뜨거운 무더위에도 '비밀공작소' 프로그램은 전부 야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장소인 [더놀다] 놀이터에는 늘 수영장이 설치되어있답니다. 작업을 하다가 더우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 가끔 수영장 물이 넘쳐 놀이터 바닥이 진흙이 되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로를 만들어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삽이 있으니깐!



'비밀공작소' 프로그램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알아서 도구들을 챙기고 비밀기지 짓기에 몰입하는 친구들. 이제는 도구와 재료를 다루는 데 꽤나 익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밀스러운 공간에 모여 우리끼리 비밀스러운 활동을 했던 시간들이 친구들 마음속 깊숙이 꼭꼭 숨겨둔 채 오래 남아 언제든 꺼내어 볼 수 있는 각자만의 기억들로 간직되길 바랍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호모 크래프트 훼밀리

(Homo Craft Family-동굴벽화 프로젝트)

단체·기관 명	(사)안성공예가회
교육분야	공예, 공공미술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중등 1, 2 / 가족
교육장소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4.30 2기 2016.05.21 - 06.12 3기 2016.06.18 - 07.10 4기 2016.07.16 - 08.07 5기 2016.08.27 - 09.25 6기 2016.10.08 - 10.30 결과공유회 2016.11.12

지역 예술가와 일반 가족이 공동으로 기획,
다양한 공공 미술작품의 제작과정을 공유하고
전시하는 프로그램



1기수. 꽃담;남사당로 198-10 작가와 함께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타이틀이 넘 생경했던지 '일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니 신청은 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프로그램이예요?'라는 문의전화가 시작 전부터 참 많았었고 시작 후에도 역시나 호기심 반, 걱정 가득한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기수 이후 가족들은 그래도 앞 기수 가족들의 설치작품들을 보며 대략 감 잡기라도 했는데 1기수 가족들은 도예작가님과 함께 그야말로 백지상태에서 개척정신을 발휘하여 어찌어찌 시작을 하였고 가족들 스스로 또는 서로 토닥토닥이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안성맞춤랜드 내 곳곳에 가족들의 꿈이 담긴 예쁜 꽃담을 만들어주었습니다.^^



3기수. 슈퍼 둘(Doll) 어릴 적 또는 어른 아이 (?^^)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할 만한 슈퍼 인형을 만들어보자 했더니 참여 가족 모두 대환호성을 터뜨리며 마냥 크게 크게 슈퍼 사이즈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후폭풍이 기다릴지 모르고 말이죠^^; 10평 남짓 공방에서의 작업은 차마 꿈꿀 수도 없는 슈퍼 사이즈 인형들 덕에 아예 전시실 바닥을 내 집 삼아 원단 펼치고 한없이 커다란 본을 떠내긴 하였는데..... 흄..... 막상 바느질로 퀘매고 솜을 넣자니.... 그제야 '아차!' 싶은가 봅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리고 작가님이 준비하신 솜은 턱도 없습니다^^; 그래도 솜 먹고 틈틈해져가는 슈퍼 인형들을 보노라니 가족들 모두 표정이 한없이 밝아지고 마지막 시간 각종 악세사리 부재료로 눈, 코, 입 등 블링블링 치장을 해주고 나니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형들이 탄생했음에 그저 행복 또 행복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집에 데려가고픈 마음이 한가득~ 부모님들은 집도 좁은데 감히 키울 엄두가 안 난다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그 덕분에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주출입구에 다소곳이 자리 잡은 슈퍼 인형들이 방문하는 아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며 쑥쑥~ 자라고 있답니다.^^



2기수. 돌~돌~돌~ 바람 도리 금속공예 작가님과 함께 진행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 하니 참여 가족들 모두 첫 시간 첫 만남이 어색한데다 역시나 낯설기만 한 수업 분위기에 얼음된 것도 잠시!^^; 마치 누군가 뻥! 터치를 해준 것처럼 모두 한 지붕 한 가족 한데 어울려 각 가족들의 꿈을 스케치한 동판을 오리고 두드리고 칠을 하여 돌~돌~돌~ 바람 도리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막상 설치하고 보니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꿈쩍도 않는 우직한 바람 도리가 있어 그 녀석이 슬금슬금 돌기라도 하면 강풍 주의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들 합니다.^^



4기수. 무당별레 발광(發光)하다! 가족들의 꿈과 소원의 메시지를 담은 한지 등을 제작하고자 서로의 이야기를 하나 둘 꺼내고 보니 교통정리가 쉽지 않았으나 이내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좁혀 가족 구성원 저마다 열심히 자신의 할당량을 묵묵히 해내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얇디얇은 한지를 발색하려니 붙이고 또 붙이기를 수차례~ 반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를 둑는 수행자처럼 정말 묵묵히 잘 해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작품 하나하나 벽에 자리 잡고 저마다 발광(發光)하니 득도라도 한 듯 참여 가족의 입가에 함박웃음이 걸렸습니다.^^



5기수. 픽토그램 패밀리가 떴다! 공예 단지라 하기엔 다소 삭막한 주변, 그리고 안내 표지판에 인색한 공방 주변을 미약하나마 바꿔보자는 취지를 더해 시작된 프로젝트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방 화장실이 픽토그램 작품들로 인해 반전이 확실한 공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저희 작가들의 오랜 숙제(?)를 해결해 준 마술과도 같은 작품들이 2016년 가을 어느 날 깐~ 하고 나타났다고나 할까요?^^



6기수. 별☆별 놀이터 여타 기수에 비해 아빠 참여자들의 열정이 유난했던 듯싶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부터 출석은 물론 작품 아이디어만 아이들에게서 나왔지 남은 여성은 오롯이 아빠님들의 몫이 되었고 다행인 건 아주 기꺼이 즐겁게 전 일정을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꼬마 방문객이 암도적으로 많은 공방한 켠 자리한 별☆별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공간 혹은 비밀스런 아지트가 되었답니다!

고양

꿈다락 놀이터Ⅱ

영상으로 보는 우리세상_3색 이야기

단체·기관 명 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교육분야 미디어
교육대상 초등 4, 5, 6
교육장소 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9.04
2기 2016.08.13 - 10.02
3기 2016.10.08 - 11.27

청소년들이 바라본 자신들의 세계를 주제로
영상물을 기획, 촬영 및 편집하여 완성하는
프로그램

매개자 김유훈, 김준호, 황보성진, 오상아
하빛나, 임수진, 임원지, 곽현희
문의 이메일 kyh@artgy.or.kr
단체·기관 홈페이지 <http://www.gymc.or.kr>



끝없이 준비하는 기획회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던가? 회의를 거듭할수록 점점 복잡해져 가는 아이들, 하지만 어느 순간 실제 영화인처럼 영상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머릿속의 이야기들을 풀고 있는 이 순간! 잠깐이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 집중하는 아이들... 대견스럽다!



우리들의 촬영 노하우

캠코더와 삼각대를 강의실에 모두
풀어놓고 직접 다루어보고
실습하고,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고
배우는 우리들의 모습, 구도와
앵글을 멋지게 잡아내는 일은 쉽지
않지만 모두 열심히 집중해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 기획 단계에서
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관심!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더 배우려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들...

야외 촬영

실내에서 지친 우리들 모두가 나와
각자가 맡은 대로 촬영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섭외 장소는
어디로? 소품은 다 챙겼나?
주인공의 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할까? 같은 컷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촬영하는 열정을 보여주는
아이들!



촬영 또 촬영

이젠 실내 촬영에 들어간다.
더운 날씨에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날들에도 우리의 아이들은
더위를 이겨내고 촬영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들만의
영상이 점점 완성해 가고 있다.



우리 쉬고 해요!

아이들이 지쳤다. "우리 좀 쉬고 해요!" 한정된 시간에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 영상 만들기. 모두가
촬영에 지쳐 쉬고 싶다. 하지만 선생님은 "조금만 더 하자 이제 다 됐어" 라고 외치는 선생님의 외침...

꿈다락 놀이터Ⅱ

내가 만드는 예술 장난감, 오! 마이 토이

(무빙토이 오토마타 교실, 플라잉토이 드론 교실)

단체·기관 명	(재)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매개자	윤혜숙, 정경미, 김진주 송용남, 정혜림, 박은우
교육분야	애니메이션, 미디어	문의 이메일	nanuse@snart.or.kr
교육대상	초등 5, 6 / 중등 1, 2, 3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snmedia.or.kr
교육장소	성남문화재단(성남미디어센터)		
교육기간	(무빙토이 오토마타 교실) (플라잉토이 드론 교실) 1기 2016.04.02 - 07.02 1기 2016.04.16 - 06.18 2기 2016.09.03 - 11.26 2기 2016.07.16 - 08.28		



오토마타 캐릭터 만들기 친구들과 스토리를 만든 후 각자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있어요. 관절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캐릭터 인형을 사포와 공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다음 멋지게 색칠하면 끝~ 이제 나만의
오토마타 친구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환상의 애니메이션 세계가 떠납니다.



오토마타 사각 박스 만들기 나만의 장난감, 오토마타의 기계장치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각 박스를 만들어요. 그다음 회전축과 캠을 연결한 후 사각 박스에 고정시켜요. 기계공학에서 '캠'은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꿀 때 주로 쓰이는 전동용 기계요소입니다. 다양한 모양을 가진 캠은 '종동질'에게 영향을 주어 직선 왕복운동, 회전운동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캠' 장치라고 부르지요. 캠의 모양, 축과의 연결되는 위치에 따라 움직임의 속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캠의 개수와 모양, 위치에 변화를 주어 움직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모둠별로 장면을 나누어 각 모둠별로 맙은 장면을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인 KomaKoma를 사용해 촬영하는 시간입니다. 앱을 사용해 움직임을 함께 연습해보고, 회전이나 연속촬영 등 단순한 움직임에도 우와~ 탄성이 나옵니다. 아이패드를 놓고 촬영을 시작하면 잠시 모두 홍분상태. 뛰든지 찍어봅니다. 친구 얼굴의 클로즈업이 단골 메뉴. 홍분을 가라앉히고 장면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움직임을 연습한 후 자신이 만든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들어 촬영 시작!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정성스레 애니메이션 촬영하기.



무대배경 및 디오라마 제작하기 구성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바탕으로 무대를 제작하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세트는 모터를 달아 캐릭터가 움직이도록 제작 중! 바닥을 드릴로 뚫고 서로 돌아가며 공구를 사용하는 남학생들의 모습이 멋지죠! 이 외에도 각종 오브제를 이용하여 3차원의 축소 모형을 만들고,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드로잉을 포함한 디오라마 형식의 무대배경 제작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론 디자인 싱킹 미래 사회 드론의 활용 분야는 어떤 것일까요? 보통 드론을 완구용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미 드론은 군사, 산업, 의료, 예술, 농업 분야 등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만의 아이디어로 드론을 디자인해 볼까요? 미래 사회의 드론의 활용 분야를 참여 청소년들이 직접 키워드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사하고 드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 스스로 정보 검색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드론 기술을 알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의 확장이 되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쿼드콥터 드론 제작 실습 450급 드론 재료 구성을 확인하고 기본 프레임 제작 및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 완구 드론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커다란 드론의 제작도 잘하고 있어요. 450급 드론에서 450의 의미는 드론의 대각선 길이(mm)를 말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210급, 250급 드론의 기체 크기를 분류하는데, DIY 드론에 입문할 때 450급이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부품 비용 때문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죠. 이번 과정에서는 3명이 모둠을 이루어 450급 드론 1개를 직접 제작해보았습니다.



드론 비행 실습 가장 신나는 시간, 바로 드론을 날리는 순간입니다. 드론 비행 연습,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실습을 통해 드론과 한결 가까워졌어요. 특히 몇몇 학생들은 드론 비행에 남다른 소질을 보여주었지요. 드론은 우리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이 날기 때문에 드론 촬영을 통해 우리는 평소 보지 못했던 장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꿈다락 드론 교실을 통해 참여 학생들도 새로운 시각과 시야를 경험했길 기대해봅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토요다큐멘터리 영화학교 '토닥토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환경 혹은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해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매개자	장차현실, 서동일, 장수영
교육분야	미디어, 영화	김현정, 최혜숙	
교육대상	오전. 초등 5, 6/ 가족 오후. 중등 1, 2, 3/ 고등 1, 2/ 가족	문의 이메일	pen336@hanmail.net
교육장소	양평교육지원청 / 두물머리쳐스	단체·기관 홈페이지	-
교육기간	1기 2016.04.02 - 11.12		



저희가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 영화는요... 토요 다큐멘터리영화학교 학생들은 사전에 팀을 이루어 각 팀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정해 참가 신청합니다. 전체 참가 학생들이 처음 만난 날, 서로 무슨 이야기 갖고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자기소개와 함께 우리 팀은 앞으로 9개월 과정 동안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 토해내는 어설픈 생각들이 앞으로 어떻게 무르익어갈지 기대됩니다.



촬영은 카메라 조작기술이 아닌 나만의 시선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 다큐멘터리는 내 주변의 인물과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카메라의 렌즈로 담아내는 나만의 시선입니다. 카메라를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닌 나의 시선을 담는 그릇으로 여기고 카메라의 렌즈가 향하는 방향과 화면에 담긴 크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내가 잡는 카메라의 위치, 방향, 크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찍히는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 영상의 의미가 달라짐을 배우게 됩니다.



편집은 화려한 영상효과가 아닌 이야기의 리듬감과 흐름을 보여주는 것 흔히 편집하면 뾰시시한 영상효과, 화려한 화면전환을 떠올립니다. 많은 편집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편집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편집은 편집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 장면과 뒷 장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 씬의 의미가 다양하게 발생함을 깨닫고 이야기 전개와 메시지 전달에 가장 적합한 리듬감과 흐름을 만드는데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기다림...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반 6개 팀, 중고반 3개 팀이 영화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개미스텔라' 팀이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인간과 대화를 시도하는 개미들을 촬영했습니다. 인물촬영도 어려운데, 덩치 큰 개, 고양이도 아니고 자그마한 개미들의 원하는 행동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더위 땅볕에 모자 하나 뒤집어쓰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어린 초등 감독의 사투가 며칠이나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화제 여름방학 내내 촬영하고 2학기 내내 편집 과정을 거쳐 드디어 총 9개의 작품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려하듯 이번에도 학생들이 직접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 준비 회의를 갖습니다. 4~5차례 준비모임을 통해 일정과 장소, 프로그램을 정하고 관련해서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 등을 제작합니다. 올해는 서로 영화제 사회를 보겠다는 지원자가 많아 5명이 공동사회자로 선정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강변에서의 '제3회 토닥토닥 안마 (안아주고 마음 전하는) 영화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끝나는 시기가 12월이어서 실내공간에서 영화제를 치러왔지만 올해는 일정을 두 달 앞당겨 10월 15일 문호리 리버마켓 야외무대에서 멋진 강변 야경을 배경 삼아 영화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문호리 리버마켓은 약 200여 명 셀러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들을 들고 나와 판매하는 유럽풍의 마켓으로 폐나 유명세를 타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제작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힘든 과정이기도 했지만 이날만큼은 그간의 모든 고뇌와 수고를 위로받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장롱 속 영화제 ⅡⅢ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제작을 통해 일상적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과 경로에서 스스로 관찰하고 사유하며 수행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성장 시키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현대지동슈퍼마켓
교육분야	커뮤니티아트, 미디어아트
교육대상	오전. 초등 3, 4, 5, 6 오후. 초등 4, 5, 6
교육장소	꿈꾸는도서관 / 송골우남도서관
교육기간	1기·2기 2016.04.02 - 11.19

매개자	천원진, 곽동열, 이아람 지형권, 배지협
문의 이메일	larhssflove@hanmail.net
단체·기관 홈페이지	cafe.naver.com/toyohowtolife



시각적 관찰 - 만나기 우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오리엔테이션 수업으로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를 합니다. 수업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설명보다는 몸으로 직접 활동하는 것이 좋겠죠? 일상을 쉽고 빠르게 보는 우리의 습관을 알아보고 앞으로 수업활동을 위하여 바르게 보기, 불편하게 보기, 천천히 보기로 통해 어떻게 나와 친구를 이해하고 지역을 이용하여 신나는 일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합니다.



일상을 나누는 방법1 - 만져보기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슬픔, 짜증, 행복을 어디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의 행복은 함께 즐거워해주고 고민과 짜증은 들어주면서 지역에서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선물을 관찰해봅니다. 초록색은 친구의 마음을 달래주고 단단한 돌은 더욱 용기 있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집한 작은 자연을 친구에게 전달합니다.



나의 동네 사용법2 - 드러내기
 지난 시간에 동네 지도를 그려보며 알아보았던 동네의 공간을 사용하여 내가 또는 우리가 자는 곳, 오락하는 곳, 간식 먹는 곳 등을 리서치하여 박스로 공간을 구현해봅니다. 기존의 동네에 더해진 우리들만의 쉼터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설계해보며 친구들과 놀아봅니다.



나의 동네 사용법1 - 마주보기 내가 사는 동네를 어떻게 사용하면 재미있는 일상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닥을 스케치북 삼아 테이프와 분필로 우리 동네 지도를 그려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발로 쑤셔! 손으로 쑤셔! 수정도 해보며 친구의 집이 어디인지 나의 집이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 걷는 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길, 무서운 길, 바쁠 때 뛰는 길 등을 알아보며 우리만의 놀이 공간을 설계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해봅니다.



특강) 나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1 – 다가가기 김동산 예술가와 함께 동네 이야기와 음악을 이용하여 나와 우리를 스스럼없이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 주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 친한 친구는 어디에 사는지, 인사하며 자주 뵙는 어르신은 누구인지 친구들과 함께 가사를 만들어보거나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며 음악을 만들어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잠만 자는 세상, 시험 없는 세상에 대해 꿈꾸며 영원히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해봅니다.



나의 동네 사용법6 - 드러내기 이번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터를 관찰해봅니다.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 사용법에 맞는 놀이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설치하여 놀이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구현해봅니다. 차가운 철이나 쇠 대신에 빛을 받아 따뜻하게 몸을 지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공간을 만들고 폭신한 의자도 만들어봅니다. 그리고 더위를 먹지 않도록 물을 담아 놓거나 색 테이프로 예쁘게 꾸며보기도 합니다.



장롱 속 영화제 – 촬영하기 미디어 활동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관심사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보기 위해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관찰해온 나와 친구, 지역을 이용하여 미디어로 나의 이야기를 기록해보는 시간입니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 물을 얼마나 쓰는지 알아보기, 벨트 해보기, 불 피워보기, 참견해보기, 20고개, 뮤직비디오 만들기 등 지역의 사소한 공간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을 카메라를 통해 놀이처럼 확장해봅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책이랑 놀아난 애니메이션

도서관의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야기를 친숙하게 느끼고,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해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행복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단	매개자	김영준, 강현영, 최수인, 나정인 홍은지, 조현임, 이정은, 방인선
교육분야	애니메이션		
교육대상	초등 3, 4, 5, 6 / 학부모	문의 이메일	happy_edu11@naver.com
교육장소	교하도서관	단체·기관 홈페이지	artedu.org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7.02 2기 2016.08.27 - 11.26		



엄마반 첫 만남의 자리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대반, 걱정 반으로 만난 엄마들. 재미난 몸풀기 게임을 하고 나니 얼굴표정이 금방 풀어지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소개카드를 만들어 소개도 해주고, 등을 돌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소통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연결점을 찾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반 책 만들기 기획

늘 아이들에게 읽어만 주던
그림책을 엄마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 보고 그림책에 나온
다양한 감정과 고민들을 읽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세상에 대해 새롭게 보는 방식을
고민하고 이런 고민들을 통한
새로운 나만의 그림책을 직접
제작해 보는 첫 단계. 각자의
스토리를 고민해 보고 서로
공유,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반 그림책에 새 생명을 더이상 읽지 않아 책꽂이에서 먼지만 뿐양게 앉은 오래된 책들. 오늘은 이 책들에게
생명을 주는 날. 책을 요리조리 훑어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한컷 한컷 사진을 찍어 움직이는 책을 만들었어요.
우리친구들 손을 거치니 책이 혼자 움직이고, 찢어지고, 캐릭터가 책에서 도망쳐 나오고...그림책이 쫓아다니네요.



아동반 도서관 런닝맨

책 속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 도서관 곳곳을 누비고, 어렵게 찾아낸 책속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우리 친구들. 엄마반과 함께 진행된 이날은 엄마반과 아동반이 서로
경쟁하며 도서관이 들썩들썩하는 신나는 하루를 보냈어요.

용인

꿈다락 놀이터Ⅱ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

백남준의 작품을 통해 미디어 창작워크숍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우리 가족 <시간의 정원> 만들기.
그리고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는 청소년 도슨트
되기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재)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매개자	김선영, 조민화, 문주원, 김보라
교육분야	시각예술, 사운드아트, 퍼포먼스, 예술 감상, 도슨트		박희정, 강신대, 강진안, 임정하 이보영, 최지현, 해미클레멘세비즈
교육대상	14-19세 / 17-19세 8-13세 (초등생 가족)		서민우, 정영돈, 고영래, 정재욱 정효진, 정효영
교육장소	백남준아트센터	문의 이메일	edu@njpcenter.kr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6.18 2기 2016.06.25 - 07.16 3기 2016.07.23 - 09.11	단체·기관 홈페이지	https://njp.ggcf.kr/



1강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 10차시. 작품 제작 및 발표

작품을 제작하고 직접 설치한다. 작품 제목과 설명 등을 작성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설치 후에는 평면부터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대해 조별로 발표한다. 모두 함께 피드백을 나누며 10주간의 과정을 마무리 한다.



1강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 8-9차시. 전시 감상 및 공유

백남준아트센터 1강 <Hello, Mr. Paik: 백남준의 걸음으로>는 백남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의미와 개념을 확장하여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창작 워크숍이다. 지난 7주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각을 확장하고, 백남준 및 백남준의 예술을 재해석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업들을 만나보았다. 8-9차시에서는 조별로 작품 제작 방법을 구상하고, 연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작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한다.



2강 <시간의 정원> 2-3차시. 전시 감상 및 사진·영상 제작·편집

백남준의 <TV 정원>을 집중 감상 후 생각을 나눈 뒤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담긴 영상을 구상한다. 가족별로 구상한 시나리오에 필요한 소품, 의상, 세트, 조명 등을 직접 제작하고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한다. 완성된 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과 새롭게 발견한 가족의 시간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2강 <시간의 정원> 4차시. 시간의 정원 만들기

우리 가족 <시간의 정원>을 만든다. 완성된 영상과 편지, 사지 등을 담아 1년 뒤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꾸민다. 가족 나무를 심고 우리 가족의 타임캡슐을 묻는다.
(2017년 7월 16일에 가족들과 함께 타임캡슐을 열어볼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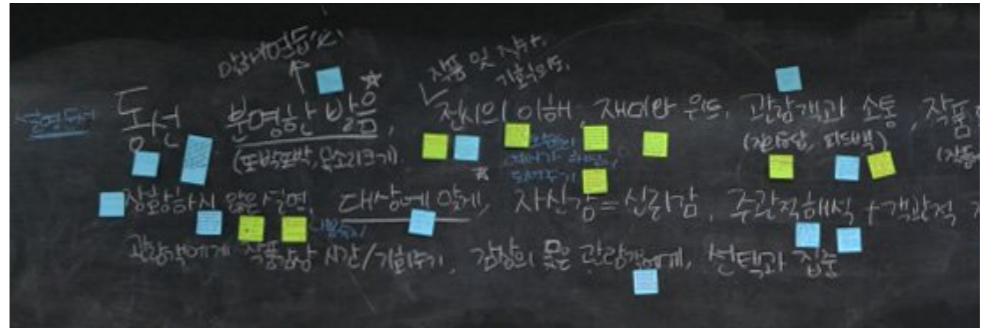


3강 <도전! NJP 도슨트> 3차시. 감각으로 감상하기

언어(텍스트)로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감상했던 2차시 수업과 연계하여 전시와 작품을
다른 시각과 감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간단한 감각·생각 확장 활동
후 조별로 신체 조각을 만들어 이야기를 만들고 발표한다. 신체 조각을 감상한 다른
참여자들은 각 신체 조각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추측해보고, 실제 신체 조각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비교해본다. 상황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같은 이미지가
다르게 읽힐 수 있음을 이해하는 법을 연습한다.

3강 <도전! NJP 도슨트> 5차시. 도슨트의 이해

4회의 각기 다른 전시 투어를 통해 느낀 도슨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도슨트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참가자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눠본다. 스크립트 작성법, 관람객과의 소통,
도슨트로서의 태도 등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도슨트의 역할을 심도 있게 이해한다.



3강 <도전! NJP 도슨트> 수료식. 도슨트 시연 및 수료식

가족, 친구, 지인을 초청하여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슨트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 10차시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친구, 가족들과 함께 소감을 나눈다.



양주

꿈다락 놀이터Ⅱ

도서관 예술교실 "나는 그림책 작가"

단체·기관 명 양주시교육진흥원
(전 양주시립도서관 남면도서관)
교육분야 출판(그림책), 미술
교육대상 초등 2, 3, 4
교육장소 양주시립도서관(남면도서관)
교육기간 2016.03.26 - 10.29

그림책을 매개로 어린이 스스로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매개자 박버들, 이윤민, 정장호
문의 이메일 will.park@korea.kr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libyj.go.kr



가족과 함께 책놀이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하는 책놀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커다란 종이가방
안에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를 담아
입체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책의 모양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책을 엄마,
아빠, 동생이 함께 만들어 더욱
특별했습니다.



몸 열기, 마음 열기 : 연극놀이 수업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극놀이를 통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긴장을 풀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과 표정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서로가 마냥 재미있고
웃기기만 합니다.



그림책 작업하기
30회 수업 중 26회를 우리
친구들은 책의 형태와 구성,
표지와 제목의 역할을 공부하고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려내며
보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수업에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어려운
과정 속에 친구들을 닮은 그림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우산에 담아

우리들의 그림은 이제
스케치북을 넘어, 종이를 넘어
우산 속에 담겼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산에 담겨,
비오는 날 하나씩 천천히
풀어낼 거예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다른 재료에 표현하며
마음속에는 이미 그림책을
완성하고 있었답니다.



여기는 남이섬,
그림책 도서관 구경 왔어요!
그림책 만드는 작업에 지쳐갈
때쯤, 친구들은 남이섬 그림책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국제 일러스트 수상작도 보고
커다란 책, 하늘을 나는 책,
신기한 책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마음
먹기도 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의 놀이터는 그림책
도서관 뿐만 아니라
섬 전체였고요!

그림책 제작을 축하하며 : 작은 전시회 개최

7개월간의 대장정을 우리는 그림책 전시회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작업한 스케치북, 책이
들어가기 위해 편집된 그림들, 그리고 그림책! 그 기나긴 과정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림책 선생님의 깜짝 제안으로, 우리 작가님들의 1:1인터뷰도
진행됐답니다. 처음 연극놀이를 하던 날처럼 서로를 보며 웃음을 뼟출 수가 없었어요.



파주

꿈다락 놀이터Ⅱ

왁자지껄 도서관 '문학 놀이를 품다'

단체·기관 명	파주시 중앙도서관
교육분야	전통놀이, 북아트, 활판인쇄
교육대상	1기 초등 2,3,4 / 2기 초등 4,5,6 3기 청소년 가족 / 4기 청소년 가족
교육장소	파주시 중앙도서관
교육기간	1기 2016.04.09 - 05.29 2기 2016.06.04 - 07.30 3기 2016.08.13 - 09.10 4기 2016.09.24 - 10.22

문화예술을 매개로 참여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매개자	이미정, 도윤희, 백경원, 임성현 김미희, 박진미, 이경란
문의 이메일	jelhaha@korea.kr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pajulib.or.kr/jalib



내가 염색한 손수건은 어떤 색? <쪽빛을 찾아서>라는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눈 후 손수건 염색을 하였어요!
치자, 소목, 쑥 등 천연염료와 매염제를 이용하여 모두들 조물조물 천연염색을 하자 아주 이쁜 색의 손수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훌치기 기법을 이용하여 무늬를 만들어 보았는데 마술 같다며 아이들이 염색하는 재미에 폭 빠졌답니다.



옛날에도 보드게임이 있었대요!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보드게임을 해보았어요. 일단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옛날에 손님이 머무르는 동안의 시간까지 배려하는 조상의 씀씀이를 알아보는 유객주 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온 후엔 장기나 바둑을 배우기 전 어린이들이 익히고 놀았던 고누놀이, <홍길동> 책을 함께 보며 조선시대 벼슬살이 놀이인 숭경도를 했답니다! 수업시간이 지나도 끝난 줄 모르고 아이들도 너무 아쉬워해 다음 수업 전에도 할 수 있도록 놀이판을 두기로 하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책으로 크는 아이들
2기 친구들과 10회 수업이 끝나고 그간의 활동들을 모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직접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것을 보면 뿌듯해 하기도 하고, 활동 사진들을 보며 하하 호호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함께 한 친구들의 가족들 그리고 도서관 친구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활판공방 느림학교

사라진 활판 인쇄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쇄문화와 기록문화를 배우는 시간! 활판인쇄를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공간인 활판공방에서의 첫 시간으로 활판인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활동하게 될 작업실 내부를 둘러 봤습니다. 각자 자기의 이름을 활자 인쇄해 보는 체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수업에 대해 부푼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활판공방 느림학교

활판공방 느림학교 마지막 시간, 그동안의 작품들입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다른 가족들과도 수업을 진행하며 같이 협의하고 서로 도와 주며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모두 함께 모여 책 제목 및 판권지에 들어갈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활판인쇄를 통해 모두의 작품이 들어간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들만의 전통 제본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활판인쇄를 통한 나만의 명함, 벽으로 하는 캘리 그라피 등등 쉽게 경험하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우리동네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 만들기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마을을 기록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기억을 책으로 발간하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평택시립장당도서관
지역탐방, 출판, 인터뷰

교육분야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기간

중등 1, 2 / 고등 1, 2
장당도서관 / 오성도서관
1기 2016.04.02 - 07.23
2기 2016.05.28 - 12.10
출판기념회 2016.12.10

매개자

문의 이메일

단체·기관 홈페이지

이지영, 김해규, 한정은, 김미아
이영남, 배준표, 김미경, 이정숙
김미자, 박미라, 조민지
yfree1229@pyeongtaek.go.kr
www.ptlib.net



1기수(중학생대상) : 우리 마을에서 놀자~ <오성마을발표회> 마을에서 아이들이 경험한 기억과 느낌을 글로 적어보며 친구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또래와의 관계를 맺고 마을이란 공간에 대한 자유로움을 느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억에 대한 기록들을 낭독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들려주는 '오성마을발표회'를 열어 자부심과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낭독공연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 가족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즐겼으며, 낭독공연도 집중해서 감상하며 큰 호응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1기수(중학생대상) : 우리 마을에서 놀자~ <마을 오감 탐방>

평소에 무심히 지나가는 길과 전혀 가보지 못했던 마을길을 찾았습니다. 느리게 걸어보기, 걸으며 나만의 보물찾기, 침묵 걷기, 눈감고 걸어보기, 멈추기 등을 통해 마을을 느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안내하는 마을길을 탐방하기도 하였으며, 길가에 편 풀과 꽃을 만져 보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오늘은 내가 모델이 되어 사진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마을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느끼며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탐방 도중 길을 잃기도 하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 또한 경험이며 친구들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2기수(고등학생대상) : 우리는 마을인물 기록가~ <어르신과 첫 번째 인터뷰>

팀을 나누고 마을의 어르신과 약속 장소에서 만나 옛이야기를 듣듯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어르신 댁 또는 별장, 가게 등 다양하게 진행하여 살아온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기에 좋았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 진행이라 아이들이 약간 긴장은 했지만, 어느덧 익숙해지면서 훈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같은 시간에 만난 이들이, 각자의 다른 시간들을 기억한다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2기수(고등학생대상) : 우리는 마을인물 기록가~ <인터뷰 질문지 만들기>

내가 사는 마을의 역사를 배우고, 구술조사를 하는 의미와 방법을 함께 공유하면서 아이들은 어르신 '인터뷰' 준비를 하였습니다. 구술조사의 기획, 주제와 목적 방법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하여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소한 생활과 환경에 대한 관찰과 생각을 넓혀보며 지금 순간에만 집착하지 않고, 옛날, 그 시절에 대한 역사와 변화의 흐름에도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오성이라는 마을 역사 속에서 인터뷰할 질문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갔습니다.

파주

꿈다락 놀이터Ⅱ

19세기 그림책 소풍. 마음찾기 프로젝트

단체·기관 명	한길책박물관
교육분야	그림책, 스토리텔링, 유물기반학습
교육대상	초등 1, 2, 3 / 가족
	초등 4, 5, 6
교육장소	한길책박물관
교육기간	1기 2016.04.23 - 05.21 4기 2016.08.06 - 09.03 2기 2016.05.28 - 06.25 5기 2016.09.10 - 10.15 3기 2016.07.02 - 07.30 교육전시 워크숍 2016.10.22 / 10.29

책의 미학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가족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매개자	박정언, 이재숙, 최정욱 한인숙, 윤신아
문의 이메일	hangilbm_edu@naver.com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hangilbookmuseum.or.kr

가족, 박물관에서 마음의 길을 찾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답답할 때 박물관을 찾습니다. 영겁의 세월을 이겨낸 유물들을 바라보며 장인의 고집, 콜렉터의 고집, 예술가들의 고집... 그 고집스러움에 흐트러졌던 마음을 추슬러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질 것만 같은 유물들 앞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 7개월 60시간 138명의 기록인 "마음 찾기 프로젝트"는 '치유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치유'가 박물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19세기 유럽의 고서들을 해석해주신 138명의 가족들. 박물관에 오기 전 항상 설렌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분들을 통해 마침내 "마음 찾기 프로젝트"의 길도 완성되었습니다. 가족, 박물관에서 마음의 길을 찾다. BRAVO.



첫 번째 이야기: 박물관 소풍

관찰 일지 속 이야기 지도를 따라 19세기 그림책 세상으로 걸어가 봅니다. 가족들은 처음 만나는 작가와 작품들을 오롯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 아동용 그림책, 거장의 문학작품 속 삽화들을 만나면서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감상과 생각으로 관찰 일지를 채운 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첫날의 소풍을 마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음 열차를 타고

에드워드 리어 (1812–1888, 영국의 아동용 그림책 작가)의 그림은 과장되지만 지루하지 않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도 그림의 주인공들을 열차에 태우며 생각지도 못했던 속마음과 다양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은 달리는 기차를 타는 여행과도 같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리어의 마음 열차를 통해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그리고 알 수 없었던 가족의 마음을 이해해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 : 19세기로 띠우는 편지
 손으로 쓰는 편지는 마음을 담아
 보내는 낭만적인 방법의 하나
 입니다. 19세기 그림책 작가들의
 그림책 한 편을 나의 이야기로
 채워봅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림책 작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경험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19세기 그림책 작가처럼
 편지를 봉인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 마음 찾기
 관찰 일지, 마음 열차, 그림책
 편지 그리고 마음 삽화까지
 프로젝트의 결과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작품입니다. 마지막
 으로 가족들을 위한 전시회를
 스스로 기획하며 서로의 작품을
 살펴봅니다. 각자의 가족의 위한
 철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열차를
 놓아보기도 합니다. 편지와 삽화를
 걸며 이야기를 나누고, 박물관 속
 19세기 그림책 앞에 멈춰 서서
 '나'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즐겨봅니다.

네 번째 이야기 : 숲에서 만나는 나

북 디자이너이자 환경보호운동가였던 윌리어 모리스 (1834-1896)는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신의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가족들은 헤이리의 숲과 건축, 작품들이
 지난 이야기를 헤이리 예술마을 스토리텔러와 함께 걸으며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책을 위한 삽화를 그려봅니다. 150년 전 윌리엄 모리스가 그랬듯이
 자연이라는 틀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 기억하기

7개월 60시간 138명의 이야기를 박물관에 남기는 작은 교육 결과물 전시는
 마음 찾기 프로젝트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려운 19세기 유럽의 고서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은 박물관의 관람객들을
 위한 또 하나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

꿈다락 놀이터Ⅱ

엄마랑 아빠랑 생태놀이터

자연 속 바깥놀이를 통해 생명들과 소통하고, 계절의
순환과 자연의 신비를 온 몸으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판교생태학습원

교육분야 환경, 생태, 미술, 무용, 영상, 음악

교육대상 초등 1, 2, 3 / 가족

교육장소 판교생태학습원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5.14 4기 2016.10.01 - 11.19

2기 2016.06.04 - 07.16 워크숍 2016.07.24 / 11.27

3기 2016.08.06 - 09.24

매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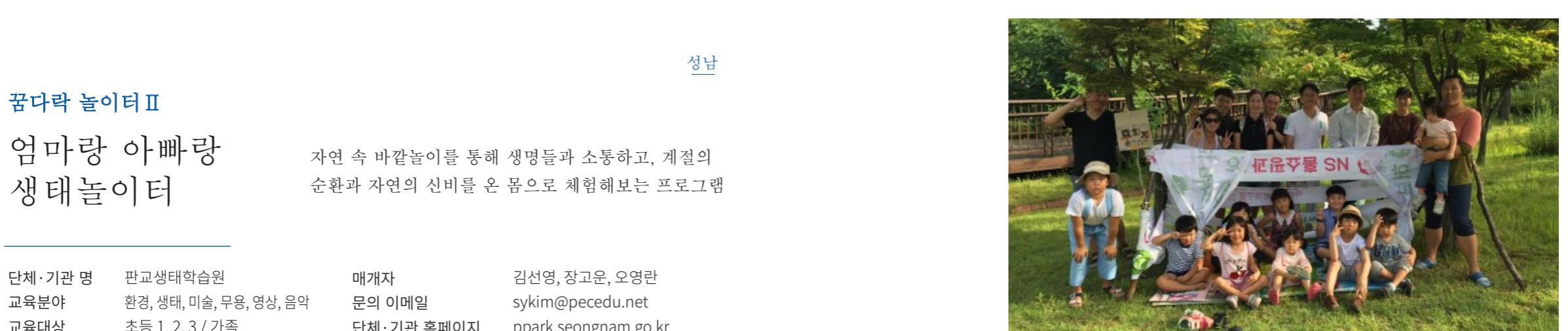
문의 이메일

단체·기관 홈페이지

김선영, 장고운, 오영란

sykim@pecedu.net

ppark.seongnam.go.kr



관계의 시작 - 종이놀이 엄마랑 아빠랑 생태 놀이터가 시작되는 첫날! 엄마 아빠와 함께 판교생태학습원을 방문했습니다. 첫날이라서 선생님, 친구들, 교육실 모두 낯설었습니다. "엄마! 나는 나무처럼 키가 쑥쑥 크고 싶어요. 나무를 많이~ 오리고 붙여서 이름표를 만들고 싶어요." 나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모습을 잡지에서 열심히 찾아 오리고 붙이며 멋진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7주 동안 함께 하는 친구들에게 큰 목소리로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모두 모두 사이좋게 지내요~"

인간의 조건 - 숲 속 아지트 놀이

날씨가 화창한 토요일 오후, 꼭꼭 숨겨진 미션 재료를 찾아 엄마 아빠와 함께 보물지도를 들고 화랑공원을 산책합니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 아지트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물지도를 보며 숲에서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찾고, 가족 모두 한마음 되어 설계하고 뚝딱뚝딱 공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리 가족만의 아지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집마다 완성된 아지트를 구경하며 집들이 사진도 한 컷 찍어봅니다.



빛과 그림자 영화 - 그림자 몸놀이

태양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림자 잡기 게임을 하며 화랑공원을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림자 공연을 위해 글을 쓰고, 목소리도 녹음하고, 직접 소품도 만들었습니다. 두동~ 스페커를 통한 나의 목소리가 평소와 많이 달라서 낯설기도 하고 적응이 되지 않아 웃기기도 했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멋진 그림자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공연을 봐 주시고 많은 박수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놀이 오늘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놀이가 진행됩니다. 날씨가 더워서 물 한잔 마시고 활동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화랑공원에서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물총 놀이에 필요한 장난감도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여러 종류의 그릇에 옮기고 제일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한 가족이 이기게 되는 게임에서는 동생 때문에 게임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매와 씨앗 – 공놀이 열매와 씨앗으로 공을 만든다고요? 친구들은 들어보거나 직접 본 경험이 있나요? 면 파이프 매듭을 만들어 사이사이에 열매와 씨앗을 꽂아주면 완성~!
면 파이프 매듭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해서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솔방울이나 과실같이 큰 열매부터 작은 열매까지 모아서 공을 만듭니다. 완성된 공에 물감을 묻혀 주어진 천에 굴리고 굴리고~ 천을 펼려이며 공을 풍겨서 주고받기도 하고~ 누가누가 더 높이 공을 떠올까? 우리 가족이 만든 공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하늘땅별땅 생태미술교실

마주하는 대상과 눈높이를 맞추었을 때 눈에 보이는 자연과 현상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느끼고,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 생태미술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문화예술놀이터 우리	매개자	양재석, 장순천, 김춘화
교육분야	생태 미술	박민희, 박희라, 우미희	potter21kr@hanmail.net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 가족	문의 이메일	-
교육장소	죽산작은도서관 / 일죽도서관	단체·기관 홈페이지	-
교육기간	죽산작은도서관 일죽도서관 1기 2016.04.02 - 07.23 2기 2016.08.06 - 11.26	일죽도서관 1기 2016.04.02 - 07.23 2기 2016.08.06 - 11.26	-



맛놀이-진달래화전 공원과 산에서 진달래, 벚꽃, 개나리 등 봄꽃의 향기와 색을 관찰하고 엄마, 이모들과 함께 진달래 화전으로 봄의 맛을 즐깁니다. 봄이 되면 항상 생각날 듯한 맛. 우리 아이들에게 봄은 진달래 화전으로 엄마, 친구들과 함께 한 맛있는 추억으로 기억될듯합니다.



자연물놀이-꽃반지

봄은 마냥 실내에만 있기에는
참 아까운 계절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주변 공원에서 민들레와
봄꽃들로 꽃반지, 팔찌도 만들어
자랑도 하고 엄마에게도 꽃반지
끼워주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꽃반지로 엄마와
아이들이 추억을 공유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봅니다.



자연물놀이-숨은그림찾기

작은 조약돌 하나에도 많은
표정들이 숨어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른
모양이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숨은 그림을 찾아낼 때마다
아이들의 관찰력과 표현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물놀이-천연염색

집에서는 먹는 것으로 장난친다며 야단맞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마음 놓고 먹는 것으로 재미있게 놉니다. 블루베리, 비트 같은 색이
진한 파일과 채소로 그림 그리고 낙서하며 놀기. 동그란 블루베리는
살짝 즙을 내서 살살 훑어기만 해도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네요.
사실 입으로 들어간 블루베리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는...



나무놀이-목공예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이죠.
가족과 함께 영수중합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포질하고 자르고
못질하며 완성해갑니다. 망치를 든 딸을 위해 못을 잡아주는 아빠. 아빠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며 아빠의 존재감과
가족 간의 사랑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물놀이-천연염색

가을꽃인 국화꽃으로
천연염색을 했습니다.
국화의 노란색과 향을 즐기며
하얀 스카프가 노랗게 물드는
과정을 관찰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색된 천을 가을바람에
말리는 '바람 치기'를 하며
가을바람을 느껴보았습니다.

현장학습-문어 스토리텔링

강원도 양양군의 남해어촌체험마을의 체험시간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항상 즐겁죠.
더군다나 평소 접하기 어려운 바다 풍경과 살아있는 문어를 보니 더 신나고
흥미롭습니다. 문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있는 문어를 직접 만져보는
즐거워합니다. 곧 저 문어는 펄펄 끓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들 손에 의해
문어꼬지와 문어밥으로 변할 일 생이지만 한 몸 바쳐서 아이들에게 소중하고
맛있는 추억을 마련해줍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찰칵! 우리는 자연예술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박물관 주변의 자연 요소인
'산, 강, 햇살, 바람, 하늘' 등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대자미술 및
사진 촬영 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분야 사진, 공동체미술, 생태미술

교육대상 초등 저학년 동반 가족·초등 고학년

교육장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실

교육기간 1기 초등 저학년 2016.04.09 - 05.28

1기 초등 고학년 2016.06.04 - 07.16

2기 초등 저학년 2016.08.13 - 09.24

2기 초등 고학년 2016.10.01 - 01.12

매개자

김영미, 김지나, 오성민, 진현주

이지은, 이슬아, 최지연, 유지웅

유소미, 장민지, 정규영, 남승희

문의 이메일

ddosi@ggcf.or.kr

단체·기관 홈페이지

gcm.ggcf.kr



자연 이야기의 시작. '찾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모습을 이야기로 묘사하며 날씨와 각 계절의 모양을 흑백
계절은 어디에서 왔을까? 오솔길 공동체 작품으로 완성하였어요! 첫 시간에 우리는 하얀 바탕에 흑백으로 모양을
그리고 오려서 붙여 만들었어요. 앞으로 7주 동안 조금씩 우리 가족만의 사계절의 색을 채워갈 거예요!



몸짓계절도감. '표현하다'
 몸으로 그리는
 봄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의 소리'를 듣고
 몸짓 표현을 하며 자유롭게
 몸을 훈 뒤, 몸의 라인을 이용해
 광목천 위에 그리고 붙이며
 각 계절의 모습을 표현해
 보았어요! 팔을 쭉 쭉 뻗어
 나무를 만들고, 엎구리와
 다리는 산이 되었어요!



계절을 함께 나누다. '나누다'
 계절이 주는 고마움!
 계절에 생기는 불편함?
 가족이 느끼는 계절의
 고마움을 표현해 보고, 계절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신기한 발명품'을 창작했어요!
 저는 더위를 막아주는 예쁜
 모자를 만들었어요! 엄마는
 봄 철 꽃가루를 막아주는
 멋진 모빌을 완성!

계절 채집. '창조하다' 김윤정 작가와 함께 하는 계절 채집

가족이 느끼는 계절의 고마움을 표현해 보고, 계절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신기한 발명품'을 창작했어요! 저는 더위를 막아주는 예쁜 모자를 만들었어요! 엄마는 봄 철 꽃가루를 막아주는 멋진 모빌을 완성!



찰칵찰칵 찍어보는 나만의 계절 '창조하다'

작가 선생님께 사진의 원리를 배워보고 '인공광', '보조광'을 이용하여 계절 상징물 촬영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촬영 둠'제작, 인공조명을 사용하여 봄&여름 상징물, 가을&겨울 상징물 촬영하기!
 우리 꽤 진지해 보이죠!?





자연 터칭 아트피크닉. '표현하다'
 선, 면, 컬러, 질감, 패턴, 명암,
 전체와 부분, 주제와 배경,
 상징과 은유를 통한 계절을
 친구들과 함께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2016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 전시!

일 년간 초등 저학년 가족동반 프로그램인 '가족과 함께 하는 자연이야기',
 초등고학년 프로그램인 '신기한 카메라 교실-자연이야기' 프로그램 결과 작품들을
 전시하였어요! 참여 교육생 어린이들이 직접 쓴 글자와 멋진 영상작품까지!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다."라고 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꿈다락 친구들의 사계절
 을 듬뿍 품은 다양한 작품은 1층 기획전시실 앞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Eco in Art. 문화예술로 태어난 자연생태

단체·기관 명 환경보전교육센터
 교육분야 생태, 미술, 놀이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소외계층 / 가족
 교육장소 옥구공원

매개자 문의 이메일
 단체·기관 홈페이지
 이선표, 윤라성, 이은실, 김희영, 원은주
 김경윤, 양숙, 김선미, 이연이, 김해숙
 이금선, 고주희, 정선희, 이은정, 한지윤
 김미연, 정미자, 박춘원, 김지연
 kecia21@hanmail.net
 www.epec.or.kr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4.23	6기 2016.07.23 - 08.13
	2기 2016.04.30 - 05.21	7기 2016.09.03 - 10.08
	3기 2016.05.01 - 05.22	8기 2016.09.04 - 10.09
	4기 2016.05.28 - 06.18	9기 2016.10.15 - 11.12
	5기 2016.06.25 - 07.16	결과전시회 2016.11.26



숲~숲~숲대문을 열어라~ 숲 숲 숲대문을 열어라~숲 숲 숲대문을 열어라~ 추운 겨울 지나면 봄이 온단다~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고, 봄이 오면서 변하는 숲의 모습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서 숲 속의 생물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모습을 놀이를 통하여 체험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첫 기수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을 서로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있는 가족 닉네임을 정하고,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족을 소개할 수 있는 그림이나 글씨를 꾸미면서 서로의 가족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보다 엄마·아빠가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는데~



나뭇잎의 얼굴

여름이 찾아오며 다양한 나뭇잎이 무성해졌습니다.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나뭇잎을 관찰하고, 그동안 우리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던 나뭇잎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늘 거울을 이용하여 나뭇잎을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나뭇잎의 얼굴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하여 나무도 살아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자연 속의 먹거리, 쑥떡과 국화차

자연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평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인스턴트 간식을 즐겨 먹었던 아이들에게는 더 생소하고 신기한 것들입니다. 쑥과 국화를 이용하여 예전부터 우리가 즐겨먹었던 쑥떡과 국화차를 마시며 자연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떡은 먹지도 않던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을 소풍, 포트락파티

가을이 되어 가을 소풍을 나왔습니다. 자연물을 이용하여 맛있는 가을 소풍 도시락을 만들어보고, 동물친구에게 초대장도 적었지요. 이렇게 소풍이 끝나면 섭섭하겠죠? 서로 쟁겨온 가을 소풍 도시락도 나누어 먹으며 포트락파티를 즐겼답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가을

가을이 찾아온 공원은 알록달록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달라진 바람소리, 공기
냄새, 나뭇잎의 색깔을 오감을
이용하여 느껴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고, 낙엽을
밟으며 소리를 들으며 가을이
준 선물을 받았지요.

알록달록 자연의 색을 찾아서~

자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쁜 색들이 존재합니다. 자연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색을 찾아서 알록달록 나만의 손수건을 꾸며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꿈다락 친구들의 다양한 성격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손수건이 만들어졌네요.



하남

꿈다락 놀이터Ⅱ

하남문화예술회관 각양각색 예술 짐령기!

단체·기관 명 (재)하남문화재단
교육분야 지역탐방, 여행, 미술, 연극
교육대상 초등 1, 2, 3 / 중등 1, 2, 3
가족 (2인 이상 구성)
교육장소 하남문화재단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6.18
2기 2016.07.30 - 09.25
3기 2016.10.15 - 11.19

매개자 박형근, 김윤주, 박혜민, 권석린
홍운경, 신현일, 김푸름, 임영이
박슬기, 이예지
문의 이메일 rladbswn@hnart.or.kr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hnart.or.kr



하남 청소년 스토리극장

<하남 청소년 스토리극장>은 중학생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부터 하남의 지역공간까지
탐색해보고, 그 공간의 생활패턴을 움직임으로 표현해보는 특별한 드라마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엔 민감한
나이의 아이들과 함께하는거라 이 친구들이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요. 하지만 친구들은 자신의
생활패턴을 집중있게 관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사는 세상을 함께보고 웃기도 하고,
공감도 해보았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에 아이들의 상상력이 채워지다

봄이 슬금슬금 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노란색 모자를 쓰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박물관에 가서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 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북적북적한 시장에서 시식용 뻥튀기 과자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친구와 함께 나눠 먹기도 하였지요. <구석구석 우리 마을 하남>은 초등학교 1~3학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마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마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하남이와 함께하는 타임머신 가족여행단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10월, 날씨는 점점 추워졌지만, 화목한 가족들과 함께했기에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남이와 함께하는 타임머신 가족여행단>은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들과 하남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극을 통해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까워진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하남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타지역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감대와 추억을 만들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며 서로로서 박수와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우리의 과정을 담다 - 각양각색 하남이야기

1~3기 그간의 소중한 작업들을 모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헤어짐이라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수업을 마무리했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전시회를 가짐으로 다시 한번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아이들이 부쩍 자란 모습도 볼 수 있던 시간이었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 이외에도 하남의 시민들에게 수업의 과정을 전시로서 공유하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는 수업을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요. 무려 493명의 시민들이 전시회를 관람해주셨다는 !!

양평

꿈다락 놀이터Ⅱ

산중마을 심쿵호랭이와 볼매산적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 조성된 산적마을
산중옛길의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과거 조상들의 삶을 창의적으로 상상하여
재구성하는 지역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딴꿈양식장
교육분야	지역 스토리텔링, 탐방, 미술
교육대상	초등 3, 4, 5, 6 / 학부모
교육장소	강상다목적복지회관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7.30 2기 2016.08.13 - 08.21 3기 2016.09.03 - 11.26 결과발표회 2016.12.03

매개자	박미정, 조은영, 이정훈, 박미라 이진영, 박선옥, 김차영
문의 이메일	knack77@naver.com

단체·기관 홈페이지



산적 움막 만들기 옛날 산적들이 살던 움막을 만들어 볼까요? 볼수록 매력적인 볼매산적의 움막도 역시 매력적이 었을 거예요. 산속 움막이라도 매력적으로 꾸며봤어요. 산적움막에는 알리고 싶은 심쿵호랭이와 볼매산적의 이야기를 그려서 후손에게 전달하는 의미도 담았어요.



산적 달팽이논 모심기 양평군 강상면 산중옛길에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측되어 지는 달팽이논의 흔적과 고인돌, 금동여래입상 등 문화적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유적들에 얹힌 이야기는 확실히 전해내려 오는 바가 없다고 해요. 고구려의 유민이 어떻게 어떻게 산중에 숨어들어 달팽이 논을 만들었다고도 하고, 깊은 산의 호랑이는 마을에 내려와 장난질을 쳤다고도 하고, 그래서 일곱고을 사람들을 무섭게 했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구려 산적들의 후손이 아닐까요? 지금도 남아있는 산적 달팽이논에서 벼를 심고 있어요. 한번 쑥 보기만 했는데 척척 잘하고 있지요? 당연하지요. 우리는 고구려 산적들의 후손, 볼매 산적이니까요!



산적마을 지도 만들기 우리 산적마을을 상상해 볼까요? 여기에 달팽이논이 있고 저 쪽에 메기폭포가 있고요, 아마 예전엔 돼지나 닭을 키우는 동물우리도 있었을 거예요. 마을의 일을 상의 하는 마을 회관도 있었을 거구요. 틀림 없이 병원도 있었겠지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썼을까요? 우리 동네에 꽤 오래된 나무는 장난질하는 호랑이를 본 적이 있을까요?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할머니의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요? 상상해보니 산적마을에 없는 게 없네요. 산적마을 지도 속에는 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다랭이논 벼베기

볼매 산적들이 지난봄에 다랭이
논에 심은 벼가 쑥쑥 자라
벼베기를 하러 왔어요. 낫으로
벼를 쑥쑥 잘라서 텔곡기에
넣고 텔탈탈 벼를 털어내요.
우리 볼매 산적들은 이렇게
다랭이논에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고 산짐승을 잡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참, 볼매산적은 도적질을
하지 않았대요. 착한 의적이었
는데 산적으로 오해 받는게
늘 억울했대요.



산적들의 산중마을 만들기

조형 콜라주 작업을 시작으로 부조
콜라주로 퍼즐도 만들었어요.
검은면을 채우며 나뭇조각을
하나 하나 붙이고 조각조각 맞춰
보니 근사한 간판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심쿵친구들은 쉬지 않고
흰조로 들어갔어요. 나뭇조각(점)
으로 선을 만들고 선을 이어 면을
만들었어요. 면을 입체로 만드는
건 우리 심쿵친구들에게 아주
쉬운 일이었나봐요. 산적집도
만들고 마을에 있는 나무도
등..나무만을 이용해서 너무도
신나게 만들었어요.

중앙박물관 견학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우리 마을의 유물 금동여래입상을 만나고 왔어요. 복작복작
긴 여정이였지만 말로 듣고 사진으로만 보던 우리 마을에서 출토된 국보를
중앙박물관에서 직접 보니 뿌듯하고 겸허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구려 시대의 누가
왜 이 금동불상을 만들었을까요? 산적이 만들었을까요? 마을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혹시 호랑이가 만든 건 아닐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심쿵호랭이는 쌀밥을 좋아해

옛날옛날 양자산에 살던 호랑이는 자꾸 마을에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을 무섭게 했다네. 그건
바로 고기를 싫어하는 채식호랑이라서 그랬던 것이지. 호랑이는 쌀밥을 가장 좋아했다네.
산적을 잡아오면 쌀밥을 주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산적을 잡으러 간 호랑이와, 호랑이
이빨로 화살을 만들어 고구려를 되찾겠다는 산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나? 불멸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오래 재미있을 수 있다네.



파주

꿈다락 놀이터Ⅱ

모여라! 미술관 놀이터

음악을 주제로 한 미술관 작품을 장르 교차적으로 해석, 다양한 예술창작자 및 참여자들이 연극으로 완성해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블루메미술관
교육분야 미술, 음악, 연극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중등 1, 2, 3 / 고등 1, 2, 3
교육장소 블루메미술관
교육기간 1기 2016.04.02 - 11.26
 2기 2016.04.09 - 11.26

매개자 김소영, 김은영, 박진희, 백순실
 김미란, 김수진, 오태하, 문희진
 고윤후, 강미사, 황선영, 양승우
 이희남, 권주하, 문희주, 이현경
문의 이메일 syk@bmoca.or.kr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bmoca.or.kr



무대제작소 견학하기 무대배경과 소품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중고등부 아이들과 무대 제작소에 견학을 갔습니다. 사람보다 큰 아이언맨이 아이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다양한 소품들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무대디렉터라는 직업과 소품 제작과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장르에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음악

아이들은 베토벤의 음악을 들은 느낌을 몸으로 표현해서 한 편의 연극을 만들었었는데, 회화 작품으로 표현한 작가님도 있어요.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지 맞추어보는 게임을 진행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답니다. "이 곡에서는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 작가님이 바이올린 모양을 표현한 왼쪽 그림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지요? 게임이 끝난 후에는 작가님처럼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베토벤의 삶 이해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

베토벤이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지,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곡을 작곡했는지 알아보고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다양한 의상과 소품을 착용하고 베토벤이 살았던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났어요.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내며 즐겁게 연기한 아이들~ 이날 만든 영상은 결과공연 날 상영되었고 많은 관람객들은 쉽고 재미있게 베토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몸으로 장면 만들기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나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몸으로 표현해봤어요. 말 없이 몸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나도 모르게 힌트를 말하게 되기도 하고, 표정 연기가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후엔 각자의 이미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해서 역할도 정하고, 동작과 대사도 추가했어요.
"연주자가 연주를 시작하면 춤추는 사람이 왼쪽에서 등장하면 되겠다.", "떠오르는 햇님을 할 사람이 없네.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의 첫 연극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디션 참여하고 배역 정하기

중고등부는 함께 주제를 정해서 뮤직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오늘은 대망의 오디션 날!
각자 맡고 싶은 배역을 정하고 대사를 암기해서 선생님 앞에서 연기를 해봅니다. 살짝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혼신의 연기를 하는 친구의 모습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감탄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답니다. 오디션 결과를 토대로 배역이 정해진 후에는 함께 대본을 읽으며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미술관 놀이터에서 만난 베토벤

오늘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이들의 결과공연과, 비장애인/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인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의 연주가 어우러진 스토리텔링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에요. 초등부 아이들은 그동안 연습한 연극을 관객들 앞에서 선보였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배경음악으로 베토벤의 곡을 사용한 뮤직드라마를 상영했어요. 관객들은 다양한 예술장르를 통해 베토벤의 삶과 음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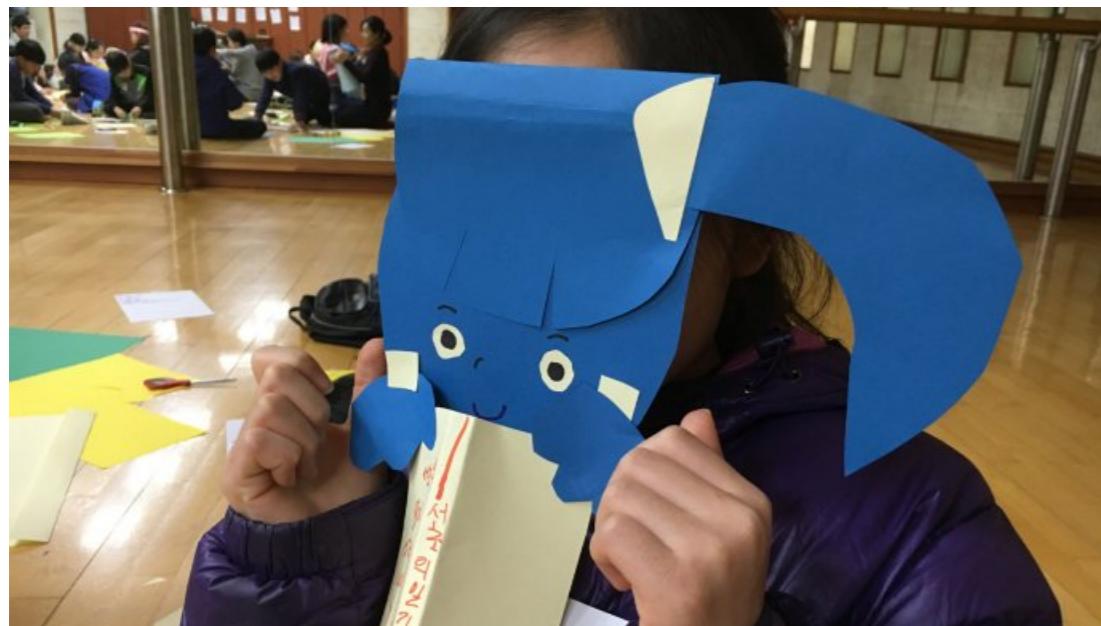
꿈다락 놀이터Ⅱ

"내가 되고 싶은 나" 프로젝트

무용과 미술을 결합한 즐거운 놀이 수업을
통해 "나"에 대해 알아가는 체험형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교육분야 미술, 무용
교육대상 초등 4, 5, 6
교육장소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교육기간 1기 2016.04.02 - 11.27

매개자 김억태, 임성희, 이화연, 임효연
전보람, 김현민, 김유진
문의 이메일 kot1364@hanmail.net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uac.or.kr



Guess who I am 낯설고 서먹한 공기가 교실에 가득 찬 첫 번째 눈도장. 부끄러움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가면(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꼼지락꼼지락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나'를 완성한 뒤 친구들을 만날 준비완료! 돌처럼 굳어버린 몸, 비비꼬이는 몸, 방방뛰는 몸을 진정시키고 꼬무락꼬무락 몸을 움직여 다양한 인사법을 만들고 친구들과 신체접촉과 감정접촉을 통해 경계를 허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존재를 최대한 활용한 자발적인 성취감+10



기-승-전-身 서로 생각공유의 끈을 연결하여 단어·속담·이야기를 온몸으로 표현하기! 소극적인 '나'의 움직임들이 놀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다른 표현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되어 끊임없는 질문과 창의적인 대답을 통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표현을 전달하고, 또 그 표현을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배우고 '나+너=우리'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빛 속의 나 그리고 또 다른 나 빛, 그림자로 나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보이는 면, 보이지 않는 면, 또 왜곡되어서 보이는 면들을 발견!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나'의 이야기들로 작품에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 '나'의 이야기를 만났을 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손이 꼼지락꼼지락 몸이 꼬무락꼬무락 움직여졌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호기심이 넘치는 '나', 늘 가려져 있던 '나'의 그림자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꿈, 한바탕 펼치기 내가 생각하는 꿈은 ○○○이다!

천을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꿀이라는 연결고리를 '나'만의 형태로 끊어지지 않는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동그라미 조각에 '나'의 꿈을 적어 서로 다른 꿈들을 수집했습니다. 꿈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까? 나는 꿈이 없어서 불행할까? 꿈이 비워진 천의 공간을 '나'라는 이야기 옷을 입혀보았습니다. 때로는 즉흥적으로 시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고의 연결고리를 찾아 작품에 '나'를 담아 드로잉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동작+동작=움직임, 장면+장면=작품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일반적인 움직임 패턴에서 벗어나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꼭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동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친구들에게 제시하고 어떤 위치, 어떤 형태, 어떤 행위를 실행할 것인지 서로 고민과 실행, 수정을 반복하며 창작활동을 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듯이 생각을 제스처로 제스처를 움직임으로 움직움직.



사각사각 움직이는 무대 어디 한번 무대 좀 만들어 볼까?

일정한 크기의 종이박스를 이용해 '나'가 생각하는 꿈을 공간에 펼쳐보았습니다. '무대는 평면이야!', '무대는 네모모양이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꿈' 무대의 구조를 아이들의 다채로운 시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완성된 구조물에 위치와 순서를 정해서 공간의 변화를 체험하고 체계적인 변형을 통해 공연의 형식을 익혔습니다. 움직여라 무대야~ 공간 변화에 따라서 일상적인 움직임과 제스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무대 위 주인공!!



내가 되고 싶은 나 MY DREAM BOX 꿈지락꿈지락~ 꼬무락꼬무락~ 우리들은 지난 10개월의 치열한 창작활동을 통해 또래집단의 예술적 실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토요일마다 창작이라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하고, 정답이라는 틀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엄청난 고뇌들이 '나의 꿈'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장르 간의 치열한 교감을 통해 하나의 주제가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표출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술가!!

꿈다락 놀이터Ⅱ

개울따라 실따라

단체·기관 명	(재)오산문화재단
교육분야	민속, 전통, 체험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 가족
교육장소	전통문화창작체험관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5.28 2기 2016.06.04 - 07.30 3기 2016.08.06 - 09.24 4기 2016.10.01 - 11.26

오산천의 자연 생태 관찰 활동과 연계한 전통공예 체험활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오산



우리들은 오리가족?

오산천에 등등 오리가족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들의 손을 통해 새로운 새 가족들이 만들어졌어요. 통통 튀는 아이들의 표정만큼이나 작품들도 다양합니다.



직접심은 박모종 처음 만나본 박씨앗을 짹을 틔어 모종으로 키우고 박터널에 심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여름내내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주렁주렁, 조롱조롱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실뜨기

처음 만져보는 매듭실로 다양한 매듭법도 배우고 친구들과 실뜨기도 해보았어요. 풍요로운 장난감이나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준 높은 실뜨기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젓가락, 소눈알... 실뜨기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모양에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직접 반죽한 한지죽으로
만든 액자
밀가루 반죽처럼 조물조물
주물주물 한지죽 액자를
만들었어요. 여름내내 말려둔
들꽃, 들풀, 나뭇잎을 붙여서
멋진 작품으로 완성했어요.

집중! 바느질!!

마냥 어려워만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바느질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사진 작가님도 아이들 얼굴 찍기 어렵다고 몇 번이나 말씀할 정도로 집중했어요.



꿈다락 놀이터Ⅱ

소(小)소(小)한 이야기 <콩덕콩덕, 찧고 뽕고>

단체·기관 명 유진민속박물관
교육분야 민속, 체험
교육대상 초등 2, 3, 4
교육장소 유진민속박물관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5.21
 2기 2016.05.28 - 07.09
 3기 2016.07.16 - 08.27
 4기 2016.10.08 - 11.26

전시유물과 연계된 체험활동을 통해
생활의 편리에 따른 도구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세시풍속과 생활 속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프로그램

매개자 이순자, 박효순, 장미옥
 김지영, 유선영, 김지영
문의 이메일 yujinmu@naver.com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yujinnfm.com



갈돌갈판을 찾아서... 선사시대에는 석기를 이용해 수렵과 채집을 하였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석기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곡식을 수확하고 가공하는 과정에 사용된 석기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박물관 앞뜰에서 곡식을 가공할 때 사용했을 것 같은 도구(갈돌, 갈판)를 찾아봅시다~



함께 갈아 볼까요...

각자 주위온 돌 위에 쌀과 콩을
올려놓고 찧고! 빻고!
이렇게 저렇게 찧어보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나봅니다.
더 평평하고 갈기 쉬운 돌을
찾아 나선 우리 친구들.
오순도순 모여 앉아 어떤
친구가 더 잘 가는지,
어떤 모양의 돌이 더 잘되는지
내기를 하기도 합니다.



맷돌체험

가을걷이 한 쌀을 갈아
떡가루를 만들어 쫄깃쫄깃
맛있는 떡을 만들어볼까? 콩을
갈아 맛난 두부를 만들어 볼까?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1차 시에
경험한 갈돌갈판보다 곡식을
가는데 훨씬 편리해졌죠?

농구의 발달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는 주된 생산수단이었습니다.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벼를 재배하기 위한 과정은 어떤지?' . 집에서

학교에서 책으로만 보았던 도구들을 박물관 전시실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교육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농기구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벼의 한살이를 통해 알아볼까요?



찧고 빻고(절구체험)

쿵덕쿵덕 찧고 빻고! 달에 사는 토끼들은 절구를 이용해 떡방아를 찧는다네요~
우리는 오늘 떡방아 대신 미니절구를 이용해 봉숭아 꽃잎을 찧어 손톱 물들이기를
해볼 거예요. 콩콩콩, 쿵쿵쿵 빠알간 봉숭아습에 백반을 넣어 손톱 위에 사발짝
올리고 비닐로 묶으면 완성! 첫눈 올 때까지 남아있어야 할텐데...



꿈다락 놀이터Ⅱ 옛 문화 속 아름다움

삶의 기본인 의식주와 연관된 문화유산을
박물관에서 찾아보고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민속놀이(딱지치기)

옛날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며 놀았을까요? 지나간 달력을 이용해 자기만의 딱지를 만들어봅시다.. 2장, 3장 겹쳐서 뺏뺏하게~ 자 힘껏 딱지 배꼽을 겨냥해 딱! 내리쳐 봅시다.. 어이쿠 저런 넘어갔네요...

단체·기관 명	경기도박물관
교육분야	의식주관련 체험, 민속, 전통
교육대상	초등 4, 5, 6
교육장소	경기도박물관
교육기간	1기 2016.03.26 - 06.04 2기 2016.06.18 - 08.20 3기 2016.09.03 - 11.26

매개자	박영재, 김미희, 정상환, 김보경
문의 이메일	hishan93@hanmail.net
단체·기관 홈페이지	musenet@ggcf.kr



조물조물~ 예쁜 색이, 문양이 나와라! 염색 체험은 의생활 체험 중의 하나로 진행하였다. 손수건을 훌치기 기법으로 문양을 만든 후 천연 염색제에 담갔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렀지요. "아! 어떤 색이 나올까? 어떤 문양이 나올까? 궁금해요, 언제 풀어요?" "염료에 좀 담가 놓고 우리는 박물관으로 이동해서 예전 염색한 천으로 만든 옷을 보러 가요." 다들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 궁금함을 뒤로하고 박물관으로 이동하였다.



쿵더쿵~ 인절미를 만들어보자!

우리 민족은 중요한 날, 중요한 행사에 떡을 했지요. 그리고 떡은 물론 그릇에 담지요. 우리나라 떡의 다양한 종류와 그릇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떡을 만들었지요. 떡을 직접 만들고, 그릇에 담고, 친구들과 함께 먹으니 즐거움은 두 배였지요. 물론 부모님 떡도 쟁겨 선물로 포장했어요.



째각째각, 행복한 우리 집! 시간이 가요.

'도자기 집 꾸미기'는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꿈과 이야기를 담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닌 내가 살 집이라 그림을 그릴 때 정성껏 몰입하여 그림을 그렸지요. 남학생의 집과 여학생의 집이 확연하게 달랐지만 작가의 의도를 듣는 시간을 통해 볼 때 집에 담은 마음을 같음을 알 수 있었어요. 편함, 행복, 즐거움!

누구 단청 문양이 예쁠까?

주생활과 연관된 수업으로 품위 있는 집의 완성인 단청을 그려 보았어요. 박물관 야외 전시실에 있는 정자에 가서 그려진 단청을 본 후 기억을 떠올리며 무늬 없는 나무 필통에 정성을 들여 예쁜 단청을 그리니까 모두가 만족하는 화려한 필통으로 만들었지요.



박물관은 즐거워~

'옛 문화 속의 아름다움'은 수업을 통해 주제에 맞는 전통문화를 알려 준 후 박물관 전시실로 이동하여 유물을 자세히 보고, 교육실에서 주제에 맞는 체험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어요. 박물관에서 친구들과 유물을 보는 시간은 한꺼번에 많은 유물을 보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흥미와 즐거움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만져 본 유물 느낌은 어떠니?

박물관에 오면 항상 유물은 만져보기 어려운 전시장 안에 들어가 있죠. 언젠가 박물관을 관람하던 학생이 "도자기 만져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라는 질문은 받고 난 후 교육용 유물 편을 직접 만져 볼 수 있도록 하였어요. 학생들은 몇 백 년이 지난 유물을 직접 만져 봄으로써 오랫동안 유물에 기억이 남겠죠.

달항아리에 내 맘을 담다.

하얀색 도자기 '백자', 그 중 대표적인 달항아리를 교구로 만들었어요. 참가 학생들과 달항아리에 그림을 담았는데 옛 문양을 그린 학생, 현재 내 생각을 담은 학생 다양했지요. 참! 이 달항아리 뒤에 램프를 켜면 은은한 불빛이 나오니까 더 아름답겠죠.



꿈다락 놀이터Ⅱ

애들아 노~올자 꿈 따라 가자

신체놀이와 지능을 높이는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며 여유와 품위를 갖춘 멋스러운 선조들의 전통문화를 쉽게 경험해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사)한국전래놀이보존회	매개자	김순희, 장은경, 최희신, 강예원
교육분야	전래놀이	김호경, 조경연, 이종숙, 원옥라	함은화, 김윤자, 이은이, 은선희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문의 이메일	ilum40@hanmail.net
교육장소	1기 동두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기 더불어 꿈 협동조합 북카페	단체·기관 홈페이지	cafe.daum.net/trafitional-dames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6.11 2기 2016.06.25 - 08.27 3기 2016.09.10 - 11.19		



첫만남의 설레임- 실뜨기놀이로 풀어보자

첫만남의 시간은 학생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 모두 어색하면서도 설레임을 가지게 한다. 몸을 통해 놀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첫시간. 실뜨기 놀이로 고양이수염, 에펠탑, 빗자루, 떡방아등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손바닥을 부딪치며 신나고 즐거운 시간속에 어느덧 마치는 시간이 됨을 알게 된다.



자연놀이-대나무소리통 연주

대나무 소리통을 예쁘게 꾸미고 한쪽의 구멍을 한지로 막고 입구멍을 통해 소리를 내는 자연 놀이 악기 만들기를 하였다. 10차시 수업을 참으로 장난과 산만함으로 무던히도 담임 선생님의 애를 먹이던 아이였다. 소리가 좋았을까?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였을까? 연습시간을 주고 연주 발표회를 가졌다. 준비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던지 핸드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켜 놓고 음악에 맞춰 소리통 연습을 하다니 그것도 자발적으로.... 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생기 있고, 에너지 넘치고, 스스로 행복하다.



조선시대 선비가 되어

옛 조상들의 생활을 배워보고 전통문화 체험의 시간. 아이들은 선비복인 유복을 입고 조선시대 선비가 되어 조선의 신분증인 호패를 만들었다. 호패에는 조선 선비의 꿈이 아닌 자신들의 꿈을 적어 넣고, 동두천 관아에 와서 낙관을 받아 간다. 제법 의젓하고 멋진 모습의 4학년들의 모습....



다문화지원센터 아이들의 활쏘기수업

10차시 동안 다양한 놀이를 진행하였다. 1기수의 다문화 아이들의 활쏘기 수업. 부모님도 모시고 한 수업.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처음 당겨보는 활시위였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부모님이 활쏘기를 할 때는 아이들이 응원하고, 가족이 각별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놀이를 통해 바라보는 시간이 참 기억에 남는 수업 중 하나였다.



1-3기 전체평가회

4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1~3기수의 꿈다락은 11월 26일 대장정의 수업을 마치고 1~3기 전체 가족평가회를 진행하였다. 16가족 50명이 참석하여 프로그램을 즐겼다. 북청사자춤의 공연도 감상하고, 가족들이 함께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대나무소리통 연주 발표를 하였다.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에 대한 평가가 좋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보람을 느끼면서도 아쉬움은 쉽게 가시질 않는다. 오늘은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들에게 행복한 시간이고 아쉬움의 시간이었다.

연천

꿈다락 놀이터Ⅱ

미션! 선사의 비밀을 밝혀라~

선사시대 유물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스스로
찾아봄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고사리협동조합
교육분야	역사, 유물, 체험
교육대상	초등 4, 5, 6
교육장소	전곡선사박물관
교육기간	1기 2016.03.26 - 05.29 2기 2016.06.25 - 08.21 3기 2016.09.10 - 11.27

매개자	김미희, 박영재, 이미란, 성혜리 신지현, 조관희, 이선의, 신현수
문의 이메일	funnygosari1@daum.net

단체·기관 홈페이지 historycoop.co.kr



낯선 돌맹이, 낯선 친구들 처음 만나는 친구들은 늘 주먹도끼처럼 어색하기만 합니다. 꼭 포승줄에 묶여 끌려 온 친구들처럼 한 줄로 나란히, 나란히... 이제 슬그머니 친구들 앞에 조그만 미션을 건네 줍니다. 친구들아!
이제 선사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과거로 떠나볼까?



우리는 선사 패션왕!! 구석기 마을에 패션왕 선발대회가 열렸어요. 가죽옷을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허리에 차기도 하면서 친구들의 몸과 마음은 벌써 구석기시대로 가버렸네요. 부모님의 성화 속에 끌려왔던 이 곳에서 이제 친구들의 얼굴 위에 조금씩 미소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자! 우리도 친구들의 따라 구석기마을로 들어가 볼까요?



막지어서 막집!! 매주 토요일에만 문을 여는 곳이지만 친구들은 먹이를 찾아 잠시 이곳에 머물 기로 하고 땅 위에 집을 막~ 짓네요. 막 지으니까 집의 이름을 '막집'이라고 할까요? 나무 기둥과 나뭇가지들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친구들의 얼굴에는 잠시도 웃음이 사라지지 않네요. 앗! 처음 만났던 나란히 모습이 낯설어지는 것은... 날씨 탓일까요?



자철 줄 모르는 불피우기 미션!!

10분이 지나갑니다. 30분이
지나갑니다. 60분이 지나갑니다.
친구들의 질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10분도 집중을 못한다는 어른들의
편견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른들이 모르는 그들만의 세상은
사실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무토막 3개와 어른들의 기다림,
그리고 불이라는 그들의 희망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뗀석기를 지나 간석기로~
모여서 반달돌칼을 만들던
친구들이 숨박꼭질을 하듯
순간에 흩어져 버렸어요.
모두 물가를 찾아 삼삼오오!!
나만의 반달돌칼 위해 열심히
돌을 갈고 있는 모습에서
교과서 속의 선사인들이 아닌
현실 속의 선사인들이
가상현실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친구들 눈에는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빙하기 속에서 희망을 찾다!!

4번의 빙하기 속에서 친구들은 돌아다니던 삶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는 즉 오랫동안 머무는
새로운 삶을 결정했었어요. 땅에 불을 피우고 그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었죠. 오늘은
그 희망이라는 짹이 세상에 얼굴을 내민 날이예요.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조그만 짹인데
친구들에게는 그 짹이 웃음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어떤 희망의 힘이 정말 있나봐요!!



1박2일의 소원!!

어색했던 첫 만남이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9주간 10번의 만남을 마무리하는 밤이
되었네요. 그동안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의 미션을 풀기위해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갔던 용감한
친구들이 이 밤이 지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스스로의 미션을 풀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사 미션을 풀었던 열쇠를 지닌 친구들은 그들이 쏘아 올린 소망의 별처럼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 밝은 현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떠난 선사 마을은 서서히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네요. 2017년 현실의 삶 속에서 지친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 찾아올 그때까지요~



안양

꿈다락 놀이터Ⅱ

땡스맘

thanks mom

장애인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음악을 느끼고
연주하는 시간을 통해 그동안 잊었던 나와 가족의
관계를 발견해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사)소셜워크
교육분야 음악(바이올린), 합창
교육대상 청소년 가정 / 다문화 가정
장애인 장애 및 난치병 가정
교육장소 이야기너머 작은도서관
교육기간 1,2기 2016.04.02 - 12.03

매개자 최창일, 김혜영, 양성희
이하나, 신주은
문의 이메일 mgh1197@naver.com
단체·기관 홈페이지 -



우리 처음 만난 날 꿈다락 두 번째 시간, 바이올린을 처음 받았습니다.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클래식한 이미지, 적잖이 떨립니다. 활을 쥐고 맨손체조하듯 휘둘러봅니다. 선생님은 바이올린의 기본은 자신감이 가득한 자세라고 알려줍니다. 어깨를 쭉 펴고, 턱을 치켜들고. 우리, 언제 그렇게 걸어본 날 있었던가요?

사랑해 내 사랑, 내 모든 것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돋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마음을 듬뿍 담아 포옹해주는 시간입니다. 긴 병마와 싸우고 일어선 아이를 힘껏 끌어안는 엄마, 평생 돌봐야 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와의 포옹, 함께 악기를 배우는 동생과 스킨십을 나눕니다. 내 삶의 이유, 당신입니다.



까불까불하더라도 갈 길은 가요. 안 듣는 척, 못 듣는 척, 장난꾸러기 아이들도 바이올린을 잡으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한 곡씩 배워 나갈 때마다 내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소리는 만족스럽지 않아도 내 품 하나 끝내주지요?



음악과 함께 자라요

다운증후군인 주희는 2년째
땡스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처음
잡았던 주희는 작년보다 더
훌륭한 실력을 보입니다.
연습을 주도하기도 하고
선생님과 이야기도 잘 나누게
되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의사소통도 잘 해내는 주희,
바이올린과 함께 부쩍
성장했습니다.

땡스 맘 연주발표회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1년간 갚고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가족의
일대기를 테마로 한 연주발표회에서 우리의 과거의 현재, 미래를 조명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감내했던 우리들, 연주회처럼 우리 앞의 삶에 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언어는 음악입니다. 반짝 반짝 빛나는 내일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가족이 행복한 리듬라떼 Tap으로 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탭댄스를 매개로 세대가 상호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재)군포문화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교육분야

탭댄스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 중등 1, 2, 3

고등 1, 2, 3 / 가족

교육장소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교육기간

1기 2016.04.02 - 12.10

2기 2016.05.07 - 12.10

매개자

문의 이메일

단체·기관 홈페이지

김혜선, 연선준, 이예원

hs0131@hanmail.net

www.ddyouth.or.kr



아빠, 엄마,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가족이 행복한 토요문화학교!!!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탭댄스 수업시간은, 동작 하나
하나가 낯설고 어렵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고 배우며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토요문화학교 텁댄스 시간은 작품과 동작을 배우는 유용한 시간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놀고 소통하며 어우러져 깊은 우정과 사랑이 짜듭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매일 매일이 토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텝댄스 여름캠프
KT&G 논산 상상마당으로 여름캠프를 다녀왔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몸과 마음에 힐링(healing)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더 친해지는 시간이었고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 공연관람

텝댄스로 진행되는 무대 위 화려한 공연 '브로드웨이 42번가'를 보고 왔습니다. 아이들보다 더 멋진 군무가 오감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배우는 동작들과 작품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발표회 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마을축제: 내 생애 첫 무대에 오름

(제)군포문화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주관으로 운영되는 '소문잔치'(소통과문화잔치) 무대에 올랐습니다. 생애 첫 무대를 어떻게 마쳤는지 그 순간이 너무 벅차고 설레였습니다. 수줍은 아이들 웃음 가득 미소 떤 얼굴과 엄마 아빠의 엄청 떨리고 어색한 동작들이 마냥 재밌고 웃음이 절로 나는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지꿈랜드 결과공유회

경기상상캠퍼스 GoGo!!
 숨 가빴던 한 해, 즐거웠던
 기억, 좌충우돌 재밌었던
 일 년간을 뒤돌아보는 날.
 지꿈랜드 결과공유회에
 참석했어요. 무대에 오르는 건
 정말 설레지만 뿐듯하고
 짜릿하고 재밌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텁(Tap)으로~

‘가족이행복한 리듬라떼 Tap으로 2’ 발표회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 좋은 친구들과 함께한 행복했던 2016년. 정말 잊지못할
 것 같아요. 멋진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꿈다락 놀이터Ⅱ

지화자! 댄스 파티!

비보잉 수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소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예술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돋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다크호스 댄스	매개자	정명호, 이정건, 문병순
교육분야	비보잉, 창작무용	임채훈, 강태훈, 차유석	
교육대상	중등 3 / 고등 1, 2, 3	문의 이메일	sksk5924@gmail.com
교육장소	다크호스 댄스 스튜디오	단체·기관 홈페이지	bboydarkhorse.com
교육기간	1기 2016.04.02 - 07.09 2기 2016.07.16 - 10.29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술문화 다크호스 댄스는 아이들로 하여금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공유하는 또래 집단을
 이를 수 있도록 돋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예술 감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추구
 합니다. 때문에 지화자! 댄스파티! 수업 과정은 단순히 비보잉 동작 체험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동할 수 있는 미션 수행 놀이의 형태를 갖습니다.



비보잉 역사에 다가가는 시간 버스킹

비보이들은 거리의 춤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멋진 비보이, 비걸로 거듭나기 위해 한강에 모였습니다. 스튜디오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바깥 공기,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더 큰 움직임을 그려나갈 수 있는 야외에서의 신나는 댄스타임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무한하게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바탕 춤을 추고 난 후 함께 먹었던 치킨 간식도 우리의 버스킹 추억에서 빼놓을 수 없겠네요!



아는 것이 힘?

예술가는 보고 듣는 것이 힘이다! 지화자! 댄스파티! 수업의 아이들은 몸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아름다운 예술가들입니다. 온몸을 땀으로 적셔가며 춤추는 아이들의 모습은 감동이고 매력입니다. 아이들이 더욱 더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술 감성을 건드려주고 싶었고 우리는 "와팝"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면서 무대에 대한 열망, 움직이고 싶은 욕구를 다시 한 번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

신체적 성장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역동적인 동작들을 경험할 수 있는 비보잉 장르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크호스 댄스는 아이들의 몸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시간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비보잉 동작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무대

다크호스 댄스는 결코 결과지향적인 예술교육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무대를 선물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고 싶은지 고민했고, 친구들과 함께 기대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을 천천히 꼽씹으며 무대 위에서 움직였고, 친구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웃고, 떠들고, 움직였던 이 순간은 아이들이 춤꾼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입니다.



꿈다락 놀이터Ⅱ

2016

청소년 창의 성장 프로젝트ABCD

(Anyang, Be Creative! with Dance)

단체·기관 명 하트 무브먼트

교육분야 스트리트댄스

교육대상 중등 1, 2, 3 / 고등 1, 2, 3

교육장소 호계청소년문화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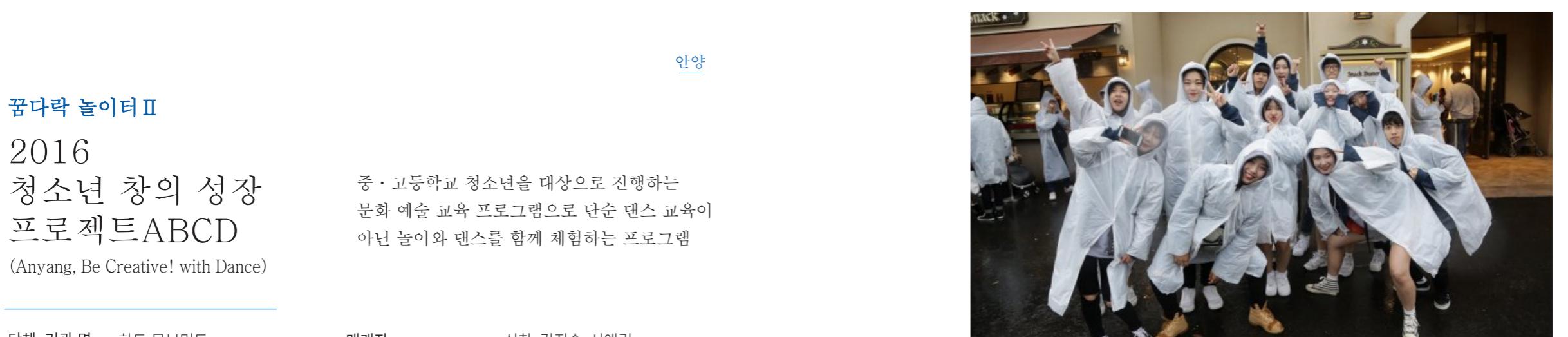
교육기간 1기 | 2016.04.02 - 11.19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순 댄스 교육이
아닌 놀이와 댄스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

매개자 심찬, 김진솔, 서애림

문의 이메일 letz_jerry@naver.com

단체·기관 홈페이지 -



놀이와 함께하는 댄스 프로그램, 노래에 맞춰 춤넘기 하기 단순 댄스 전문 수업이 아닌 참여자들이 즐겁게 놀이를 함께하며
놀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음악에 맞춰 추는 댄스 수업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때는 어색하기만 했던 친구들이
땅따먹기, 춤넘기, 쎄쎄쎄 등 요새 친구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놀이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안양



처음해보는 경험, 360도 전체를 보는 VR영상촬영 VR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 공원에 모였습니다.
스케치영상과 같은 단순한 촬영은 많이 해봤지만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VR영상 촬영을 직접 해보면서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결과발표회 때
진행하는 공연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배웠던 제기차기, 공놀이 등도 넓은 공간에서
같이 놀며 하니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첫 현장학습, 안양시민축제 댄스마당 공연 하기

매년 열리는 안양시민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버스 운영을 하며 다양한 체험을 하였고, 이번에는 공연을 하며 직접적인 무대 경험을 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진행하였던 다양한 놀이를 활용하여 안무를 제작하고, 구성을 적용하여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는 안양시민축제를 돌아다니며 즐겁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예술 체험의 장, 결과공유회 지꿈랜드 참여하기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진행된 지꿈랜드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들끼리 재밌게 즐기며 했던 지난 프로그램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른 단체에서 진행한 수업프로그램도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공간이 있는 책상에 앉아 많은 사진도 찍고 자체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심심하지 않게 지내다 보니 또 하나의 추억이 쌓였습니다.

하남

꿈다락 놀이터Ⅱ

Body Talk

신체를 폭넓게 인지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나만의 움직임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호크마댄스씨어터	매개자	진윤희, 김광수, 심윤아
교육분야	창작무용		조영빈, 김희연, 이승현
교육대상	초등 1, 2, 3, 4, 5, 6	문의 이메일	hokmahdance@naver.com
교육장소	하남 단막극장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facebook.com/hokmah.j
교육기간	A-1기 2016.04.02 - 07.16 A-2기 2016.08.06 - 11.26	B-1기 2016.04.02 - 07.16 B-2기 2016.08.06 - 11.26	



징검다리 건너기 바다에 다양한 크기의 도형을 그리고, 도형에 따른 움직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기와 움직임 그리고 공간감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어디로 이동할지 고민하는 아이들 얼굴에 집중력이 느껴집니다. 수업이 끝난 줄도 모르고 게임처럼 즐기고 있어요!!



가나다라~ Song 아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멜로디에 '가나다라~'를 붙여 노래를 만들어 보았어요~ 노래 합창 후 각자 생각하는 소리의 크기와 길이에 따라 움직임을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모두가 개성 있는 안무가네요~ 언제 저렇게 표현력이 좋아졌는지 보는 사람들이 즐거울 정도였어요!!



Tanz Yoga (Floor)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보아요!! 처음 하는 동작이지만 잘 따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아이들과의 touch를 통해 교감을 높여주는 시간입니다. 바른 자세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랍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



Body Copy

타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따라함을 통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결과 발표회 시간 부모님 따라
하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더욱
즐겁게 할수 있었어요~



Body Graph

음악, 미술, 무용을 함께한 시간~ 노래 부르기와 빈 공간에
그림을 그리고 신체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만의 움직임 combination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디그래프 동작을 업그레이드 시켜보기
도하고, 공간을 이동해가기도 하였다.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사랑스러워요~

로봇 만들기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이 어떠한 수업을 받고
즐기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였어요~ 아이들,
부모님 모두 함께 즐기고 서로의 신체를 touch해
가면서 교감을 확장시켜요~

꿈다락 놀이터Ⅱ

몸짓으로 표현하는 DREAM

'꿈꾸는 청소년 劇(극)' 시즌2

단체·기관 명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교육분야 연극
교육대상 중등 1, 2, 3 / 고등1
교육장소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교육기간 2016.04.02 - 11.26

연극 활동을 매개로 청소년에게 새로운 감각의
경험 및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매개자 한화현, 김은주, 강주리
문의 이메일 cocovelvet@naver.com
단체·기관 홈페이지 www.hidc.or.kr



두근두근 설레임, 첫 만남

'연극'이라는 공통 주제에 참여 의지를 갖고 프로그램에 신청한 친구들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색하고 서먹한 시간이었지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모둠활동을 마치니 금방 친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8개월의 수업이 기대되는 첫 만남입니다.



온몸의 감각을 깨워보아요
 "이구동성 하나, 둘, 셋!",
 "짝짝짝, 이쪽으로 오세요..."
 놀이활동을 통해 연극의
 기본요소를 익히고 감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쪽스러움에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수업 회차가 거듭되니 친구들의
 표현력이 풍부해집니다.



우리들의 발표회
(상반기 연극발표)
 4개월 동안 연극의 기본기를
 익히고 직접 각색한 대본을
 바탕으로 연극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대 위에 처음
 서는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이
 가득한 무대였지만, 연습의
 성과를 영상으로 담아 간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신나는 연극수업, 신나는 연극캠프

친구들과 관계를 증진하고 연극특강을 통한 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연극캠프를 떠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연극수업, 우리들만의 작은 발표회를 열어 하하호호 웃음 가득한 즐거운 캠프였습니다.



발표회를 위한 작은 한걸음, 공연 관람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처음에는 즐거운 관람으로 그쳤지만, 발표회가 다가올수록 배우들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며, 발표할 작품의 인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MY MUSICAL(하반기 뮤지컬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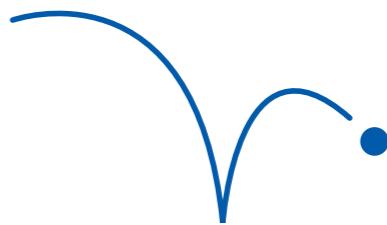
직접 개사한 노래를 녹음하고 친구들의 경험담이 가득한 상황극을 우리의 뮤지컬로
재해석하여 부모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두근두근! 그 빛나는 8개월,
우리들의 추억이 가득한 'MY MUSICAL'



2지점

일반공모
운영 기관 • 단체 소개

그리고 전환



터닝포인트.
<꿈다락 놀이터 I · II>
기획프로그램

사업설명회

일 시	남부) 2016.01.19 (화) / 북부) 2016.1.21 (목)
장 소	남부)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북부) 의정부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참여자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및 관계자
내 용	2016 공모 지원사업 내용, 추진 일정 소개, 질의응답, 개별 상담

일반공모 <꿈다락 놀이터 I · II> 심의 및 선정	서류 심사 인터뷰 심사 선정 결과	2016. 02. 16 (화) - 02.17 (수) 2016. 02.23 (화) - 02. 24 (수) 총 27개 시·군, 49건 사업 선정
----------------------------------	--------------------------	--



선정 기관 및 단체 사전워크숍 첫단추자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일반 공모 선정 단체들을 대상으로 행정 안내 및 그룹별 사전 이야기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차 시	인 원	장 소
① 03.16 (수)	1차	30명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② 03.18 (금)	2차	35명	경기아트플랫폼



신규 단체 · 기관 (꿈다락 놀이터 I) 사전 컨설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전, 꿈다락 놀이터 I 선정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단체 사전 컨설팅 및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쇼규모 권역별 네트워킹 모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회차	권역	장 소	내 용	인 원	진 행
3월	1차	통합	합정 카페 허그인	신규 단체 사업 사전컨설팅 및 권역별 네트워킹	30명	담당자
		남부1	대안공간눈	사업 계획 단체 간 상호 피드백	8명	주성진 (모니터링 위원)
4월	2차	남부2	경기문화재단	사업 계획 단체 간 상호 피드백	6명	김월식 (모니터링 위원)
		북부1	미메시스아트뮤지엄	이메일 글타래 내용 공유 및 토론	5명	송수연 (모니터링 위원)
		북부2	대학로	단체별 과제 공유 및 점검	6명	김소연 (모니터링 위원)
4월	3차	남부1	카페 101	최종 사업 계획 피드백, 평가 지표 설계 워크숍	9명	주성진 (모니터링 위원)
		남부2	안성죽산도서관	우수 단체 사례 참관 및 토론	6명	담당자
7월	추가	북부2	경기북부문화창조 허브	사업 계획 단체 간 상호 피드백	9명	김소연 (모니터링 위원)
7월	추가	남부1,2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사업 계획 단체 간 상호 피드백	13명	김월식, 주성진 (모니터링 위원)
10월	추가	북부2	대학로 토즈	모니터링 진행 후 추가 컨설팅	4명	김소연 (모니터링 위원)



모니터링 사전모임 모니터링 엿봄

전문가 모니터링 시행 전, 모니터링 위원, 운영 단체 및 기관들의 사전 만남 및 그룹별 현장 이슈들을 사전에 공유하고 모니터링 평가 기준 안내 및 견의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일 시	남부) 2016.05.24(화) / 북부) 2016.05.25(수)
장 소	남부) 광교문화창조허브 / 북부)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참여자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실무자 (총 47명)
내 용	그룹별 현장 이슈 사전 파악 및 모니터링 평가 기준 공유, 의견 수렴



매개자 역량강화 워크숍 꿈다락 틈(쉬고), 틈(틔우다)

‘예산 지원 – 사업 운영’의 단순 지원 구조를 지양하고 지원 사업 구조 속에서 소모되는 매개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의 지향점인 ‘감각, 소통, 관계, 놀이, 상상, 창조, 성장을 키워드로 한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주제로 한 매개자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놀이.상상

경기센터에서는 강조한다. 놀이에 대해... 놀이?
놀이가 과연 무엇일까?
모르겠다. 일단 나부터 한 번 놀아보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봐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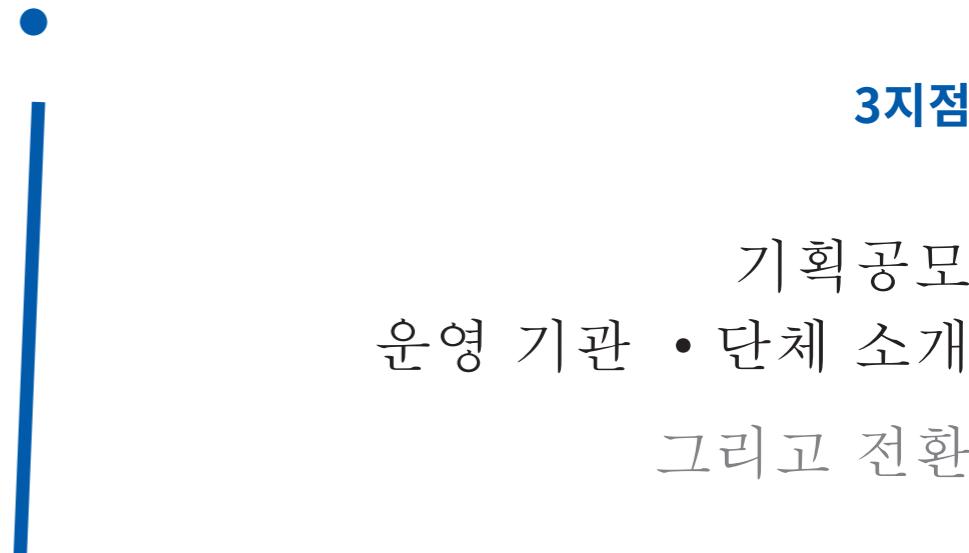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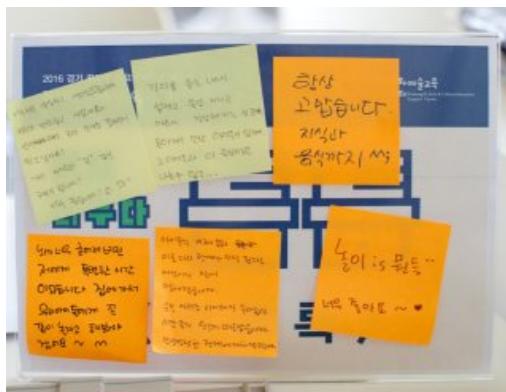
성장

경기센터에서는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해 강조한다.
오늘 또 강조한다. 나도 안다.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좋다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된다.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시간이 흘러 사진을 쓸려고 보니 쓸 사진이 없다!
심지어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연간 계획표만
있을 뿐 그 이외는 없다. 아. 적어도 내가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과정부터 내 손으로 남겨봐야겠다.

감각

이번주 토요일을 위해 열심히 수업을 준비한다.
아이들이 즐겁게 토요일을 보낼 수 있게... 경기센터에서 말하는
'제도교육과는 다른 예술적 감성,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
시간이 흘러 토요일이 왔고, 어쨌든 오늘도 즐겁게 수업을 마쳤다.
그러다 수업을 정리하다 문득 떠올랐다. 나의 감각은 지금 어떤지?
아니 애당초 감각은 뭐였지?

회차	일시	주제	형식	내용	강사	인원	장소
1	08.10 (화)	놀이 상상	체험,강연	말랑말랑한 놀이 워크숍	박종원 (골목놀이연구소)	18명	굿모닝 하우스
2			강연	아이들과 논다는 것은!	편해문 (놀이운동가)	32명	굿모닝 하우스
3	08.23 (화)	성장 체험	체험	휴대폰으로 예술하기	권하형 (사진가)	17명	경기청년 문화창작소
4			강연	꿈꾸는 고물상 (2014 제주 꿈다락 운영 단체)	꿈꾸는 고물상 (2014 제주 꿈다락 운영 단체)	16명	경기청년 문화창작소
5	08.24 (수)	감각	체험,강연	몸의 윤리	코끼리들이 웃는다	27명	수원 살롱시소
6							



<다시, 꿈다락> 소개 및 운영 정보

본 포토에세이는 참여 단체 및 기관에서 직접 작성해주셨습니다.

다시, 꿈다락

사월의 들판

LTP 워크북을 사용하여 주제에 맞는 사진 촬영과 글쓰기 진행, 워크북의 진도 완료 후 그 내용을 스스로 만든 책에 옮겨 자신만의 책 완성, 워크북과 책에 담긴 자신과 공동체의 네리티브를 연극적 행위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사월의 들판	교육장소	함께여는청소년학교
교육분야	사진, 문학, 북아트, 연극	교육기간	2016. 10. 15 - 12. 01
교육대상	중등 1, 2, 3	매개자	김성수, 이선민, 신건우, 배민영

참가 후기

2013년부터 이주자들과의 사진 작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다른 사진적 대상들이 타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LTP(Literacy Through Photography)라는 사진 활용 교육을 이주자들 및 그들의 자녀들과 진행하면서 소통의 도구로 사진과 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이 LTP 프로젝트를 중국 청소년들과 힐링아트랩이란 치유프로그램을 통하여 1년여에 걸쳐 책을 만들고 전시를 실행하게 되면서 책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서사적 특징이 예술을 통한 사회적 소통과 치유의 한 연결점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내 책을 만들고 싶어요 LTP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자 20년 동안 사진가로 살아왔던 아티스트의 정체성에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추가된 시점이기도 할 것이다.

2015년 우연한 기회에 연극하는 분들과 협업하여 시민예술공연을 올릴 기회를 가졌는데 연극이 사용하는 몸의 언어와 샤우팅의 쾌감 등 동적인 연극적 제스츄어와 공동체적인 표현의 아름다움에 폭 빠지게 되었고 그 연극적 장점이 갖는 궁정적 기능들을 사월의 들판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인 "내 책을 만들고 싶어요 LTP 프로젝트"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년여 동안 마땅히 검증되지 않은 연극과의 콜라보를

교육현장에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하던 중 <다시, 꿈다락> 프로젝트 공고를 보고 아 이
거다 싶었고 참으로 운 좋게도 선정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이상으로 간직한 비전을 위
크숍 기금을 받아 심화할 수 있는 일생에 한 번 뿐인 기회라 여겨졌다. 연극과의 콜라보를
위하여 색깔이 다른 2개의 연극 단체와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사월의 들판과의 접점의 지
점들을 꼼꼼히 확보해 나가며 "내 책을 만들고 싶어요 LTP프로젝트 – 움직이는 책"이라
는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교육현장에서 8회기에 걸쳐 짧게나마 실행해볼 기회를 가졌다.

이번 <다시, 꿈다락> 프로젝트의 수혜자로서 지난 바빴던 3개월을 회상해보면 꿈다락
의 이름처럼 마음속에 교육자로서 꿈꾸고 있던 비전을 맘껏 실험해 볼 수 있었다는 기쁨도
컸지만 동시에 함께 했던 5개 단체와 경기문화재단 꿈다락 담당자 및 멘토들과 교육에 대
한 따뜻한 비전과 열정과 고뇌 등을 교감하고 응원했던 소통의 시간도 너무나 큰 위로의 시
간이었다. 예술가로 교육자로 살아가는 여정 중에 두런두런 동료들과 앉아 웃고 쉬고 충전
하며 선한 도전을 받았던 시간이었다. 감사했고 교육의 알찬 열매가 참 여러 사람의 수고와
소망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충전의 시간이었다.

사월의 들판 대표 이선민

다시, 꿈다락

일상에서 예술찾기 예술에서 일상찾기

작곡을 해보고 주변의 소리를 이용한 놀이를
통해 일상에서의 예술 찾기, 예술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예술적,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컬쳐커넥션
교육분야
작곡
교육대상
초등 4, 5, 6

교육장소
안양8동 복지회관
교육기간
2016.11.05 - 12.10
매개자
유현식, 김지희, 윤지연, 이소명
강지수, 김지수, 문병연

참가 후기

<일상에서 예술찾기, 예술에서 일상찾기>를 마치며...

'일상에서 예술 찾기, 예술에서 일상 찾기'라니...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뭐 하
는 팀이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별거 없다! 그저 일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귀 기
울여 듣고 표현해 보는 것이고, 작곡이라는 전문적이고 거창한(?) 분야를 일상의 이야기들
을 담아 아이들의 마음으로 재탄생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컬쳐커넥션의 '일상에
서 예술 찾기, 예술에서 일상 찾기'다.

작곡 전공자들로 뭉친 우리 팀은, 작년 9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를 보게 되었고,
지체 없이 바로 공모에 지원을 하여 4:1의 막강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는 감격(?)을 누
리게 되었다!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료봉사로 안양시 만안구의 작은마을도서관에서 아이
들을 가르치던 우리 팀에게 재단의 지원금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큰 돈이었다.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험적으로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
긴 것이다! 하지만 8주차라는 짧은 시간이 가장 큰 문제였다. 공연까지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한 끝에, 우리는 실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접하고 경험해보게 해주자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첫 번째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이들 모집이었다. 홍보하기에도 턱없이 짧았던 기간이었기에 수업 전날까지도 보조강사들과 도서관장님이 학교 앞에서 홍보를 하였고, 드디어 수업 첫날! 목표했던 15명은 채우지 못했지만 13명이라는 아이들이 모여 감격스런(?) 첫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1. 자연의 소리재생 : 주변의 소리들에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시간을 내어서 주변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기는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생각해낸 자연의 소리재생. 아이들에게 눈을 감으라 하고 주변의 소리를 말없이 들어보게 한다. 짧게 10초, 그리고 10초 동안 들은 소리들을 입으로 재생해본다. 이번에 시간을 더 늘려 30초. 다음엔 1분. 그리고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가며 주변의 소리들을 듣고, 그 순서대로 다시 그 시간만큼 소리를 입으로 재생해낸다.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주변의 다양한 소리들을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고,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수업2. 폐품오케스트라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깡통, 플라스틱 통, 기타 등등의 통입구를 풍선의 봄통 부분으로 고무줄을 이용해 팽팽히 써운다. 그 팽팽해진 풍선을 손으로 꼬집어 텅겨내면 아주 멋진 울림의 타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통의 크기나 재질에 따라 다양한 울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지휘에 맞추어 다양한 리듬을 만들어내면 멋진 합주를 할 수 있다. 잘라낸 풍선의 얇은 입구 부분은 재미있는 소리의 피리가 된다! 아이들이 지휘도 해가며 합주를 경험해본다. 산만하고 전혀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한 아이가 지휘를 하며 눈동자를 초롱초롱 빛내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감동으로 다가온다.

수업3. 작곡 : 주제를 정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보거나 글로 써보고 그것들에 뼈대를 붙이고(리듬), 살을 붙여서(멜로디), 색을 더해(화음) 곡을 완성한다. 다양한 주제들에 아이들의 마음을 살짝, 아주 살짝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제들도 있고, 즐거운 주제도 있고, 전혀 주제를 잡지 못하는(않는) 아이도 있다. 선생님들은 그저 아이들을 지켜봐 줄 뿐 마음 깊은 곳까지는 건드릴 순 없다. 산만하고 내성적이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던, 이런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한 주, 한 주 자신의 곡에 집중하고 곡을 완성해간다. 물론 전혀 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공연 전 주 마지막 수업 날. 전혀 곡을 쓰지 않고 수업 내내 산만했던 아이가 그 하루 동안 자신의 곡을 완성해낸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켜봐주던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공연당일 : 700석 규모의 안양시청 대강당. 다른 소극장을 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려 대강당에서 공연하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다. 11명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들과 지원들이 모두 모여도 채워지지 않는 넓디넓은 공연장에 찬조공연으로 두 팀을 섭외하고, 7명의 연주자분들(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롯, 클라리넷, 호른, 퍼커션)을 모셔 아이들의 곡을 멋지게 연주해 내었다. 부족한 연습량과 빈자리가 많은 공연장, 미숙한 부분이 많았던 진행 등 뭐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이들만의 개성 넘치는 곡들이 초연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우리에게 온 아이들 중 몇몇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아였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내성적이라 표현하는 것도 힘들어했으며, 어떤 아이는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부족한지 선생님들에게 과도하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아이들이 단 6주, 총 여덟 번의 수업을 했을 뿐인데도 자신의 마음을 곡으로 표현해 내는 것에 성공하며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라 아주 큰 변화를 기대할 순 없었지만, 이런 아이들의 미미한 변화와 초롱초롱해진 눈빛만으로도 예술의 힘, 음악의 힘이 실로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단 8주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에게 꾸준히 제공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떤 멋진 음악가, 어떤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디 모든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꿈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교육의 밑거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3개월여에 걸쳐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고, 마무리하며 그간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그동안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노력해준 7명의 주강사 및 보조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당당히 무대의 주인공이 된 우리 아이들, 뒤에서 물심양면 보조해주신 경기문화재단 여러분들, 모두 멋지고, 멋지고,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컬쳐커넥션 주강사 김지희

다시, 꿈다락

룰루랄라 나난

수목 드로잉을 통한 나의 마음 표현하기 및 표현된 마음에
리듬과 운율을 더해 노래(힙합)로 만드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脈 K-PULSE(맥케이펄스)	교육장소	양서주민자치센터
교육분야	미술, 음악	교육기간	2016.11.12 - 12.17
교육대상	초등 4, 5, 6	매개자	김수은, 백운상, 이수호 이용주, 양성국

참가 후기 1

예술 그 자연스러움으로

2016년 쌀쌀한 바람이 느껴지며 겨울이 시작될 때 <다시, 꿈다락> 프로그램을 8주간 진행하였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경기문화재단의 마중물 워크숍에 참여하면서도 이번 사업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다. 타악과 공연예술에 발을 들어놓은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의 나는 국내외 수많은 공연과 강의 등을 진행하면서 방향을 잊고 표류하는 배처럼 그때그때 상황을 해결할 뿐이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음악, 공연, 강의 등에 지쳐 있었다.

별다른 기대 없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첫날, 아이들을 만났다. 날씨가 제법 춥긴 했지만 바깥에서 마임선생과 자기 몸의 구석구석을 느끼며 우리가 움직이고 멈추는 행동들의 의미를 새롭게 알아보고, 실내로 들어와서는 참여한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어색함을 느낄 틈도 없이 암전된 상태에서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으로 아이들을 환영했다.

참여한 아이들과 학교선생님, 교육을 진행한 강사들까지 정신없이 첫 교육을 마치면서 맥없이 풀려있는 나와는 다르게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얘기하고 움직이는 동료강사들,

자신이 해왔던 예술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해맑고 순수함을 담고 있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내속에 작은 희망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 작은 희망으로 내가 타악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에 대한 생각이 이어지다가 내가 처음으로 악기를 만지고 소리를 내며 타악을 시작했던 때를 떠올렸다. 내가 타악이 좋았던 것은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좋았다. 소리가 좋았고 악기를 만지고 같이 연주하면 그저 좋았다.

나와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음악이 그랬으면 했다. 그러려면 여태까지 내가 진행했던 음표를 익히고 수많은 시간을 기본기를 닦는데 보내야 하는 기준의 수업방식을 버려야 했다. 아이들을 믿었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믿었다. 음악을 믿었다.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 몸 안에 내재된 흥과 리듬을 믿었다.

우리는 몸을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고 동작을 통해 리듬을 익혔다. 새로운 악기를 만날 때는 설명을 최소화하고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리와 리듬을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악기연주도 진행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음악이 음악이라고 불리기도 전을 상상했다. 음악이 그저 소리가 있고 울림이 있어서 흥이 더해져 어우러지는 축제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번 <다시, 꿈다락>을 진행하면서 내가 음악과 예술에 대한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생각하여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얻었다.

脈 K-PULSE(맥케이펄스) 주강사 백운상

난 늘 부족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괜찮더라고요^^

예술가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다. 서예를 하는 나는 그저 글씨만 잘 쓰면 되는 줄 알았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일 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각종 공모전에 출품하고 수상하기를 반복했지만 공모전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나를 위한 투자치고는 학생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재료비, 출품료.... 그리고 입상 이후 전시회 표구비, 도록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공모전은 점점 나를 힘들게 했고 그렇다고 졸업 후 예술인으로 사회에 나가는 것이 녹록지도 않은 일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는 결국 글씨가 아닌 돈을 버는 다른 일들을 선택하기도 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눈을 떠도 감아도 화선지에 붓이 지나가고 있었고 또 다시 공모전에 기웃거리다 눈살 찌푸리는 광경들을 보고 물러섰다 다시 기웃거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좋은 글을 찾아 채록하고 서예술로 표현하던 직업병이었는지 예술기획자의 길을 병행하게 됐다. 공모사업을 따내는 것에만 급급했던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심사를 보고 선정되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업들을 해나가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늘 답답했지만 일에 쫓겨 되돌아 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2프로 부족함을 일깨워 주고 2프로를 채워주고자 기획된 꿈같은 공모사업 <다시, 꿈다락>.... 예술교육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예술가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예술가들은 서류를 써 내려가고 컨설팅 위원인 김정이 선생님의 말씀대로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예술가만이 아닌 예술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니들이 예술을 알아' 라는 꼬대 같은 자존심만 세워 왔지 예술교육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

<마중물 시간>을 통해 만난 김보성 선생님의 생활문화예술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말씀은 그간 결과물 위주로 달려왔던 우리를 반성하게 했고 지역문화예술단체로서 지역공동체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다. 우리는 다시 학생이 되어 김보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미래교육이다'를 비롯한 예술교육의 사례들을 공부하고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국악을 하는 대표님, 힙합을 하는 강사들, 서예를 하는 나의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억지로 맞추어 놓았던 기존 프로그램들을 새로이 구성하는 일은 다행히도 강사들 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만들어졌다. 기획자의 역할을 하는 나는 그간 강사들의 속 마음은 들어보지 않고 지시하듯 강사들의 역할을 끼어 맞춰 왔었다. 예술교육을 하는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 간의 소통이 먼저였었는데 말이다. 개성 강한 우리가 소통이 꽤 잘된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긴 어렵지만 배려와 이해는 생긴 것 같다.

사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대표님은 <다시, 꿈다락> 사업에 대해 알지 못했었다. 대표님은 기관들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사기라고 예술을 통해 아이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럴싸한 발표회만을 중요시하는 말이 안 되는 사기이니 하지 말라고 했었다. 전년도에 진행했던 타기관 사업에서의 안 좋은 기억과 방과 후 수업들이 결국 '우리 보고 사기치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한 것 같다. 몰래 심사를 보고 마중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다가 대표님이 워크샵에 동행하게 된 그날 대표님의 마음이 열렸다.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열려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워크샵에서는 기존 다른 일정이 있었음에도 그 일정들을 취소시키고 끝까지 워크샵에 참여하여 우리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간 미션임파서블 같은 시간이었는데 말이다.

짧게만 느껴졌던 <마중물 시간>을 보내고 시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강사 선생님들 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작은 충돌들과 어설픈은 있었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다. 토요일이 기다려진다던 아이들의 이야기에 비로소 우리의 역할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프로그램을 끝내고 뒤늦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전화로 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자유로운 수업은 처음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부끄러워서 발표를 못했는데 여기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 마음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한편 마음이 짠하기도 했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는데 즐겁다는데 그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낸 것이 아닌가 스스로 칭찬해 보기도 했다.

<다시, 꿈다락>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잘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다시, 꿈다락>이 끝나고 우리는 매주 만나 각자 공부한 내용을 나누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운상쌤, 용주쌤, 수호쌤, 성국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脈 K-PULSE(맥케이펄스) 주강사 김수은

참가 후기 3

꿈다락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꿈다락을 신청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 신청 후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지 많이 고민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진 팀 중 <다시, 꿈다락>이라는 기회가 있다고 하여 저희는 다시 한 번 지원하였고, 면접 컨설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받으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멘토링을 받는 그분들을 만나기 전 잠깐 대기실에 있었는데 걱정이 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맛있는 다과들이 준비가 돼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멘토분들과 만나게 되었고 저희가 왜 떨어졌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어떻게 변경하고 서류를 고치고 계획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입장을 다 이해해주시려고 하는 그분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을 수정해나가며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멤버들 중에 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멤버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워크숍에서 정말 힐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떤 힐링? 어려운 자리 아닌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워크숍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나누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전해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나라의 음악으로 자신만의 힙합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이는 첫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익숙한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많은 아이들에게 뜻깊은 수업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회의시간 외에도 차로 이동하거나 시간이 남을 때 그냥 편하게 수다를 떨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수업! 토요일 9시 반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양평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데려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특히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

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험들을 주고 싶고, 이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고 좋다고 하시더군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그 공교육 속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한계를 인지하시고 따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데려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아직도 이런 좋은 분들이 있구나. 대한민국이 너무 따뜻하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힙합 수업은 처음에 아이들이 낯을 가리는 것을 깨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요새 'show me the money' 등 힙합에 대한 문화를 접해볼 여러 가지 기회는 많지만 아이들이 힙합을 직접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새로운 경험인지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표현하게하고 게임을 통해 경계를 풀도록 했습니다. 밟으면 삐삐 소리가 나는 아이템을 교육장소의 바닥에 부착하고 게임을 시작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마음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괴롭히자!" '괴롭힌다.'라는 건 안 좋은 의미의 괴롭힘이 아닌 '친구같이 장난치자'는 의미로서 '선생님'이라는 강압적 이미지보다는 친구같이 마음을 열고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첫 수업을 진행하며 20여 명의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음 수업에는 얼마나 아이들이 더 표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더 재밌는 수업과 힙합 그리고 국악을 통해 좀 더 리듬을 익히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번 수업과 다르게 아이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4주차 정도는 되어야 표현을 잘 할 줄로 알았는데 생각보다도 아이들이 수업을 참 잘 따라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좀 더 색다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마지막에는 수묵드로잉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붓을 매개로 감성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다음 수업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복궁, 청계천 등 곳곳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느낀 걸 적어보고 이를 힙합으로 표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이들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있기에 수업을 거듭할수록 표현들이 풍부해졌습니다.

다음 수업은 북소리에 맞춰 아이들이 움직이고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하고 리듬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국악을 즐거운 놀이 문화로 이끌어주고 또 국악의 감탄사를 힙합과 접목하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인 아이리쉬 수업. 이 날은 아일랜드의 음악과 힙합을 접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일랜드의 역사와 배경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음악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일랜드의 음악을 국악과 결합하여 직접 강사들이 공연하고 설명하며 춤을 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일랜드 전통 춤을 배우는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추는 아이리쉬의 전통의 가치를 담아 '우리는 가족'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같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수업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부모님들도 수업에 함께 참여해 왔지만, 마지막 주 수업은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하는 발표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게임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나와서 문제도 출제하고 발표시간에는 아이들이 자신 있는 노래, 춤, 글 읽기, 목소리 크게 내기, 태권도 등과 함께 랩까지 서로 보여주고 칭찬해주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과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면서 저희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짧았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교선생님, 부모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 번 꿈다락이 얼마나 좋은 교육 사업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꼭 이런 수업들이 열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 '이게 진짜 교육이다.' '짧게 진행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좋은 시간을 보냈다.' 라는 내용들을 나누면서 저희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좋은 기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과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2017년에도 꿈다락과 함께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팀들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꿈다락이라는 사업을 통해 정말 더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의미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脈 K-PULSE(액케이펄스) 보조강사 양성국

참가 후기 4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였다. 아마도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나름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세웠던 가치관도 노래 자체를 잘 부르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한 후 얻게 되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에서 최선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사실 <다시, 꿈다락>을 시작하는 9월엔 많이 지쳐있었다. 2016년 동안 공연 기획과 많은 공연들 그리고 지역에서 매주 진행했던 라디오 등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체력적으로 조금 벼거운 상태였다. 특히 2016년이 되기 전엔 공연은 많이 했지만 기획과 라디오는 많이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능숙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걸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나는 지쳐있었다. 어쩌면 그 순간 내 자신은 '지쳐있다'라는 걸 모르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느라 부담감을 떠안고 마치 즐거운 듯이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마중물시간>에 참여할 당시 내 얼굴은 늘 어두웠던 것 같다. 그런데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내가 배웠던 교육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좋은 스승님을 만나 잘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성장하던 시기의 공교육은 분명 경쟁심을 유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공교육의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바쁜 와중에 내 자신은 지쳤으며, 그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최선이라는 평계로 과한 욕심으로 일을 해오던 과정 속에서, 결국 여유가 없었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나의 이러한 모습을 느끼게 된 것은 <마중물 시간>이었다. 그 전엔 지금의 내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 자신에게 여유가 없이 과한 에너지를 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매주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참석할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적용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느낀 <마중물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공감하고 자극도 받았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마중물 시간>을 채운 모든 강사 분들에겐 삶의 여유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분들 모두가 분명히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들에겐 여유가 있었다. 많은 강의의 경험들로 채운 것이라기 보단 정말 그들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였던 것이다. 아마도 그분

들은 자신의 삶을 경쟁력 있게 만들지만 경쟁심의 구도로 내몰아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물론 나 또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은 있었지만 여전히 과한 긴장과 결과론적인 가치관들로 살아갔던 것 같다. 이런 나에게 <마중물 시간>과 <다시, 꿈다락>을 통한 수업은 나의 가치관에 조금의 변화를 준 것 같다. 어쨌든 많이 지쳐있던 나에게 꿈다락과의 첫 만남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시, 꿈다락>과의 첫 만남인 심사위원들과의 심사시간은 충격이었다.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인가? 혹은 우리가 교회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교육을 주제로 하는 심사를 받느라 사실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채 온갖 아는 척과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들어갔다. 단체와 수업에 대한 많은 대화가 오가는 중 '음악을 왜 하세요? 음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라는 질문을 하셨다. 나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 내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대답 후 말씀이 '음악을 하게 된 동기와 힙합을 하게 된 이유가 교육에 담겨 있으면 좋겠다.'였다. 이 말이 나에게 상당히 중요했다. 나는 기능위주의 교육이나 공교육과는 조금 차별화 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왔고 이러한 부분들로 심사를 준비해왔기에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사실 기능 위주의 교육을 벗어난 수업에 음악이란 기능을 어떻게 접목 시킬 것이냐는 고민이 필요하단 걸 알았지만 아직 답을 몰라 나름의 포장지로 감싼 내용만을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레슨과 다른 이 수업에 내가 좋아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음악 그리고 힙합을 어떻게 대입해야할지 몰랐던 것 같다.

그 날부터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날까지 나는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와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는 나만의 이유를, 또한 이 수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수업에 담아내려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가지 생각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표현이었다. 내가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내는 표현의 결과물은 나에게 있어 너무나도 즐거운 것이었다.

둘째로는 내가 공연을 할 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는 힘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에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다. 내 공연에서 때론 슬픔으로, 때론 즐거움으로 관객들이 공감하는 표정이 보이고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들에게 지친 일상 속 작은 휴식과 회복을 더해주고 싶은 것이 나의 꿈이자 목표이다.

그리고 마지막인 세 번째는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하나 어렸을 적 가장 재밌고 즐거운 부분은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했던 것이었다. 동네 친구, 형, 동생들과 골목에서 우리만의 룰로 야구나 축구를 했던 것들이나 팽이치기 등과 같이 어우러지며 놀았던 부분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렇게 놀고 있는 어릴 적 나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생겼다. 그것은 함께 게임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잘 할 필요가 없이 서로의 장단점이 모여 그 팀의 장점으로만 변화되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꼭 1등만 되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특히 같은 팀 안에서 계속 주도적인 사람이 되려하기보단 때론 응원하는 사람으로, 때론 주도적인 사람으로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관계로서의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도록 말이다. 막상 생각하다보니 이 세 번째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느꼈다. 아마도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소한 것들에 너무 에너지를 쏟느라 내 자신이 지쳐가지 않고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과, 요즘 많은 청년들의 승리를 향한 갈망에서 오는, 혹은 너무 많은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들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나의 장점을 찾아가고 그 장점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업이 들어가기 전까지 정리하려 애를 썼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꿈다락 교육에 적용하고자 나름의 정리를 해보고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로 학생들이 모두를 이기고 싶어 하는 경쟁심보다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가고 장점을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했다. 둘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표현하도록 하고 부정적인 감정보단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감정을 이끌어 내주고 싶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해해주며 잘한 것에 있어서는 치켜세워주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가게 해주고 싶었다. 물론 나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나 또한 더욱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매주 수업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았다. 그래서 팀별 게임을 통하여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려주려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 특히 세 번째 수업시간에 한 아이가 게임 중에 "선생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많이 안타까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도 잘 할 수 있고 또 네가 잘하는 것을 같이 찾아보자. 만약에 이런 게임을 못해도 다른 잘하는 것을 찾아보자!"라고 위로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남은

수업 시간동안 이런 좌절감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장점을 찾아주려고 내 나름의 부담감이 많았다. 남은 수업 동안 찾아주지 못하면 계속 자신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까봐 너무 걱정했었다. 다행히도 이 아이는 수업 중에 자신의 장점을 찾았다. 춤이었다. 이것은 개인기적인 부분이기에 사실 단체수업에서 나타내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아이가 자신의 장점을 찾고 자신의 꿈이 아이돌 가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기분이 좋아졌다. 또 처음 수업에선 무조건 이기려던 학생들이 함께 팀을 나눠 게임을 하며 다른 팀의 잘하는 것을 박수쳐주고 또 뒤에 쳐져있는 팀에게 더 기회를 주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참여했던 <마중물시간>과 이 시간동안 우리 단체에게 조언과 강의, 피드백을 해주셨던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자극 받은 것이다. 내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했던 시간 같다. 어쩌면 내가 이미 학교에서 배웠거나 많은 교육학 서적과 영상들을 통하여 배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 귀한 기회와 시간이었고 나에겐 참으로 뜻 깊었다. 특히 <다시, 꿈다락>을 진행해주셨던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님과 직원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명령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각 단체들의 장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 직접적으로 '인문학을 담아야 합니다, 교육은 이러한 것입니다.'와 같이 전달하지 않고 <마중물 시간>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매우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주셔서 오히려 인문학을 담는 우리의 수업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지난 3개월 여의 시간은 나의 문화예술교육 철학에 있어서 더욱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으며, 또한 여유 있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알리는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꿈다락 교육이 끝날 즘에는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교육에 잘 적용하고 발전시켜서 궁정적인 희망을 전하는 문화예술강사가 되고 싶다.

脈 K-PULSE(맥케이펄스) 보조강사 이수호

참가 후기 5

2016 다시 꿈다락 3개월을 돌아보며

도무지 지나가지 않고 나를 괴롭힐 것만 같던 2016년은 결국 지나갔고, 어느새 2017년이 되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있다. 나에게 있어 너무나 바쁘고 힘든 2016년이었기에 숨 가쁘게 진행했던 많은 일들과 그에 따른 후회들이 머릿속에 스쳐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꿈다락>프로그램이다.

2016년 9월의 어느 날. <다시, 꿈다락>은 면접심사의 첫 만남부터 새로움의 시작이었다. 기존 국가 지원 사업들의 면접에서는 우리 단체의 역량과 업적(?)을 뽐냈다면,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냈던 참으로 이상한 면접이었다. 그것도 편한 마음으로 인생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말이다.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따뜻한 마음이 들었던 건 비단 나뿐이었을까?

감사하게도 우리 단체가 선정되어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갔는데 이 역시 새로움의 시간이었다. 사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미래(사업종료 후)의 나에게 편지를 쓰다니! 그렇게 자신에게 쓴 편지를 사업 참여자, 센터 직원, 심지어 센터장님까지 직접 읽으면서 형식이 아닌 진심이 느껴지는 그 시간이란! 끊임없는 사업과 사업에 지친 나에게 이 날의 오리엔테이션은 적지 않은 충격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마음을 새로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에 진행된 <다시, 꿈다락>, <마중물 시간>은 돈 내고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통찰력 깊은 강사의 강의와 토론,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눈앞에 주어진 사업들을 진행하기에 바빠서 문화예술교육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한 우리 단체에게 이 시간은 참으로 귀했으며, 교육사업 뿐만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와 같이 센터에서는 <마중물 시간>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선배들의 지식과 경험, 통찰력, 아이디어까지 사업 참여자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주었고, 우리 단체 역시 그 배운 것들을 8주간의 시범교육프로그램에 아낌없이 쏟아 봇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단체의 교육 레퍼토리와 수업 포맷들이 있었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기술로 진행하지 않고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 8주,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적 시도들을 했다.

우리 단체는 전통 타악, 수묵드로잉 그리고 힙합이 함께 하는 새로운 느낌의 예술 단체로서,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단체의 특징을 살리고자 했다. 요즘 아이들에게 지루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을 힙합과 연계해 재미있게 풀어내기 위해 아이들이 전통 장단 연주에 랩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가볍게 보일 수 있는 힙합에 묵직한 메시지를 더해주기 위해 아이들이 수묵드로잉으로 그려낸 자신의 작품을 랩으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도 특히 우리 단체에 있어서 큰 시도는 레크레이션을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인 양평지역의 초등학생들은 도시지역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의 개념과 공동체의식에 있어서 뛰어난 성숙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수줍음이 많은 탓에 힙합과 타악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편한 분위기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매 수업마다 어떤 레크레이션을 진행할지를 정해야했다.

또한 그 레크레이션이 그 날의 교육내용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 레크레이션의 의미와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지 등을 미리 회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관심사와 특성 등을 파악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개개인별 성향과 성격 등을 고려하게 되는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발자국 전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새로운 시도들을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실패와 반성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각 과목 선생님들 간에 연계 작업이 필수적인 포맷이었기에 선생님들 간에 가능한 소통하여 노력하였지만, 사업종료 후 자체적으로 진행한 꿈다락 사업 피드백을 되돌아 봤을 때 더욱 깊은 소통까지 이끌어 냈어야 했다는 의견들이 도출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수업준비와 회의를 한 박자 미리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차후 꿈다락 교육사업 및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할 때 적용할 것이다.

<다시, 꿈다락>사업이 종료되어갈 즘, 나에게 배달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그 편지속의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있었다. 또 다시 힘만 빠지는 사업이 될까봐...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까봐...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의미 없는 시간이 될까봐... 하지만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나'는 편지속의 '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바쁘고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었고, 여전히 부족했지만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다. 나에게, 우리 단체에게 작지만 큰 변화의 기회를 열어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수업기간 내내 해맑은 얼굴로 우리와 함께 했던 양평의 아이들, 학부모님들, 지역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脈 K-PULSE(맥케이펄스) 보조강사 이용주

포천

다시, 꿈다락

문화, 예술 비빔밥

마을 상황극을 통하여 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신들의 마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반응과 해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연극놀이를 통해 표현하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ArTeacher(아티처)
교육분야 연극, 영화
교육대상 초등 4, 5, 6

교육장소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교육기간 2016.11.19 - 12.17
매개자 김민성, 장상구, 조서율
최봉준, 임소정, 신정국

참가 후기 1

강사들의 모임에서 전문적인 교육단체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게 되었고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에 2016년 하반기, 새로운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이 신생 단체에게 누군가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가진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모두 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업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단체를 창설한 시기가 다른 공모사업들과의 시기와는 동떨어져 있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개인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때마침 경기문화재단에서 <다시, 꿈다락>이라는 기획공모를 진행하였고, 우리는 올해 목표를 이 사업에 선발되어 완수하는 것으로 잡았다. 본래 극단 한내에서 진행할 당시에는 기획 업무를 도맡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 보내겠다는 각오 하나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심의과정을 모두 거쳐 우리 단체는 선발되었고, 경력이 없는 강사들을 위해 기회를 제공해준 경기문화재단에 감사한 마음이었다.

<마중물 시간>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평소 낯선 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나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임이 분명했지만, 그런 두려움보

다 즐거움이 더 클 정도로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타 단체들과의 의견공유도 이루어지고, 현재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단체들의 사례도 들을 수 있었다. 정말 재밌었다. 남의 이야기가 그렇게 듣기 좋은 시간이 앞으로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타 예술교육 워크숍, 기획 연수 등 많은 연수와 교육을 받았지만 마중물 시간만큼, 내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준 기회는 없었다. 여기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를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마저도 즐겁게 해주었다. <마중물 시간> - 자체학습모임으로 이어지는 그 순환의 고리가 마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예술 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첫 아이템은 지역사회를 알리는 뮤직드라마 만들기였다. 심의위원 선생님들의 말씀이 백번 옳다. 이 아이템은 어딜 가나 존재하는 흔해 빠진 곤대식 발상이다. 적어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참여하는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하게 되었다. 나는 고등학생 때까지 꿈이 없었다. 그것은 보수적이고 강압적이었던 집안의 영향도 있었다. 내가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한 이후로 내 생활은 많이 변화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허황된 꿈이라도 꿈을 가지는 것은 삶의 동기를 찾게 해줄을 알고 있다.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여러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그 꿈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이었다. 과정드라마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잠깐이나마 현실화시켜보고 그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짧았던 교육 회차와 여러 지역적 사정, 아이들의 일정상의 문제와 겹치는 바람에 우리가 기획한 의도대로 사업이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과정드라마에 빠져들어 자신이 가진 꿈을 한 번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꿈을 이룬 상황이 되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한다.

우리는 다음에 이 공모사업에 합격할지, 떨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기획자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와 소속 강사들도 많은 성장을 이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성장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기획도 발전하고, 강사들의 역량도 발전된 상태로 다음 꿈다락 공모사업에도 선발되어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키워주고 싶다.

ArTeacher(아티처) 기획자 김민성

참가 후기 2

다시 꿈다락

꿈다락 수업은 다른 예술수업과 다르게 조금은 긴장되면서도 흥분되는 사업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교육방식과 문화공유방식을 채택하여 조금 더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예술, 문화의 자유성이 보장된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긴장되고 조금은 더 흥분되는 수업이다.

<다시, 꿈다락> 공모를 내고 선정되기까지 꼭 되었으면 하고 바랐다. 첫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처럼 꿈다락 수업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방향 때문에 자유롭고 실험적인 수업 방향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연극과 영화가 만나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다그치며 성장하는 예술통합교육에 대한 흥미로움, 무엇보다 이러한 문화를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4명의 강사들과 함께 팀티칭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마음이 맞는 강사들과의 팀티칭을 통하여 나를 보완해주고 피드백해주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무엇보다 <다시, 꿈다락>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학습모임과 워크숍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었다. 예술과 문화를 공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학습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나눌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즐거움이었다. 물론 서로의 장르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강사들의 모임이 전부 원활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많은 의견이 오고 갔고 각자 분야에서의 장점을 강조하며 대립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지지부진한 일이 아니라 큰 소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처음 프로그램 기획과는 다르게 심층인터뷰 이후 실험적이고 과감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예술과 교육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았기 때문이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8차 시라는 짧은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다소 아쉬웠다. 더 다양한 예술적인 경험과 즐거움을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기에는 8차 시는 짧았고 스스로 여전히 교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예술을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아직도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수업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고 더 체계적인 수업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의 큰 수업 목표를 잡고 목표를 향해서 수업의 내용을 변화할 수 있는 유기체적인 교육방식을 적용해야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과 교수자의 역량이 학습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꿈다락> 사업을 통하여 아이들과 교수자 그리고 기획자가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움 속에서 나타나는 예술 행위가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만나는 수업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다. 지난 3개월은 꿈다락이 가지는 장점을 십분 활용한 수업을 다시 한 번 설계하고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매우 매력적인 시간이었다.

ArTeacher(아티처) 주강사 장상구

이천

다시, 꿈다락

자유樂 오감체험

다양한 방식으로 공예, 도자분야에 발 들여 놓기, 말로 전달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생각을 제3의 물질을 이용해 표현하고 드러내며 소통해보는 프로그램

단체·기관 명	인온아트센터
교육분야	공예, 도자
교육대상	초등 4, 5, 6

교육장소	인온아트센터
교육기간	2016.11.12 - 12.17
매개자	박재인, 고은별, 김하나

참가 후기

2016 <다시, 꿈다락> 사업 진행 과정과 후기

경기문화재단에서 꿈다락 사업에서 떨어진 단체들을 대상으로 <다시, 꿈다락> 공모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쓰디쓴 탈락 후 접어두었던 옛 지원서를 꺼내 분석하며 더 나은 내용을 위해 고민했다. 기존의 커리큘럼은 여러 가지 체험을 짧고 가볍게 해보기였다면 새 사업은 한 분야 '도자'를 심도 깊게 배워보지만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짜나갔다. 실제로 도자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기, 만들기만큼이나 폭넓고 다양한데, 평소 도자기를 단 한번만 체험해보고 도자기의 전부를 경험해 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또한 정말 배우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체험장을 찾지 못하는 지역 아이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꾸려나가고 싶었다. 그렇게 지원서를 작성하고 떨리는 심사면접 이후에 우리 사업은 채택됐다.

<다시, 꿈다락>에 선정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마중물 시간이었다.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이란 뜻처럼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단체와 각 개인의 사고를 넓혀주는 시간이다. 어떤 강사는 "꿈다락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다면, 전혀 다른 분야의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강사도 있었다. 그들의 교육 철학, 삶에 대한 가치관, 자신의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사고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갔다. 또한 장르가 다른 5개의 단체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의문과 막연함은 점차 해소되어갔다.

그렇게 5번의 만남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기존 수업계획서는 계속 수정되었다. 초반에는 자칫 기능적인 부분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어떤 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서로 이야기 나누고 듣고 만나면서 궁금증이 해소되고 방향이 잡혔고, 최종 수업계획서가 완성되었다.

“도자 수업이지만 결과물에 치우치지 않고 그 활동의 과정들에 초점을 맞춘다.

다양한 준비 활동들을 통해 나와 내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다양한 흙들이 주는 촉감들을 느껴본다. 그 촉각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이 기록과 감정들은 결합되어 오브제로 형성된다.”

아이들이 수업 과정 동안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며 [씨앗/물주기/새싹/떡잎/줄기/울창한 성장/열매수확] 씨앗의 삶에 비유해 8회 차가 운영되었고, 각 수업시간은 준비 활동, 본 활동, 마무리 활동으로 분배되었다. 준비 활동으로는 난타, 게임, 마인드맵, 그리기, 춤, 체조 등 주제인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난타 활동의 경우 각자 정한 감정을 북을 치면서 표현했고 모든 조가 함께할 때 멋진 합주가 되었다. 또 다른 준비활동으로는 '감정폭파' 게임으로, 도자기 초벌 그릇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버리고 싶은 기억들을 빼곡히 적게 하고 마대자루에 넣어 깨부수는 과정이다. 마대를 바닥에 치고 마음껏 신나게 소리 지르는 과정 속에 그릇은 이미 가루가 되었고 부정적인 감정은 이미 사라진 듯 했다. 본 활동의 하나로는 주변의 흔한 흙을 펴다가 직접 체에 걸러 고운 가루를 내고 물에 반죽해 도자기 흙을 만들어 보았다. 추운 날씨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사는 동네의 흙을 펴오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표정은 흥미진진했다. 직접 펴온 흙을 반죽하며 타일을 만들었고 초벌, 재벌에 거쳐 완성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옹기 흙을 바닥에 깔아놓고 발바닥의 촉감으로 흙을 느끼는 놀이를 했다. 아이들은 맨발로 울퉁불퉁한 흙을 밟으

며 서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며 한발 한발 밟고 콩콩 뛰면서 촉감을 익혀나갔다. 처음에는 발에 흙이 묻는 것을 두려워해서 선뜻 시작하지 못한 아이들 조차 어느새 흙을 밟으며 즐기고 있었다. 또 다른 차 시에는 흰 흙(백자), 누런 흙(산청토), 붉은 흙(옹기토), 모래가 많이 섞인 흙(조형토), 회색빛깔 흙(청자토), 돌과 모래가 섞인 흙(갈색조형토)을 나눠주며 마음껏 반죽했다. 아이들은 바닥에 던져보기도 하고, 주먹으로 쾅쾅 쳐서 놀려보고, 손가락으로 조물조물 지렁이를 만들기도 하고, 칼국수처럼 반죽하기도 했다. 어떤 흙은 너무 단단해서 오랫동안 반죽해야 했고, 어떤 흙은 너무 부드러워서 솜털을 만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낌을 외치고 말하면서 각자의 느낌들이 공유되었다. 그때마다 느낌을 기록해 두고 최종적으로는 그 기록들을 토대로 흙의 형태를 만들어 완성해 나갔다. 어떤 아이는 그때 만진 흙의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 물결 같은 형태를 만들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포근한 느낌이 잠을 자는 것만큼 좋다며 침대의 형태를 만들기도 했다. 마지막 8회 차시는 직접 만든 포스터와 초대장으로 부모님, 형제,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작품 배치도 직접, 조명도 직접 해보며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돋보일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느껴나갔다. 또한 작가가 되어 관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며 소통하는 경험을 했는데 쑥스러워 했지만 이 과정이 첫 걸음이기에 모두에게 칭찬이 돌아갔다. 우리 수업의 목표는 예쁘고 멋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기에 비록 아이들의 결과물은 예쁜 도자기 상품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미숙하고 다양한 감정이 담겨있는 오브제에는 아이들의 흥미와 각자의 고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마지막까지 성실함과 자유로움으로 함께한 지역아이들과의 수업은 우리 단체 멤버들과 함께 한걸음 더 성장한듯하다.

마지막으로 <다시, 꿈다락>을 만나 우리 인온아트센터와 지역의 아이들이 함께 놀이 같은, 실험 같은, 다양한 몸짓의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재단의 사업을 통해 이곳 이천 백사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이 심겨진 것을 느낀다. <마중물 시간> 기획으로 좋은 강사님들을 섭외해주시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웃는 얼굴로 열심히 도와주신 최지원 담당 선생님과 센터장님, 모든 스텝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인온아트센터 주강사 고은별

"다시, 꿈다락" 지원사업을 통해 다시 보게 된 경기문화교육 현장

그러니까 작년 하고도 가을 즈음이다. 경기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공모 심의를 요청받아 수원 경기문화재단을 실로 오랜만에 방문했다. 내년도 지원사업 계획과 내용을 들여다 볼 기회라는 기대를 하며.... 헛! 내년도 사업 심사가 아니었다. 지원사업비 남은 예산 등을 모아 정기공모에서 탈락한 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사업 틀을 만든 것이었다. 인자한 미소가 얼굴에 펴져간다. 어여쁜 센터 식구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다시! 꿈다락"이란다. 사실 지원사업 예산이 엄청 늘어나면서 더 많아진 업무량도 벅찬데 굳이 반납하면 그만일 예산을 끝까지 일을 만들어 지원하려는 그 속내를 이해하는지라 절로 흐르는 미소다.

9월 21일 서류 심사와 28일 인터뷰 심의를 하면서 지원 단체를 향한 센터장의 당부 말을 듣다 보니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원사업 틀이 매우 올곧게 잘 다듬어진 체계임을 느낄 수 있었다. 지원 기관의 소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사업 내용에 잘 담아내고 있었다.

대개 공모 지원 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면 그 쓴맛이 자신의 역량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보다는 지원 시스템의 불합리 또는 심사(위원)의 불공정성에서 찾기 마련이다. <다시, 꿈다락>은 한 번 고배를 마신 단체들에게 재차 도전 기회를 주면서 <다시, 꿈다락>의 사업목표를 지원 단체 활

동성파의 지역 환류에 두지 않았다. 지원 단체의 역량 강화가 사업목표다.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11월 초까지 그룹 워크숍과 컨설팅을 통해 지원서에 담긴 사업 내용 전반에 걸친 점검과 수정을 스스로 해 나가도록 지원 체계가 작동했다.

선정 단체의 사업 시행 전까지 워크숍과 컨설팅으로 사업 만들기를 위한 그물망 조련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동 현장 모니터링까지 이어진다. 교육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수업 종료 후 같이 모여 토론과 강평이 이어진다. 그야말로 지원사업의 완결판인 TOTAL SOLUTION SYSTEM이 시종일관 작동되고 있었다.

이쯤 되면 의문이 하나 생길 거다. 정말 그렇게 지원한 성과가 있긴 하냐는.... 즉답 대신 두 가지 상황으로 대신하려 한다. 첫 번째 상황은 각자 자기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매우 바쁜 단체들이 센터가 미리 제시한 촘촘한 지원망(심사-워크숍-컨설팅-모니터링)에 참석하기에도 벅차고 짜증 날 법도 한데, 정작 참여한 사업 주체들의 얼굴 표정이 답이다. 정말 배려 받고 도움받고 있다는 만족감이 한 가득이다. 두 번째 상황은 센터 담당 직원들의 고민이다. 직원들이 너무 미안해하는 분들이 따로 있다. 바로 일반 공모에 지원받은 단체 분들 때문이다. 정작 일반 공모에 선정된 단체들은 <다시, 꿈다락>에 선정된 단체들만큼 배려 받지 못해서 센터 직원들이 미안함을 느낄 만큼 <다시, 꿈다락>사업에 들어는 열정과 정성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일반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분배하듯 뿌려지는 지원사업 틀의 관성을 벗어나서 진심어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쌩얼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필자 스스로도 심사-면접-컨설팅-모니터링 전체 과정을 함께 하며 감동하면서, 현재 수령에 빠진 국가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게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지원사업의 문을 처음 열어갔던 선배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단체 역량 강화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육과 체험 과정에 동참한 교육 대상에 대한 교육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고해야 할 요소도 이 전체 과정을

함께 하면서 재확인한 점이 있어 공유하려고 한다.

선정 단체들의 준비했던 교육 프로그램은 서류심사와 면담 그리고 상호 워크숍과 컨설팅을 통해 많이 보완되고 나아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마지막 현장 모니터링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 교육 프로그램의 훌륭함보다는 교육 주체인 지원단체가 참가 교육생들 나아가 그 지역 안에서의 끈끈한 결합력과 신뢰도가 어떠한 것이다. 평소 지역 내 네트워킹 수준과 활동 공감대에 대해서도 선정 과정에서 참고 할 요소로 미리 점검할 수 있다면 <다시, 꿈다락>지원사업이 내건 목표 달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김보성

대전문화재단 문화기획실장
기획공모 심의위원 · 컨설팅위원

다시,
꿈다락



ArTeacher(아티처)



사월의 들판



컬쳐커넥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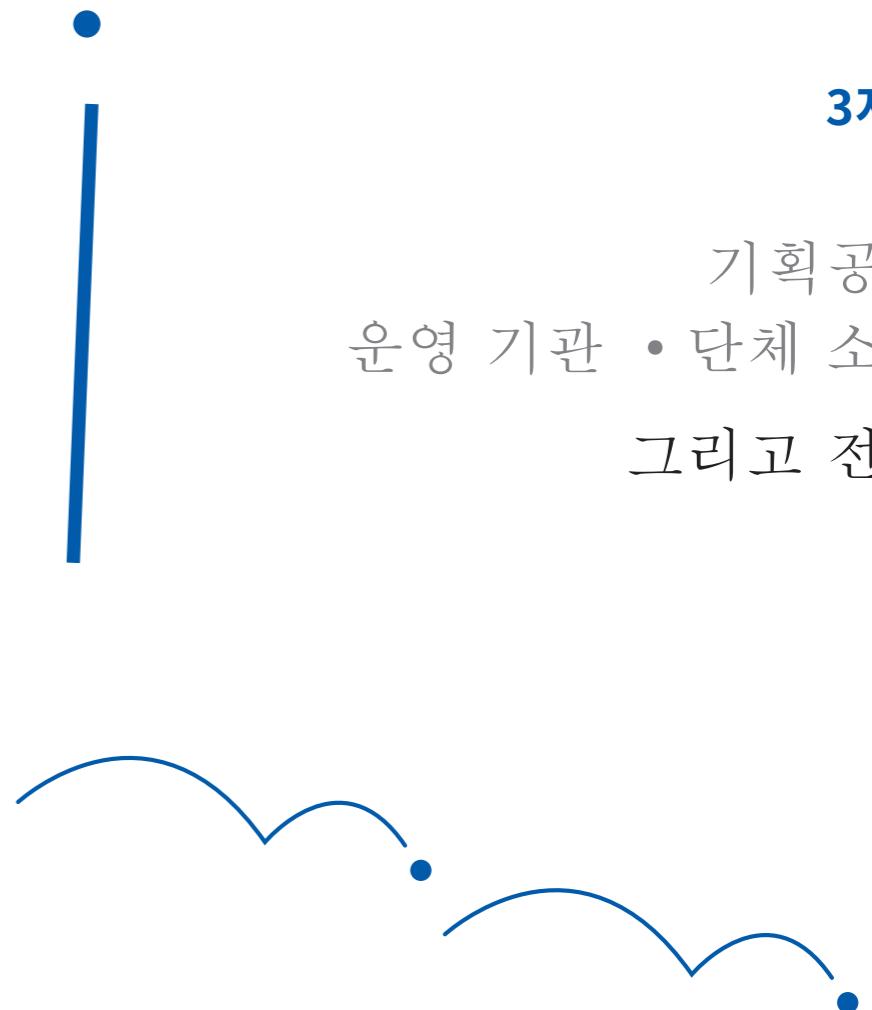
脈 K-PULSE(백케이펄스)



인온아트센터

3지점

기획공모
운영 기관 • 단체 소개
그리고 전환



터닝포인트.
<다시, 꿈다락>
기획 프로그램 운영

기획공모 사전워크숍 첫단추자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기획 공모 선정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 공유와 행정 안내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일 시
장 소
참 여
내 용

2016.10.04 (화)
경기문화재단 2층 꿈다락방
5개 단체 매개자 및 워크숍 진행자 20명, 센터장 및 실무자 4명 총 24명
사업 취지 공유 및 행정 안내, 아이스브레이킹(손편지 워크숍)



기획공모 마중물시간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을 뜻합니다.
센터에서는 워크숍 및 특강, 컨설팅을 통해 기획공모 운영 단체의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사업 준비 과정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자체 학습 모임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마중물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차	일시	내용	강사	인원	장소
1		문화예술교육 근본 철학 및 가치, 단체별 심의 과정 이슈 공유	김보성 (대전문화재단 문화기획실장)	12명	경기문화재단 2층 문화사랑방
2		커뮤니티 아트와 문화예술교육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	10명	경기문화재단 2층 문화사랑방
3	10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	조정훈 (우리동네사람들)	10명	인천 커뮤니티 펍 0.4km
4		수업 영상 비평 - 호크마맨스씨어터	주성진 (문화용역) 진윤희 (호크마맨스씨어터 기획자)	10명	서울 지역 커뮤니티 카페
5	11월	나의 언어로 기획서 쓰기, 최종 프로그램 컨설팅	김정이 (문화기획자) 김보성 (대전문화재단 문화기획실장)	10명	경기문화재단 2층 문화사랑방



기획공모 결과공유회 땅 끝, 곧 땅의 시작

기획공모 운영 단체 및 기관들의 단체·기관별 자체 학습 모임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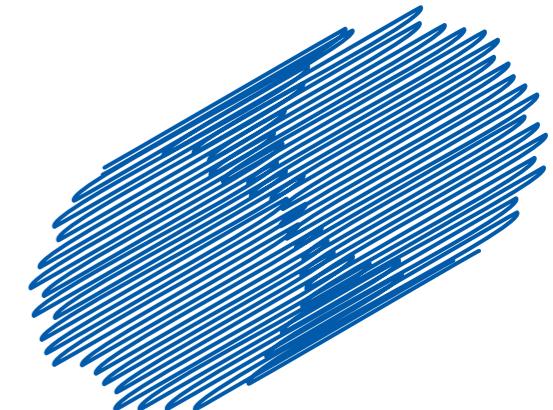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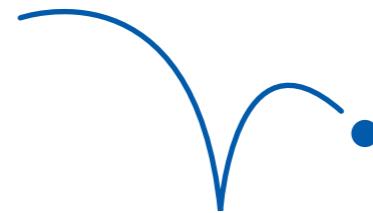
일 시	2016.12.16 (금) 14:00 - 17:00
장 소	경기문화재단 2층 꿈다락방
참 여	5개 단체 매개자 및 워크숍 진행자 20명, 센터장 및 실무자 4명 총 24명





4지점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특별 기획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운영

실무자 네트워킹 허심탄회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네트워크 <경기 도넛> 프로그램 일환으로 서울, 인천,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실무자와 함께 네트워킹 프로그램 <허심탄회>를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실무자 간의 만남이 확장되어 4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매개자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매개자 네트워킹 워크숍 <4방팔방>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경기 도넛>은 인적, 내용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관 영역(전국 문화재단,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경기도 내 기초 문화재단, 교육청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별 협력 네트워크를 주관, 진행합니다.

일 시

2016.04.22 (금)

장 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참여자

서울, 경기, 인천,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실무자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실무자 11명

내 용

2016년 네트워킹 추진 방향 및 주제 논의



강원경기서울인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매개자 네트워킹 워크숍 4방팔방

<4방팔방>은 다양한 지역 및 장르의 매개자, 4개 지역의 8가지 지원 사업 매개자 모임을 의미합니다. 강원경기서울 인천 실무자 간의 만남을 확장, 각 지역의 운영 단체 및 기관들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여 정보 공유 및 매개자들의 사고 확장과 현장 이슈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일 시	2016.08.30 (화) - 08.31 (수)
장 소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볼, 시흥 월곶예술공판장
참여자	지역별 지원사업 매개자, 실무자, 전문가 등 총 104명
내 용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체 강연, 분임 토의, 네트워킹 워크숍, 공간 탐방

	일정	진 행 내 용	장 소
8/30 화	13:30~14:00 30'	참가등록 및 행사 안내	인천아트
	14:00~15:00 60'	전체 강연 <미사여구를 벗고 다시 문화예술교육으로>	플랫폼 A동 1층 (생활문화센터)
	15:00~18:00 180'	분임토의(8개의 방)	차이나타운 인근 카페
	18:00~19:00 60'	석식	차이나타운
	19:00~21:00 120'	네트워킹 워크숍 <Let's 컨퍼런스>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8/31 수	21:00~	- 속소 이동 및 체크인	인천 하버파크호텔
	09:00~10:00 60'	조식 및 이동	인천 하버파크호텔
	10:00~12:00 120'	문화예술공간 탐방 I 인천아트플랫폼,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12:00~13:00 60'	중식 및 이동	-
	13:00~15:00 120'	문화예술공간 탐방 II 월곶예술공판장_Art Dock	경기 시흥시 월곶포구

프로그램 내용

전체 강연

<미사여구를 벗고 다시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에 걸쳐진 화려한 언어와 꾸밈을 뺀 솔직하고 순수한 본질과 주체성 찾기
강연자) 최혜자(문화디자인대표)

분임토의(8개의 방)

시작, 기획, 관계, 성장, 확장, 자생과 관련된 시구를(8가지 흐름) 활용하여
퍼실리레이터와 주제별 모임 진행

이야기 모임 그룹

① 병따개는 통니 하나가 생명이다
(이정록 '병따개는 입심이 좋다' 中)

민경은

② 서둘러 먹으면 가을 햇살도 얹힌답니다
(이정록 '귓불' 中)

민병은

③ 나는 걸어가기엔 멀고 무얼 타기엔 애매한 길을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다
(박준 '관음(觀音)-청파동3' 中)

최혜자

④ 헝겊을 손가락에 두르고 같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지 말입니다
(박준 '光' 中)

드라마고

⑤ 물의 청색이 노래할 때 하늘의 소문은 어떻게 냄새를 맡나?
(파블로 네루다 '질문의 책' 中)

김소연

⑥ 노란색이 고갈되어버리면 무엇으로 우리는 빵을 만들지?
(파블로 네루다 '질문의 책' 中)

지경

⑦ 산 조개만이 혀 깨무는 고통이 있는 거
(이정록 '조개구이집에서' 中)

임재춘

⑧ 별 밝은 날 너에게 견네던 말보다 별이 지는 날 나에게 빌어야하는
말들이 더 오래 빛난다(박준 '지금은 우리가' 中)

송수연

네트워킹 워크숍 <Let's 컨퍼런스>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교류의 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연자) 민경은(여러가지연구소 소장)

문화예술공간 탐방

경인 지역 문화예술공간 트라이볼, 월곶예술공판장 탐방 및 설립 배경,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 진행
강연자) 인천아트플랫폼,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 담당자,
월곶예술공판장_Art Dock 디렉터 김정이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결과공유회 **지·꿈 랜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참여 단체의 교육 과정을 보여주는 체험·전시(16), 공연(4), 영상 상영(10) 운영을 통해 77개 참여 단체가 서로의 성과와 기록들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페스티벌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 시	2016.11.05 (토)
장 소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수원생생공화국 어울마당 일대
참여자	201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단체 · 기관 관계자 및 참여자 300명, 당일 프로그램 출연자 150명, 31개 시·군 주무관 및 사업 관계자 30명, 일반 참여자 300명 등 (총 780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놀이 한마당

"지·꿈 랜드" 대개장!

2016년 11월 5일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11월 5일(토) "지·꿈 랜드"를 개장하고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을 함께 해주신 소중한 분들과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련되지는 않아도 동네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보고, 먹고, 수다 떨며 정겨운 추억을 쌓던 여느 놀이동산처럼, "지·꿈 랜드"에서는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참여 단체들의 숨 가빴던, 혹은 좌충우돌 재미났던 일 년 간의 여정이 다채롭고 정겨운 풍경으로 펼쳐졌습니다.

고즈넉한 숲 속에 위치한 하루놀이동산 "지·꿈 랜드"를 소개합니다.

지·꿈랜드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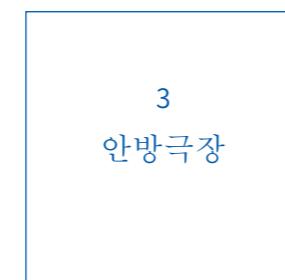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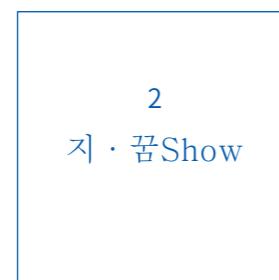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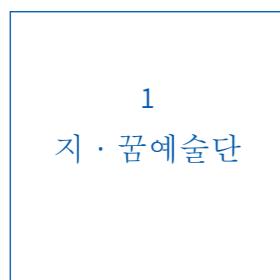
시간	지·꿈Show	지·꿈예술단	안방극장	보물섬	만남의 광장	지·꿈 안내소
13:00-13:30		오프닝(개막)				
13:30-14:00		단체·기관 공연 1부				
14:00-14:30		(초청공연) 음악당달다 '랄랄라 움직이는 뮤직쇼'				
14:30-15:00						
15:00-15:30	단체 기관 체험·전시 부스 운영	(초청공연) 상상발전소 '전구인간'				
15:30-16:00		단체·기관 공연 2부				
16:00-16:30						
16:30-17:00		(초청공연) 음악당달다 '랄랄라 움직이는 뮤직쇼'				
17:00-17:30						
17:30-18:00		(클로징 공연) 인디레이블 '달무늬'				



세부 내용

주 제	내 용	운 영	장 소
지·꿈 Show	지원사업 단체·기관의 한 해 교육과정과 결과물들이 다채롭게 펼쳐지는(체험워크숍, 전시 등) 부스	지원사업 운영 19개 단체·기관	지·꿈Show 부스
지·꿈 예술단	단체·기관 공연) 지원사업 참여자(아동/청소년과 가족)가 함께 만드는 좌충우돌 공연 무대 초청 공연) 퍼포먼스와 코미디, 음악극 등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는 유쾌한 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4개 단체·기관, 음악당달다·상상발전소·살롱시소	지·꿈예술단 무대
안방극장	지원사업의 다양한 영상 결과물(아카이브,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상영하는 일일 극장	지원사업 운영 10개 단체·기관, 경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안방극장 1,2,3관
보물섬	우거진 숲과 언덕이 특징인 상상캠퍼스 지형을 활용한 팝업 놀이터	팝업놀이터 시소	보물섬 팝업놀이터
만남의광장	소소한 먹을거리와 쉼이 있는 숲속 광장	경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만남의광장
지·꿈 안내소	지·꿈랜드 입장 티켓박스 및 스텬프 이벤트 행사 소개 및 경기문화예술지원센터 아카이브 전시	경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입구 지·꿈 안내소

참가 단체 및 기관



키워드. 탭댄스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한 해 동안 온 가족이 탭댄스로 함께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탭댄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1 지·꿈예술단 (공연)

키워드. 통합(무용, 미술)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꿈지락꿈지락 미술팀과 꼬무락 꼬무락 무용팀이 함께 어우러져 나의 소중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들을 한바탕 놀이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키워드. 스트릿댄스

하트무브먼트

꿈다락에서 경험했던 놀이들을 직접 선보이는 퍼포먼스와 놀이를 응용한 공연이 다양한 움직임으로 펼쳐집니다.

키워드. 타악

ART STAGE

다올-청평문화예술학교 설렘과 긴장을 담아 '떨림과 울림'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나 마음과 마음을 이어냅니다.

2 지·꿈Show (전시) (체험) (체험 · 전시)

키워드. 사진

대안문화학교달팽이

안성 지역 곳곳을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해 낸 흑백 사진 작품을 전시합니다.

키워드. 공공미술

안성공예가회

동굴벽화의 개념에서 착안하여 가족구성원이 직접 제작한 공공 미술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키워드. 통합(무용, 미술)

(재)의정부예술의전당

꿈지락 꿈지락~ 꼬무락 꼬무락~ '나와 관련한 소중한 것'을 손과 발로 그리고 몸짓을 더해 서른 겹의 꿈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시)

(전시)

(전시)

키워드. 그림책 미술

더불어꿈

"우리동네 왜 왔니?
꽃찾으러 왔단다~"
그림책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활동으로 자연물과 색깔로
나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즐거운 만들기 활동입니다.

(체험)

키워드. 생태미술

문화예술놀이터우리

"가을열매로 놀자"
가을이면 생각나는 동글동글
귀여운 밤과 도토리로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생태미술 놀이입니다.

(체험)

키워드. 목공, 연극(통합)

지아정원

"소설 속 의자,
엔조마리 의자 만들기"
수많은 광고들은 남들보다
나은 나를 부추깁니다. 대화는
무용담으로 시작해 자기애로
마무리됩니다. 그곳에
누군가가 쉴, 타인의 자리가
있습니까?

(체험)

3 안방극장

키워드. 비보잉, 창작무용

다크호스댄스

지화자! 댄스파티!
토요일 아침,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이 비보잉을 배우고,
즐기는 파티의 현장!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소통했던 놀이들이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키워드. 그림책, 미술

더불어꿈

그림책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과 일상에서 이야기를
발굴하는 문화 읽기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키워드. 환경, 생태미술

판교생태학습원

"생물 멸종을 막아라"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사라졌어요. 생물종 감소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술 종이에 그림을 그려
열쇠고리를 만들어보아요. (체험)

키워드. 창작무용

호크마댄스씨어터

"신체인식을 통한
움직임 체험"
'신체의 각 기관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
로도 변화할 수 있다' (들뢰즈
의 신체론) 움직임의 정답은
없다!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체험)

키워드. 생태미술

설미재미술관

"판화체험(에코백)"
'Eco Echo 놀고 그리고
만들다!'의 과정이 담긴 전시
와 '생활 속 판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에코백 판화'
워크숍을 엽니다.

(체험 · 전시)

키워드. 커뮤니티아트

현대지동슈퍼마켓

장롱 안에 존재하는 오래된 비디
오 테잎이나 사진첩들을 꺼내어
지금, 현재의 일상적 삶에 투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
보고 현재의 새로운 버전으로
재해석, 재제작했던 '장롱 속
영화제 II · III'를 소개합니다.

키워드. 다큐멘터리

세계문화유산교류프로젝트

내손2동은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존재하지만
사라져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술가와 청소년들의 눈으로
동네의 풍경, 생활문화,
자연의 현재를 담고 미래를
제시해 봅니다.

키워드. 미디어, 영화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환경 혹은 상황을 새로운 시각
으로 바라보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촬영하고 제작한 영상을 감상
해보세요.

키워드. 다원

조명박물관

"숨빛꼭질"
숨빛꼭질에 함께 할 가족 및
어린이 친구들 이곳으로
모이세요. 신비한 빛 체험과
꿈다락 참여자가 수업을 통해
만든 활동물을 전시합니다.

(체험 · 전시)

키워드. 공예

책배여강

"꼭꼭 숨어라,
종이 인형 보인다"
매주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살아오신 날들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수를 놓으며 함께
배우고 자라났던 1년의 기록과
경험을 소개합니다. (체험 · 전시)

키워드. 애니메이션

행복학교

"돌돌돌 애니 장난감"
도서관의 책을 읽고, 만지고,
재미나게 가지고 놀았더니,
우리만의 멋진 애니메이션이
탄생했어요!

(체험 · 전시)

키워드. 다큐멘터리, 영화

어썸플레이

마석가구공단의 이주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만든 다큐
멘터리입니다. 서툰 한국말과
미숙한 기술 때문에 어설퍼
보이지만 자신들의 삶을 솔직
하게 담아내고 이웃들과 소통
하려는 마음은 진지합니다.

키워드. 스트릿댄스

하트무브먼트

꿈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과정
"PLAY YOUR DREAM"
놀이를 이용한 다양한 움직임과
스트릿댄스를 응용한 교육으로
청소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
냈습니다.

키워드. 그림책, 스토리텔링

한길책박물관

"19세기 그림책 소풍: 마음
찾기 프로젝트"의 강의 내용과
진행 과정에 관한 영상물입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이
박물관과 마을의 자연,
예술을 함께 공유한 470시간의
기록입니다.

(사)소셜워크

1. 아이들은 자기만의 성에 살아요. 문을 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 오거든요. 여기에선 엄마의 손을 잡고 음악으로 말합니다. 엄마가 불러주면 세상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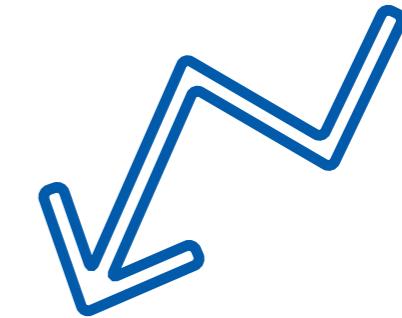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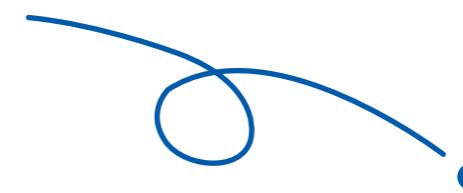
2. 낯선 나라에서 엄마로 사는 일, 때로 아이들과 같은 언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음악이 있네요. 세상의 언어는 '말'뿐이 아닙니다.





5지점

참여자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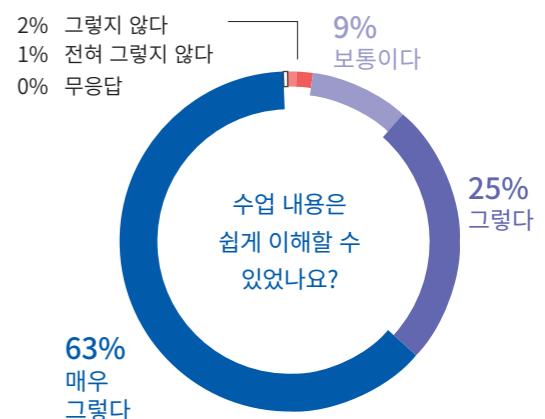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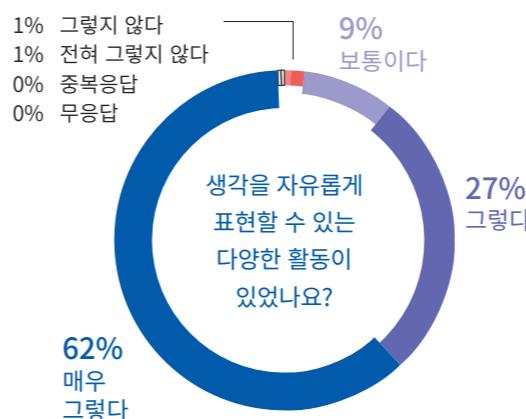
운영 단체 · 기관 프로그램 설문 결과

대상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운영 단체 및 기관 매개자, 참여자 (학부모, 학생)
시행기간 2016. 04 - 2016. 12
참여자 총 2,197명 (참여자 1,247명, 학부모 693명, 매개자 228명)

	참여자	학부모	매개자
남	534	111	56
여	713	582	172
합계	1,247	693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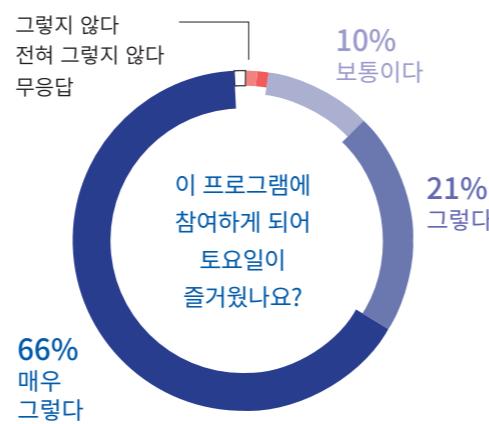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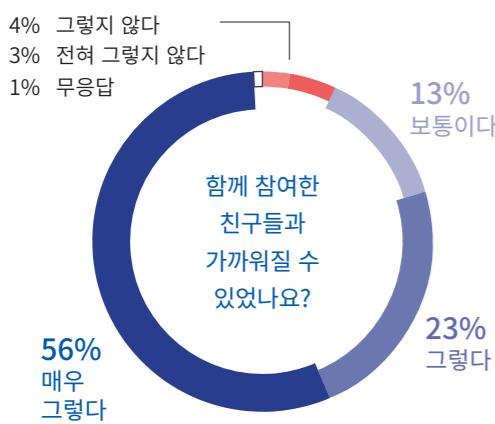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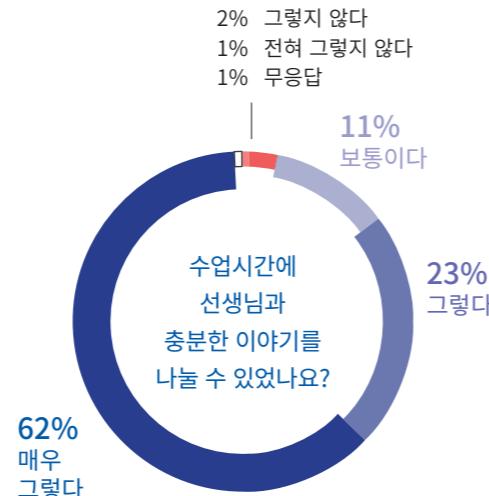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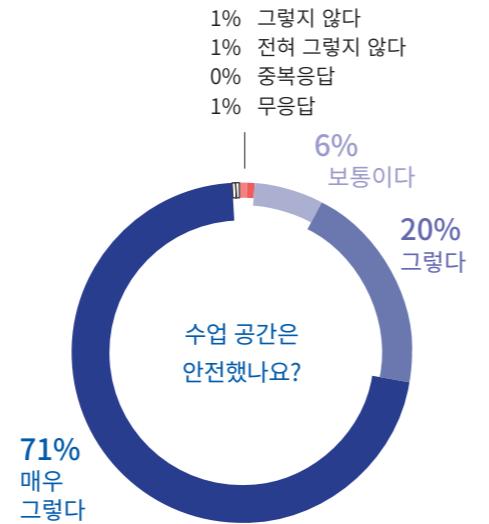
① 참여자 설문조사(1,247명)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중복응답/무응답



참여자 소감

- 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상상 한대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고, 가끔 생각해보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이 좋았다.
- 더 자유로운 것 같았다. 다른 수업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었는데 이 꿈다락은 아니라서 좋았다.
- 다른 수업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프로그램 무용은 몸으로 한다.
- 무언가를 배우는 수업은 많았지만 나 자신을 알고 배우는 수업은 처음이라 좋았다.
- 보람차고 토요일마다 일찍 일어나서 특별했다.
- 만들기가 힘들다.
- 좀 어렵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 내 힘으로 무언가 만드니 좋았다.
-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 배운 것들을 배워서 즐거웠다.
-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 선생님이 알려주는 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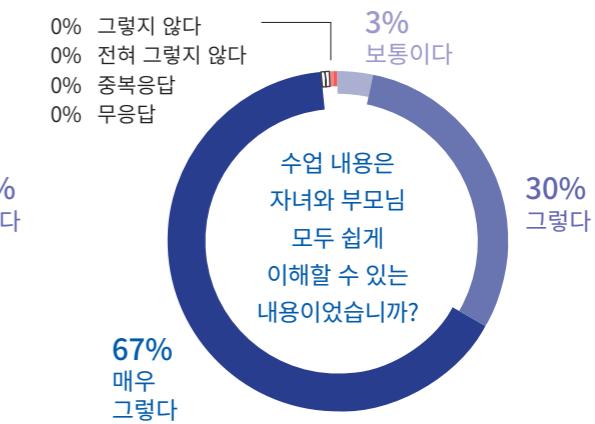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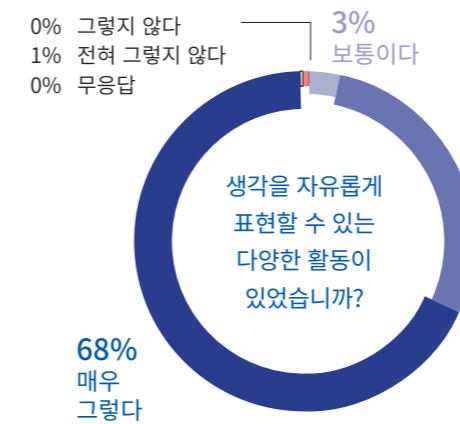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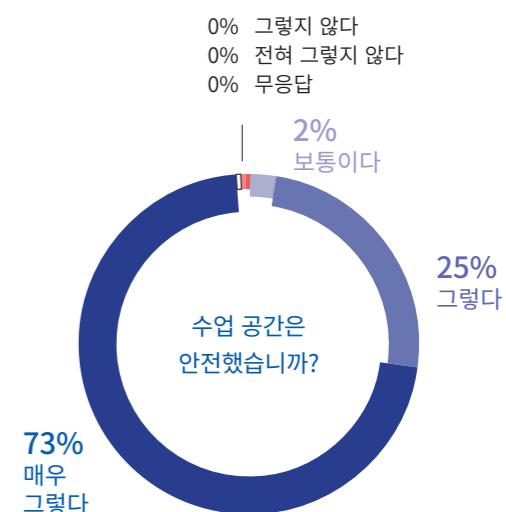


② 학부모 설문조사(69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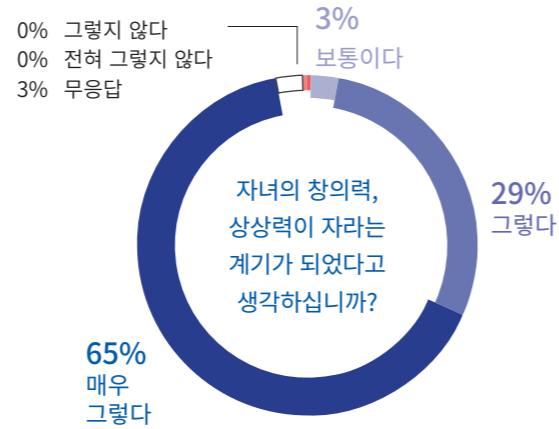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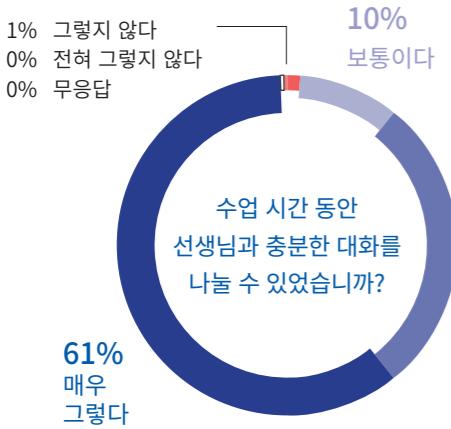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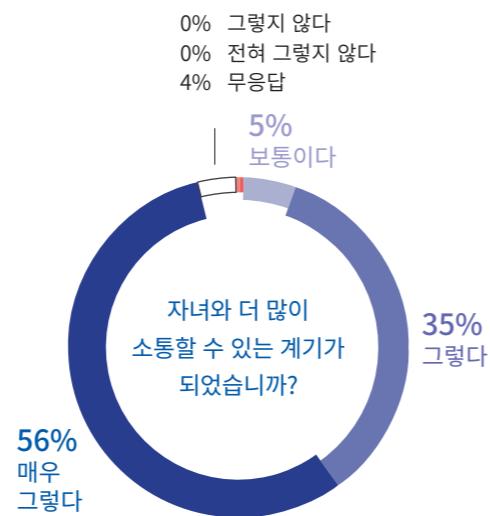
학부모 소감

- 뚜렷한 수업 목표를 아이들에게 주입하기 보다는 수업의 방향을 소개해주고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긴 점이 좋았습니다.
- 아이가 자발적 참여, 즐거워하고 수업을 기다립니다. 일반적인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다양한 체험 작업들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집에서도 활용하여 연계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 아이가 가고 싶어 한다.
-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좋았습니다.
- 또 참여하고 싶은 꿈다락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 그렇지 않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중복응답/무응답



- 아이와 엄마인 제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과 서로 간에 어색했던 감정들을 좀 더 풀어내며 사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수평적 소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아이와 대화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자랑거리, 말할거리, 친구와 만날 시간 거리, 새로운 사람을 사귈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 서로 마주 보며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으나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우유처럼 더욱더 즐거워하여 엄마와 마주 앉아 우유를 같이 마시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과적이 아닌 평가를 하지 않는 수업이라 좋았습니다. 편하게 즐기고 느끼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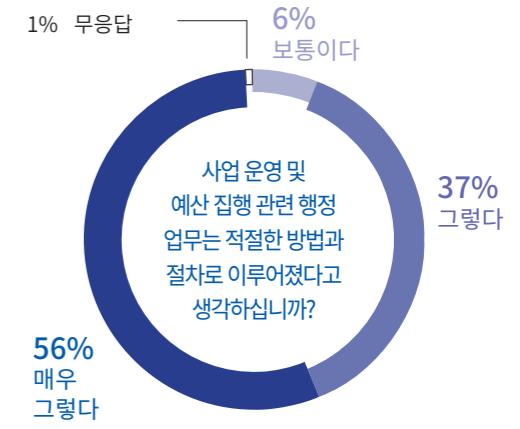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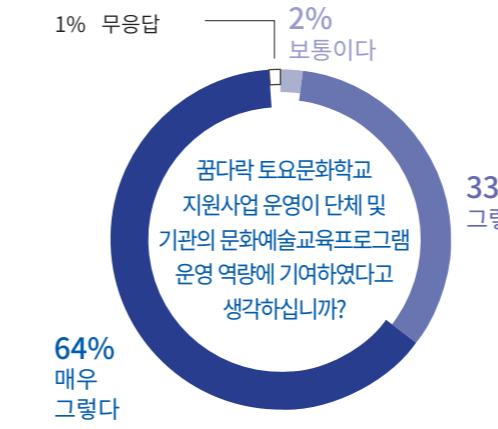
③ 매개자 설문조사(228명)

매개자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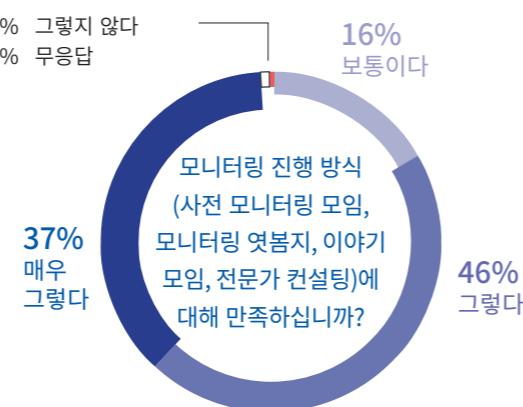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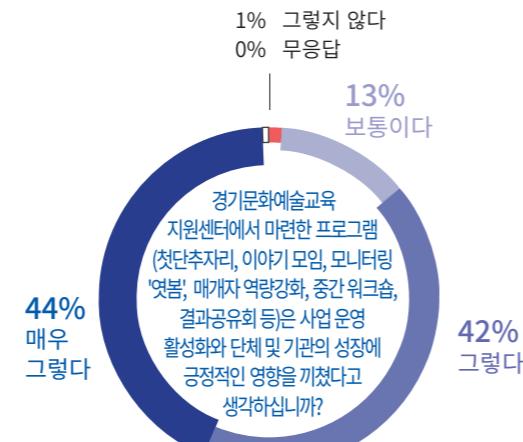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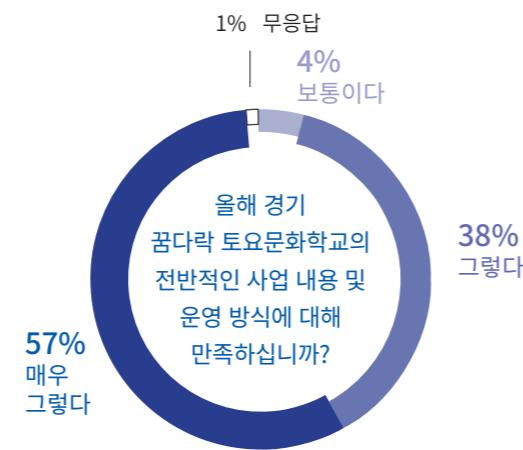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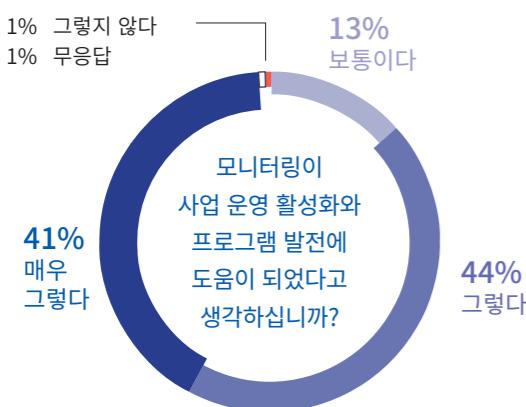
- 1년 동안 매주 토요일 꿈다락 아이들을 만나면서 숨 가쁘게 지내왔다.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놀 곳도, 놀 시간도 부족한 요즘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 수용, 공감, 지지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치유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보람도 있었다. 다소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형식적이지 않은 모니터링 방식은 좋았다.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언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식이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방식의 워크숍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 우선 6개월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학교 외의 문화, 예술 영역에 대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시도가 앞으로 더 구체화되어 다양한 방향으로 더 깊이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랍니다.

매개자 설문조사(228명)
매개자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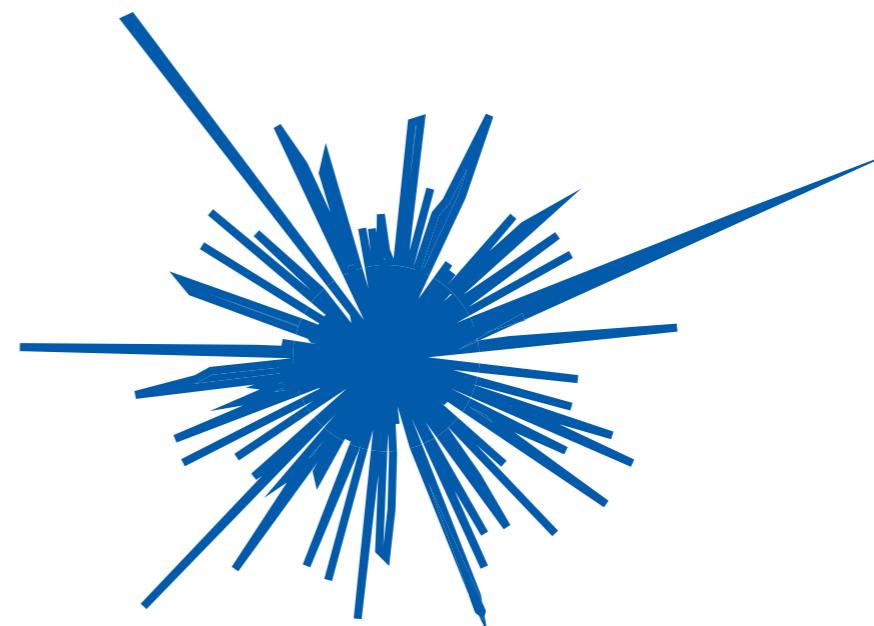
Response	Color
매우 그렇다	Dark Blue
그렇다	Medium Blue
보통이다	Light Blue
전혀 그렇지 않다	Red
그렇지 않다	White
무응답	Grey



- 학생들에게 열린 교육, 체험, 소통으로 재미있고 뜻깊은 꿈다락 교육에 참여하고 진행하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체험은 곧 생각을 삶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됨으로 꿈다락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소망과 내면을 더 다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램은 타 기관의 프로그램 소개 면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점들을 공유하는 인터넷 온라인 강의 교류도 있으면 합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만남이 각자 기관마다 빽빽한 일정들이 있으므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꿈다락을 통해 균형 있는 교육 정책이 마련된 길 기대합니다.
-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떠나 내 느낌과 생각을 확실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많은 아이들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질적인 발전을 위하여 단순 체험이 아닌 프로그램의 개연성과 프로그램 기획자의 철학을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재교육의 필요성과 그 중요함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바랍니다.



2016 꿈다락의 터닝포인트의 순간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현장 사진

기록 의도 운영 프로그램 사례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
촬영 기간 2016. 05 / 2016. 11
참여 작가 권하형, 권민호, 장기훈

사진 촬영 현황

순번	촬영일	단체명	프로그램명
1	2016. 07. 02	여주사람들	여강을 따라가며 놀자~
2	2016. 07. 02	문화예술 놀다	비밀공작소
3	2016. 07. 09	현대지동슈퍼마켓	장롱 속 영화제 Ⅱ, Ⅲ
4	2016. 07. 09	호크마댄스씨어터	Body Talk
5	2016. 07. 16	한국전래놀이보존회	얘들아 노~을자 꿈 따라 가자
6	2016. 07. 16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우리들의 이야기 1기, 2기
7	2016. 07. 23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
8	2016. 07. 23	한길책박물관	19세기 그림책 속으로 떠나는 우리 가족 박물관 여행
9	2016. 08. 06	하트무브먼트	2016 청소년 창의 성장 프로젝트 ABCD (Anyang, Be Creative! with Dance)
10	2016. 08. 20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내가 만드는 예술 장난감, 오! 마이 토이 (무빙토이 오토마타 교실, 플라잉토이 드론 교실)
11	2016. 08. 20	(재)대유문화재단 영은미술관	신나는 문화예술 놀이+터
12	2016. 08. 27	다크호스 댄스	지화자! 댄스 파티!
13	2016. 08. 27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몸짓으로 표현하는 DREAM '꿈꾸는 청소년 劇(극)' 시즌2
14	2016. 08. 28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	하남문화예술회관 <각양각색 예술 점령기!>
15	2016. 09. 03	(재)의정부예술의전당	"내가 되고 싶은 나" 프로젝트
16	2016. 09. 04	쏘잼도예놀이터	업사이클 끌! 끌! 끌!
17	2016. 09. 10	행복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단	책이랑 놀아난 애니메이션
18	2016. 09. 1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찰칵! 우리는 자연예술가
19	2016. 10. 08	문화예술놀이터 우리	하늘땅별땅 생태미술교실
20	2016. 10. 22	조명박물관	숨빛꼭질 _빛으로 노는 아이들
21	2016. 11. 26	사월의 들판	내 책을 만들고 싶어요 LTP 프로젝트
22	2016. 12. 03	ArTeacher(아티처)	문화, 예술 비빔밥

1

여주사람들의
<여강을
따라가며 놀자~> 현장



2

비밀공작소의
<문화예술 놀다>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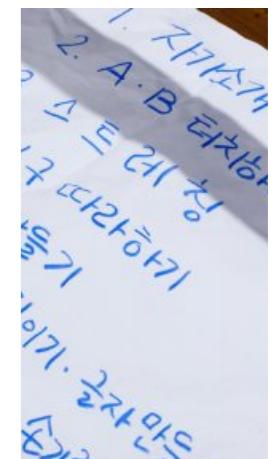
3

현대지동슈퍼마켓의
<장롱 속 영화제 II, III> 현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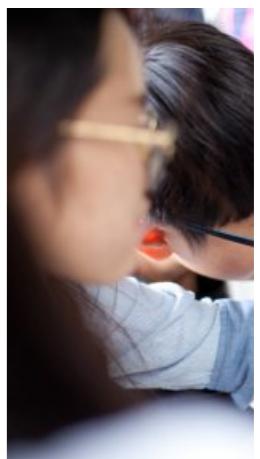
호크마댄스씨어터의
<Body Talk> 현장



한국전래놀이보존회의
<애들아 노~울자
꿈 따러 가자> 현장



수원영상미디어센터의
<우리들의 이야기
1기, 2기> 현장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미메시스 어린이
건축가> 현장



한길책박물관의
<19세기 그림책 속으로 떠나는
우리 가족 박물관 여행> 현장

9

하트무브먼트의
<2016 청소년 창의
성장 프로젝트> 현장



10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의
<내가 만드는 예술 장난감,
오! 마이 토이> 현장

11

(재)대유문화재단
영은미술관의
<신나는 문화예술
놀이+터> 현장



12

다크호스 댄스의
<지화자! 댄스 파티!> 현장

13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의
<몸짓으로 표현하는 DREAM
꿈꾸는 청소년 劇(극)>
시즌2 현장



14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의
<하남문화예술회관
각양각색 예술 점령기!> 현장

15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
<내가 되고 싶은 나
프로젝트> 현장



16

쏘셉도예놀이터의
<업사이클 챔! 챔! 챔!> 현장

17

행복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단의
<책이랑 놀아난
애니메이션> 현장



18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의
<찰칵! 우리는
자연예술가> 현장

19

문화예술놀이터 우리의
<하늘땅별땅
생태미술교실> 현장



20

조명박물관의
<숨빛꼭질_빛으로
노는 아이들> 현장

사월의 들판의
<내 책을 만들고 싶어요
LTP 프로젝트> 현장



ArTeacher(아티처)의
<문화, 예술 비빔밥> 현장

2016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홍보 영상

기록 의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현장 스케치
촬영 기간 2016. 08 / 2016. 11
촬영 제작 땅도프로덕션

홍보 영상 제작 현황

- 1 2016.08.30 ~ 08.31 강원경기서울인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매개자 네트워킹 워크숍 <4방팔방>
- 2 2016.11.05 2016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공유회 <지·꿈랜드>

1

4방팔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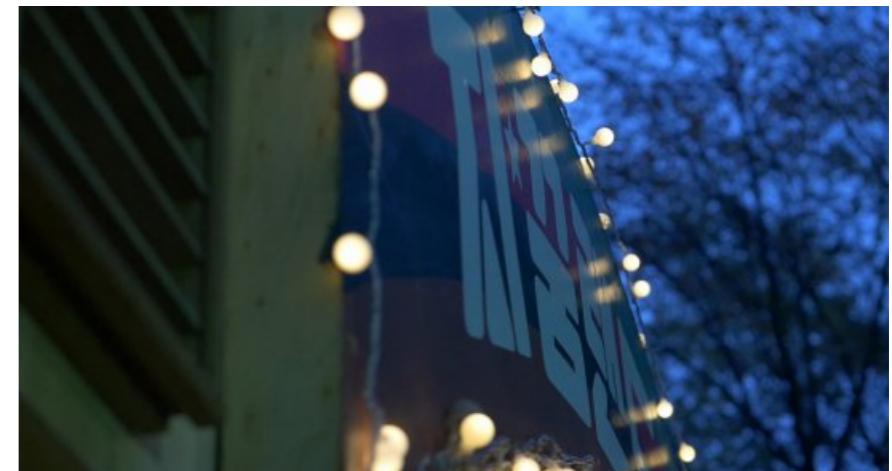




2

지·꿈랜드





터닝포인트(Turning Point)

2016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자료집

운영담당 최지원, 공민혜, 남선현

총괄 박희주(문화예술본부장)

운영 총괄 전지영(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운영 지원 문성진(문예진흥실장), 윤동현, 이정훈(문예진흥실)

박아롬, 임지현, 이화진, 위상은, 이은솔, 이수정, 전한나(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진 권하령, 권민호, 장기훈 외

영상 땅도프로덕션

디자인 · 인쇄 김연정 · 엘팩토탈프린팅

주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54개 운영 단체 · 기관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펴낸 날 2017. 02. 28

펴낸 이 설원기(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펴낸 곳 경기문화재단

주소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75/7276/7277

팩스 031.236.0223

홈페이지 <http://ggarte.ggcf.kr>

copyright 2016 경기문화재단

본 책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6년도 공모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